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핑몰 : www.sanchon.com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2월 4일 수요일(주간) 제398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장보살의 '값진' 삶

30년간 보따리 행상과 폐비닐 수집 등으로 모은 12억원을 94년 동국대에 기증했던 장내순(78세)이 11월25일 별세했다.

장 보살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30년간 갖은 고생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인 12억원 상당의 임야 4천 평(충남 아산 소재)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선뜻 내놓아 세인을 감동시켰다.

불심이 깊었던 장 보살의 당시 소원은 조그만 절을 지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돼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장 보살은 평소 다니던 서울 성북동 수월암의 효성스님을 찾았고, 스님으로부터 동국대를 추천받고는 곧바로 전 재산을 회사했다.

이후 장 보살에게 남은 것은 10평 짜리 연립주택과 외동딸 뿐이었다. 외동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같았지만 혼자 힘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유산이라는 생각에 기증결심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외동딸이 출가한 뒤 좁은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이어왔다.

장 보살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국대에서 부속병원 건강진단 및 진료, 보약 처방 등의 예우를 해왔지만 장 보살은 그 마저도 늘 부담스러워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나눔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꺼렸던 장 보살. 그런 장 보살은 장례마저도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남겼다. 동국대는 장 보살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49재를 학교차원에서 봉행키로 했다.

자신의 전재산을 인재양성을 위해 보시하고 8년 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장 보살.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가난하기를 원했던 무소유의 발원. 하지만 장 보살은 세인들에게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 말해 주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가난한가? 장 보살은 보통 사람이 줄 수 없는 값진 교훈을 남겼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경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양주: 054)634-3429 말양: 055)353-1196

'군포교 비전21' 마스터플랜 수립

군불교위 정책입안 · 교육활성화 방안 등 4부문

군사찰 운영시스템 이용 전역병포교 네트워크

1군법당 1사찰 결연 강화 효율적 지원 모색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가 중장기 마스터플랜 '군 포교비전 21'을 기획, 군 포교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았다.

군포교 비전 21은 △군 포교 정책 수립과 추진 △군 사찰 운영시스템 확립 △교육 활성화 △지원 및 후원 활성화 방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과거 주먹구구식의 포교 계획을 뱃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군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 사찰 운영시스템 확립. '군포교 전략화를 위한 군사찰 정보화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군사찰운영프로그램을 통한 포교활성화 등 군사찰 운영 방안 및 포교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군불교위원회는 군사찰 운영시스템을 이용해 전역병들을 대상으르 하는 포교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사찰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건립 절차를 규정화하는 군사찰 건립규정 체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군포교 정책 수립과 추진은 군법사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 자료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포교 발전 5개년계획, 군승 활동 지침 체정, 군포교 상황에 맞는 방법론 개발 등이 구체적인 안으로 추진된다.

교육 활성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승자원 획득 방안 연구 부분이다. 군불교위원회는 단순한 군승 숫자 불리기보다 교육 지침서 및 책자 발간, 법당 군종병 대상 군승 통합 교육 시행, 교육 커리큘럼 연구 등을 통한 질적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원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1군법당 1사찰 자매결연 사업을 강화하고, 군포교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군포교 비전 21과 관련 박대용 군승회의 문화홍보국장은 "개신교는 군 선교비전 2020을 통해 한해 90억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불교는 2~3억에 불과하다"며 "군포교 비전 21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 및 군불교진흥의 밤 행사에서는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2억원,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1억원 등 총 8억 여원의 후원금 약정 및 전달이 이뤄졌다. 사진=임민수 기자

스리랑카 국제불교회의 내년 1월 15~18일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스리랑카에서 국제불교회의가 열린다.

스리랑카 전통 수계식과 경전연구기관 설립 2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국제불교회의는 스리랑카 정부 주최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등 대승불교권 나라들이 참가한다.

불교 업무를 관장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불교부(Ministry of Buddha Sasana)'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조계종에 보내 한국 불교의 참여를 요청해왔으며, 조계종은 종단의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월스님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상좌부 불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Buddha Sasana in Theravada Countries : Issues and the Way Forward)'을 주제로 열리며, 대승불교권 국가들을 초청해 상좌부불교에 대한 견해와 전망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대북지원 · 문화교류 강화

종단협 내년사업 확정, 일승종 제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5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4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종단협의회는 민족화해협력의 일환으로 연중 시행되고 있는 대북지원 및 문화교류사업 등을 내년도부터 한층 강화하고, 국제포교사 및 외국인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도 비중 있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등의 기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편치기로 했다.

특히 종단협의회는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봉축테마열차 운행을 올해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정기회비 및 사업비 등을 체납한 일승종을 회원 종단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은 25개로 줄게 됐다.

김청우 기자

녹원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사임
직무대행에 정대 총무원장 지명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이 이달 20일자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사진)

녹원스님은 11월 29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의사를 밝힌 뒤 "동국대는 지금 불교병원의 순조로운 개원과 후임 총장 선임 등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있다"며 "나의 사임이 이런 난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20일부터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녹원스님은 지난 85년 동국학원 이사장에 선임된 이래 네 차례 연임해 왔으나, 지난 2월 이사회가 재단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올 12월까지 용퇴할 것을 결의했었다.

녹원스님이 사임함에 따라 차기 이사장에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정대스님의 수락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정대스님이 1월 중순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님은 내년 1월 중순 동국학원 이사를 다시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직무대행을 때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스님이 조계종 종헌의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총무원장을 사퇴하고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조계종은 빠른 시일 내 총무원장 선거를 해야한다. 김원우 기자

군승의 날 34돌기념 · 군불교 진흥의 밤

제 34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및 군불교 진흥의 밤 행사가 11월 26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육 해공군 법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매년 7만여명의 젊은 불자를 양산하는 군 포교는 복무중인 사병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막중한 사명이 있다"며 군 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 군 포교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군법당 자매결연 증서교환식이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진솔한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불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교입을 하며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2003학년도 정시("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 모집전공 및 정원
불교문화학부(불교학전공) 20명, 통역학부(영어통역학전공, 일어통역학전공, 중어통역학전공) 60명,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전공) 20명

1. 정시모집("나"군)

구 분	내 용
모집인원	- 일반전형 정원내 : 불교문화학부(14명), 통역학부(42명), 사회과학부(14명) - 특별전형 정원외 : 통역학부(농어촌 1명, 재외국민 2명), 사회과학부(농어촌 2명)
지원자격	-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수능 5개 영역 변환표준점수 2등급 이내인 자 - 특별전형 :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로 수능 5개 영역 변환표준점수 3등급(통역학부) 또는 4등급(사회과학부) 이내인 자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수능(40%), 고교성적(40%), 면접고사(20%) - 특별전형(농어촌) : 수능(60%), 면접고사(40%) - 특별전형(재외국민) : 면접고사(100%)
전형일정	- 입학원서 교부 : 2002. 11. 1(금) ~ 12. 13(금) - 입학원서 접수 : 2002. 12. 11(수) ~ 13(금) - 면접고사 : 2003. 1. 7(화) - 합격자 발표 : 2003. 1. 14(화)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금강대학교 200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학부	전공	모집정원	접수현황	경쟁률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6	29	4.83
통역학부	영어통역학전공 일어통역학전공 중어통역학전공	18	21	1.17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6	32	5.33
계		30	82	2.73

수능(5개 영역 변환표준점수 기준) 2등급 이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 설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 되길

"군포교 비전 21이란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불교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겠다". 지난해 발족된 군불교위원회의 의욕적인 계획이다. 군영내 거주자 및 제대자 영외 거주자를 포함한 전군의 불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군승활동의 체계적 확립, 다양한 군포교 방법론의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0여년 역사의 기독교계의 군목활동은 불교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활발하며, 그 성과도 막대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70만 군장병과 가족, 군제대자들을 포함하면 그 선교의 대상은 100만명을 넘으리라 볼 수 있다. 때문에 30년전부터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를 창립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장병뿐만 아니라 제대자, 군인가족, 제대군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군포교 비전 21의 수립은 척박한 군포교 환경 개선을 위한 출발을 알리는 일이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군인 가족 내지 군승, 제대군인가족까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리라 본다. 물론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인 만큼 전종단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서두르지 말고 전종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조계종 영문홈페이지 의미

조계종이 11월 26일 영문홈페이지(http://eng.buddhism.or.kr)를 개통해 불교 세계화의 기틀을 업그레이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인터넷은 국경도 인종도 차별하지 않는 세계인의 공동공간이다. 그런 공간에 한국의 불교를 알리는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간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영문 홈페이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참신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의 홍보와 국제적 이미지 고양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상징이다. 여러 종단과 불교단체, 불교관련 학술단체와 대학, 문화 예술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세계화의 기류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적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문제는 아직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국어로 서비스되어야 하기에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호응 받을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과 정보의 고급화와 다양화도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 뿐인가. 늘 앞서가는 감각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주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죽은 사이트가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종단과 단체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조계종의 영문홈페이지 개통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쾌거임에 틀림이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개정 병역법·군인사법 싸고 논란

軍신자수 대비 군종장교 허용기준에 이견

조계종 형평성만 고려…하위법 손질때 반영

국방부 심사위 설치, 자질·배정비율 등 조정

천태·진각종 조계종과 군종장교 파견 협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만 제한돼 온 군종장교를 다른 종교에도 개방하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불교 등 군종장교를 파견해온 기존 종교들이 관련 하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시행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등은 그동안 '학사 이상을 가진 승려, 목사, 신부'로만 못 박았던 군종장교 자격을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대상을 '불교대학, 신학대학'에서 '그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직자 양성 대학을 갖고 있는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4개 종교단체들의 군종장교 파견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병역법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현행 군종장교 허용기준을 군신자 2만명 이상으로 제한한 국방부 훈령 조항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내 신자 수가 157명(0.1%)에 불과한 원불교의 경우, 하위법령의 손질이 없는 이상 군종장교 파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은 종교의 형평성만을 고려했을 뿐, 군 신자 수를 감안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을 간과한 법개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군 신자 수별 군종장교 허용 기준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국방부측에 전달하는 한편, 군종장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군종실 정성진 군종법사는 "병역법 등은 개정이 됐지만, 국방부훈령 등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3개 종교 단체의 의견 수렴 및 법령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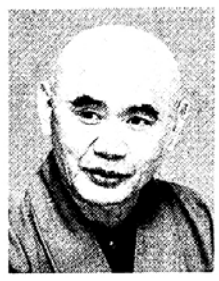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해 군종장교 자질 심사, 충원 여부·규모·비율·배정방법 등에 대한 종교간 입장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과 진각종은 11월 29일 군종장교 개방을 환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종단은 군종장교의 독자적인 파견보다, 조계종과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종장교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종회의원 사무처장 겸직 반대"

중원스님 거듭 주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중원스님(전 관음사 주지·사진)이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중앙종회의원이 겸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 천명했다.

중원스님은 11월 23일 제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기자를 만나 "1994년 개정된 현재의 종헌에 종회사무처장이 겸직 봄가 조항에서 제외된 것은 1962년 통합종단 이후 한번도 종회의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회사무처장은 분명한 종무원이고 그 자격은 부장급에 해당한다. 지금처럼 종회가 계파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종회의원이 사무처 업무를 엄정 중립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종회의원이 갖는 면책특권과 종무원으로서의 과실에 대한 징계의 범위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순수 종무원이 사무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원스님은 이 문제를 풀기위해 사회법에 호소할 생각은 없으나 종단내 법규위원회 제소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기자

금강대 입학경쟁률 2.7대1

수시전형 마감, 사회과학부 5.3대1 최고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는 2003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최종마감한 결과, 30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해 2.7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사회과학부가 5.33:1로 가장 높은 경쟁을 보였으며, 불교문화학부는 4.83:1, 통역학부는 1.17: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금강대는 정시모집을 12월 11~13일까지 원서접수 받고, 2003년 1월 14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041) 731-3050

김철우 기자


◇지홍스님


◇승조스님


◇일로스님


◇호명스님

태고종 총무원 일부 부장 인사

기획감사실장 지홍스님
재무부장 승조스님
사업부장 일로스님
사회부장 호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에 지홍스님(前 재무부장), 재무부장에 승조스님(순천 선암사), 사업부장에 일로스님(前 사회부장), 사회부장에 호명스님(前 사업부장) 등을 각각 임명했다. 총무부장 월해, 교무부장 법성, 규정부장 경담, 교임부장 동우 스님등은 유임됐다.

김철우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의장 성관스님 추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 의장에 성관 스님(수원포교당 주지·사진)이 추대된다.

승가회는 9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제2대 의장에 성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이어 회장 이·취임식과 송년식도 함께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화엄경 현담' 번역본 조계종, 내년1월 발간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29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2차 역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재 편찬작업 중인 〈화엄경 현담〉을 검토하고 내년 1월 중 발간해 강원고재로 배포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화엄경 현담〉은 전체 내용을 완전히 번역하고 주석까지 수록한 새로운 형태로, 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 현담〉은 지금까지 강원 교재로 채택돼 있었으면서도 완전한 번역본 없이 한문본만을 사용해왔으며, 전체 내용도 모두 수록하지 못했었다. 한명우 기자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 조계종, 16일부터 2차례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기 2547년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를 실시한다.

1차 강습회는 16~20일까지, 2차 강습회는 내년 1월13~17일까지며, 강습 대상은 연등축제 참가단체 제작자로 1, 2차 각각 40명씩이다. (02)725-6641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범종단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만공스님께서 주석하신...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선원으로 면모일신 합니다

수덕사 (정혜사) 능인선원 대작불사



근세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만공선사께서 주석하며 쇠미해가는 선풍을 다시 일으킨 이 곳 덕숭총림 정혜사 능인선원은 한국 선불교사에서 국내 최고의 선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량불사를 거의 하지 못하여 작금에는 명망과는 달리 전국 선원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납자들이 수행·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이 곳에서 정진납자들이 갈고 닦는 선수행이 지구촌 인류의 삶을 밝혀주는 장명등이 되어 온 법계를 비치며 맑고 깨끗한 감로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근세 선불교의 산실에 걸맞으면서도 제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하여 대작불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뜻있는 많은 분들의 발원공덕으로 조속한 시일에 회향되어 우주의 본체가 무형무적하고 공색이 상응하며 선교가 불이하여 생사가 자재하고 조화가 무궁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수희동참하시어 복 중의 제일 복인 인연복을 찾는 계기가 되시길 분향 합장발원합니다.

동참방법
◈ 연 락 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수덕사 종무소
전 화 041)337 - 6565
팩 스 041)337 - 0072
◈ 계좌번호 : 310821-01-001544 (우체국) 예금주 수덕사
◈ E-mail : sudeoksa@sudeoksa.com
◈ 홈페이지 : http://www. sudeoksa.com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 법 장

진각종·조불련 평양에 탁아소 설치 합의

지원규모·명칭 등 구체사안 추후 협의키로





◇11월 21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된 '통일기원남북합동법회'. 진각종 대표단,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등 100여명의 북측 신도들이 동참했다(사진 위). 11월 20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개원한 한국문화 홍보관의 테이프커팅 모습. 사진제공=진각종

진각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대표단(단장 진산, 종의회 의장)은 19일 조선불교도연맹 청사에서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등과 만나 평양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지원 규모, 명칭 등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진각종은 우선 우유 모포 등의 유아용 용품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하고, 탁아소 설치문제가 구체화될 내년 5월 통리원장이 직접 방북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어 진각종대표단은 방북기간 동안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불련 관계자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고, 평양 9.15 주탁아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진각종은 평양 컴퓨터강습소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컴퓨터를 대북지원 제한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바로 강습소 개설은 무리라고 판단해 추후 조불련과 논의하기로 했다.

묘향산 보현사서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JGO스리랑카 직업센터에 문화홍보관

한편 진각종은 11월 20일 진각복지재단 해외지부인 JGO스리랑카 사회직업훈련센터 내에 한국문화홍보관을 개관했다. 올 5월부터 6개월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훈련센터내 본관을 개축해 문을 연 한국문화홍보관은 한국문화를 현지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m-gan@buddhapi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후원의 밤 성료

각계인사 500여명 참가, 본사 순회 모금 시작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이 11월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원로의원 석주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하순봉 한나라당 불자회장,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등 종단 주요 사찰 주지 및 신도회, 불교단체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기념관 불사 외에 전통문화쉼터로서, 또 한국전통문화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자와 국민여러분의 원력과 성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는 성역화불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후원동참자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원 지관스님 1천만원,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1천만원,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 1억원,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2억원,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1억원,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 1억원,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 5천만원, 한마음선원 주지 하원스님 5천만원, 진관사 진관스님 5천만원, 대불청 · 포교사단 · 교수불자연 등이 각각 1천만원을 약정했다. 또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모금의 밤에는 5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성역화추진불사위원회는 25일 용주사에서 모금 후원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국제포교사회 조직 대폭 정비

6개부서 설치·외국인포교 활성화 추진

거점도량 법회도 상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포교사들의 외국인포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정비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1월 23일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대 회장 취임 및 기념법회에서 국제포교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에 핵심을 두고 책자· 번역, 국내거주 외국인 포교활동 전개 등의 2003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국제포교사들의 해외포교 현황 조사, 재정자립안 마련, 국제포교사 육성 확대 등 외국인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양 및 전문화 교육 강화 △국제포교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불교 및 문화서적 번역 △연등축제 등 외국인 참여 행사 통역 △미 8군 법회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외국인 노동자 주한 외교관 부인 사찰 체험 등을 추진한다.

국제포교사회는 11월 초 제3대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부, 교육지원부, 자료개발부, 교류협력부, 편집부, 홍보부 등 6개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6개 지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설립 목적인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외국인 포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원활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우영 신임 회장은 "창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4년만에 150명으로 늘고, 분야도 영어 외에 일어 중국어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드니 등 교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도량을 설립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상설화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聯 회장단 구성



법장스님



지성스님



일면스님

회장 법장스님 선출

부회장 지성·일면스님

그동안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회장단을 구성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이하 본사주지련)는 11월 25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18명의 본사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지성(동화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스님, 간사에 법현스님(선운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본사주지련은 그동안 회장만 있었을 뿐 회장단이 구성돼 있지는 않았었다. 법장스님은 "각 본사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포교방법론 등 불교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사주지련은 8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단체로 종단의 정식 단체는 아니지만 교구본사 주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98년 종단사태 당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이 '교구본사주지연합회'로 전환하면서, 종단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본사주지련이 회장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본사주지련 스님들은 정기모임 다음날인 11월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노태섭 문화재청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찰 문화재 보수에 개입하는 현행 방식은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태섭 문화재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망구축을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최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602)722-4162, buddhanews.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운세보기

1.각종 매체에 나오는 '운세'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매일 본다 ②가끔 본다 ③안 본다

2.보실 경우 얼마나 믿으십니까?

①믿지 않고 흥미로 본다 ②대부분 믿는다

③좋은 내용은 믿고 나쁜 내용은 믿지 않는다.

설문 참여: 12월 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8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봉 통일기원 호국석조 지장보살 조성 부산 대법회 축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

◇일 시 : 불기 2546년(2002년)12월 11-12일 오전10:30분
◇초청법사 :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큰스님 법문
◇초청법사 : 박완일 교수님 강의(전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
◇초청법사 : 범진 스님의 음성공양
◇장 소 : 부산 국제신문사 대 강당
◇주 최 :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주 관 : 부산 경남 도피안사 신도회
◇후 원 : 철원 도피안사 신도회
◇연 락 처 : 철원 도피안사 033)455-2471
051)807-5507 / 011-876-5504
◇후원업체 : 부산 국제신문사 내원정사
현대불교신문사 부산불교방송
중정다례원

불사모연중



◇도견스님



◇혜인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범진 스님





◇도피안사 조감도

대한불교 조계종 금와보살 출현도량 철원 도피안사

진각종·조불련 평양에 탁아소 설치 합의

지원규모·명칭 등 구체사안 추후 협의키로





◇11월 21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된 '통일기원남북합동법회'. 진각종 대표단,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등 100여명의 북측 신도들이 동참했다(사진 위). 11월 20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개원한 한국문화 홍보관의 테이프커팅 모습. 사진제공=진각종

진각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대표단(단장 진산, 종의회 의장)은 19일 조선불교도연맹 청사에서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등과 만나 평양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지원 규모, 명칭 등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진각종은 우선 우유 모포 등의 유아용 용품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하고, 탁아소 설치문제가 구체화될 내년 5월 통리원장이 직접 방북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어 진각종대표단은 방북기간 동안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불련 관계자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고, 평양 9.15 주탁아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진각종은 평양 컴퓨터강습소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컴퓨터를 대북지원 제한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바로 강습소 개설은 무리라고 판단해 추후 조불련과 논의하기로 했다.

묘향산 보현사서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JGO스리랑카 직업센터에 문화홍보관

한편 진각종은 11월 20일 진각복지재단 해외지부인 JGO스리랑카 사회직업훈련센터 내에 한국문화홍보관을 개관했다. 올 5월부터 6개월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훈련센터내 본관을 개축해 문을 연 한국문화홍보관은 한국문화를 현지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m-gan@buddhapi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후원의 밤 성료

각계인사 500여명 참가, 본사 순회 모금 시작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이 11월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원로의원 석주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하순봉 한나라당 불자회장,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등 종단 주요 사찰 주지 및 신도회, 불교단체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기념관 불사 외에 전통문화쉼터로서, 또 한국전통문화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자와 국민여러분의 원력과 성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는 성역화불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후원동참자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원 지관스님 1천만원,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1천만원,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 1억원,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2억원,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1억원,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 1억원,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 5천만원, 한마음선원 주지 하원스님 5천만원, 진관사 진관스님 5천만원, 대불청 · 포교사단 · 교수불자연 등이 각각 1천만원을 약정했다. 또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모금의 밤에는 5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성역화추진불사위원회는 25일 용주사에서 모금 후원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국제포교사회 조직 대폭 정비

6개부서 설치·외국인포교 활성화 추진

거점도량 법회도 상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포교사들의 외국인포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정비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1월 23일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대 회장 취임 및 기념법회에서 국제포교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에 핵심을 두고 책자· 번역, 국내거주 외국인 포교활동 전개 등의 2003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국제포교사들의 해외포교 현황 조사, 재정자립안 마련, 국제포교사 육성 확대 등 외국인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양 및 전문화 교육 강화 △국제포교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불교 및 문화서적 번역 △연등축제 등 외국인 참여 행사 통역 △미 8군 법회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외국인 노동자 주한 외교관 부인 사찰 체험 등을 추진한다.

국제포교사회는 11월 초 제3대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부, 교육지원부, 자료개발부, 교류협력부, 편집부, 홍보부 등 6개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6개 지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설립 목적인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외국인 포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원활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우영 신임 회장은 "창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4년만에 150명으로 늘고, 분야도 영어 외에 일어 중국어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드니 등 교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도량을 설립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상설화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聯 회장단 구성



법장스님



지성스님



일면스님

회장 법장스님 선출

부회장 지성·일면스님

그동안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회장단을 구성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이하 본사주지련)는 11월 25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18명의 본사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지성(동화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스님, 간사에 법현스님(선운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본사주지련은 그동안 회장만 있었을 뿐 회장단이 구성돼 있지는 않았었다. 법장스님은 "각 본사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포교방법론 등 불교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사주지련은 8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단체로 종단의 정식 단체는 아니지만 교구본사 주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98년 종단사태 당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이 '교구본사주지연합회'로 전환하면서, 종단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본사주지련이 회장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본사주지련 스님들은 정기모임 다음날인 11월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노태섭 문화재청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찰 문화재 보수에 개입하는 현행 방식은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태섭 문화재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망구축을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최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602)722-4162, buddhanews.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운세보기

1.각종 매체에 나오는 '운세'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매일 본다 ②가끔 본다 ③안 본다

2.보실 경우 얼마나 믿으십니까?

①믿지 않고 흥미로 본다 ②대부분 믿는다

③좋은 내용은 믿고 나쁜 내용은 믿지 않는다.

설문 참여: 12월 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8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봉 통일기원 호국석조 지장보살 조성 부산 대법회 축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

◇일 시 : 불기 2546년(2002년)12월 11-12일 오전10:30분
◇초청법사 :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큰스님 법문
◇초청법사 : 박완일 교수님 강의(전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
◇초청법사 : 범진 스님의 음성공양
◇장 소 : 부산 국제신문사 대 강당
◇주 최 :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주 관 : 부산 경남 도피안사 신도회
◇후 원 : 철원 도피안사 신도회
◇연 락 처 : 철원 도피안사 033)455-2471
051)807-5507 / 011-876-5504
◇후원업체 : 부산 국제신문사 내원정사
현대불교신문사 부산불교방송
중정다례원

불사모연중



◇도견스님



◇혜인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범진 스님





◇도피안사 조감도

대한불교 조계종 금와보살 출현도량 철원 도피안사

송전철탑에 파묻힐 용인 화운사

전면에 이미 7기 설치, 뒷산에 3기 더 가설 계획

전자파 피해…비구니선원 존폐 위기처해


◇화운사 주지 혜돈스님 뒤로 송전탑이 날카롭게 서있다.

경기남부의 비구니 선원도량인 용인 화운사 뒷산에 한국전력이 50m 높이의 송전철탑을 설치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운사는 '154KV 신용인-동백 송전선로건설사업' 에 따라 신용인 변전소에서 새로 건설되는 동백변전소까지 설치되는 50m높이의 송전탑이 사찰 뒷산인 멱조산으로 지나면서 수행환경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멱조산에 송전탑 3기가 설치될 경우 화운사는 정면부에 송전탑 7기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인 화운사는 멱조산에 송전탑 3기 마저 설치될 경우 송전탑에 둘러 싸이게 된다.

11월 4일 용인시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공고' 공문을 받은 후에야 이같은 계획을 알게된 화운사는 11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에 '용인시 신용인-동백 송전선로건설사업 승인공고 통보에 대한 반대 협조의 건' 이라는 공문을 접수, 종단차원에서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용인시, 경기도, 제2교구본사 용주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화운사 주지 혜돈스님은 "사찰 뒷산에 송전탑이 설치되면 산림 훼손, 전자파 발생 등의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비구니선원의 존폐 위기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4일 용인 용인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송전탑 반대 결의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종단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 사업주체인 한전과 사업을 승인한 산업자원부 등에 계획철회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토지소유자인 화운사의 의향과 상황을 반영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집행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용인시청 지역경제과 이용선 사무관은 "사업 초기 한전측으로부터 의견개진 요청을 받고 송전선로 건설시 산림훼손에 따른 소음과 주변경관 저해 및 전자파와 수행환경에 지장 등을 우려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며 "화운사만을 놓고 볼때 다른 곳으로 선로변경을 했으면 좋겠지만, 용인시청의 입장에서는 산자부가 승인한 사업이라 화운사의 반대 입장만을 상부에 통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측은 화운사의 민원제기에 따라 12월중에 사업설명회를 열어, 3D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송전철탑이 설치되었을때의 모습을 재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등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찰 주변환경 사진 주택복권에 실린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가 9년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찍은 사찰주변환경 사진들이 2003년 1월 둘째 주부터 1년 동안 매주 주택복권에 실린다.

금정산 범어사, 계룡산 갑사, 북한산 등 사찰생태기행을 해왔던 김재일 대표의 사진들은 사찰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한 몫을 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이나 천성산 등의 사진들은 자연보존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금정·천성산 시민들이 지키자"

고속철 통과반대 대책위 궐기대회

생명의 산 금정산과 천성산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외침이 11월 26일 부산시청 앞을 울렸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들과 시민 등이 참여한 시민 총 궐기대회에서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이종석 부산경실련 고문, 김용환 목사, 율리나 수녀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시민 결의대회는 극단 일터의 천성산과 금정산 파괴를 극화한 상황극 공연을 시작으로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부산시민 결의문' 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은 금정산 수호에 적극 나설 것, 정부는 부산시민이 원치 않는 고속철 금정산 관통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즉각 노선변경을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면까지 가진 가두행진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금정산 천성산 관통에 따른 자연파괴와 도심 통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홍보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내년 '제2도약의 해' 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2돌

창립 2주년을 맞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11월 26일 걸스카우트회관 강당에서 기념 세미나와 법회를 열고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체성과 사업 목표를 재정비하고 제2의 도약을 하겠다' 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한주영 연구과장이 발표한 '불교여성개발원의 현실과 전망' 이란 발표문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조직력 부족, 사무국의 취약, 포교원의 지원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미나 후 경과보고와 함께 △불교여성학 연구자와 불자여성 직업인 교류 △여성불자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성불자의 의식조사 △연 1회 정기 세미나 개최 △회보발행과 홈페이지 구축 △기금마련 작품전시회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03~2004년을 불교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 형성 모색 단계로, 2005~2006년을 여성불자 전문 인력 네트워크 형성 시기로 잡고 실태조사와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여수령 기자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과 신도 200여명이 초고층아파트 건립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법회를 갖고있다. 사진 오른쪽 높이솟은 건물이 46층 아파트이다. 사진=임민수 기자

"초고층 아파트 건립 중단을"

봉은사 스님·신도 촉구

서울 삼성동 봉은사 스님과 신도 200여명은 11월 28일 경내 동쪽에 (주)현대산업개발이 건립중인 46층 높이의 초고층아파트 건립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이어 건설현장을 항의 방문,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거대 장벽이 형성돼 전통사찰의 미관이 훼손됨은 물론 금속판넬과 특수유리 외장재로 빛 반사가 강해 녹지 및 문화재 손상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무해스님 대선출마

세계불교법왕청 무해스님(본명 김길수, 54)은 11월 28일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국태민안호국당 후보로 나선 무해스님은 기호 6번을 배정받았다. 무해스님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승병이 이 국가를 수호했듯이 국난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주요 사찰 겨울수련회 '스타트'

대흥사 29일부터 5박6일간 참선수련

해인사 1차 일반, 2차 수련회동문 대상

동계 휴가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겨울 수련회가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남 대흥사는 수련 경험자를 대상으로 12월 29일부터 5박6일간 겨울 참선수련회를 연다. 수련회는 좌선과 경행, 예불, 108배 등 철저히 수련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흥사는 내년 1월5~12일, 1월15~22일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기출가형식의 한문학당도 연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1차(12월 18~21일)는 일반인 대상이며, 2차(12월 25~28일)는 여름수련회 경험이 있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각 100명씩 3박4일간 참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고흥 거금도 섬에 위치한 송광암은 12월29일~1월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바다의 정취를 즐기면서 수행하도록 했다. 수련내용은 부처님오신법, 관음기도, 108참회, 활구 참선 화두법, 행선(적대봉 등산, 금장 해수욕장), 수심결 강의 등이다.

경주 골굴사는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과정도)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무도 화랑수련회를 연다. 또 봉인사는 12월 7일부터 8박9일씩 모두 6차례의 위빠사나 수련회를, 문경 정토수련원은 12월 4~8일 '깨달음의 장', 12월 25~29일 '나눔의 장' 수련회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겨울 수련회 여는 곳

사 찰	기 간	연락처
해인사	12/18~21, 12/25~28	(055)932-7430
백양사	12/25~29, 1/22~26	(061)392-0434
대흥사	12/29~1/3, 1/5~12(초등), 1/15~22(초등)	(061)534-5502
송광암	12/29~1/1, 1/9~1/12, 1/16~1/19	(061)843-8488
봉인사	12/7~15, 12/21~29, 1/4~12, 1/18~26	(031)575-5585
미황사	1/4~11(초등), 1/15~22(중등)	(061)533-3521
동화사	12/20~22	(053)982-0101
보리수선원	12/2~13, 1/6~17	(02)517-2841
호두마을	12/15~21, 12/27~29	(041)567-2841
동사섭법회	12/23~28	(063)351-5125
골굴사	12/1~2/28	(054)745-0246

'북한산관통로' 대선공약 명문화 요청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한나라당 방문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11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부영 의원, 박계동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교환경연대 생태조사연구실장 법현스님 등 연석회의측 7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법현 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는 불교계 뿐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원은 "북한산 문제는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도로개설을 반대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11월 28일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과 '미국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친구들' 등 국제환경단체에 발송했다. 이 서한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관통도로의 문제점, 도로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적 문제점 등이 담겨있다.

남동우 기자

경의선복원 군장병 찾아 일선스님, 위문품 전달

평화통일사 회주 일선스님이 11월 27일 경의선 철도복원공사 현장을 방문, 육군 제1건설단 군장병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스님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투입되는 장병들을 만나 사탕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파주=임민수 기자



동산불교 학술 연구소 및 동산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권선문

본 동산반야회는 1982년부터 무진장큰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20년 동안 신행해 왔습니다. 큰스님은 한국불교 근대사에 있어 대 포교사의 업적을 남겼기에 동산창립 제 20주년을 맞아 동산불교 학술연구소와 동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큰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고 또한 후학인을 양성하여, 앞날에 한국불교포교를 튼튼히 하고자 하옵니다.
불교를 아끼는 여러분!
동산학술연구소와 장학재단설립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미래 불교포교변화의 장을 열겠습니다.
후원금액은 후원자의 뜻을 존중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하겠습니다.

▶동산불교학술연구소:근본불교연구 및 포교방법연구 분야
▶동산장학재단:불교학분야 연구자

후원계좌
■국민은행:016-01-0226-236 동산반야회
■농 협:053-01-192203 김재일
■우리은행:119-05-121292 동산반야회
■우 체 국:010041-02-066442 김재일

▶후원회사무국: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한국불교 인권법당 주지 박진관

허허! 내 손주들을 먹이고 있소이다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안심하고 먹이십시오"

수신천사토종오가피는
인공감미료나 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천연 원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손주들을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만들었고,
성광수씨의 손주들 부터 먹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룬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던
수신토종오가피!

이제 어린이를 위한 수신천사
토종오가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성광수씨가 재배한
고구마를 드립니다!

지금 '수신천사토종오가피' 나
'수신토종오가피' 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성광수씨가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천연 무공해
고구마를 한상자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 수신토종오가피

지금 전화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55-7555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통일민들레 홀씨'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토회, 민족화합기원 24시간 천일정진 회향

천일기도 2만7천, 철야정진 3,938명 참가
2억8천만원 모금해 북한어린이 돕기지원
"1초도 쉬지않은 원력 남북통일로 이어지길"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간 것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에 역사 앞에서 참회하기 위해 1000일 기도가 시작됐다. 1분1초도 쉬지않고 이어진 1000일 기도는 초등학생, 주부, 교사, 목사 등 각계각층에서 하루평균 27명, 총 27,000명이 참가했다.



◇정토회는 천일정진 회향일 전날부터 26일까지 전국 법당에서 회향기념 3000배 기도를 실시했다.



◇정토회는 천일정진 회향식을 암두고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순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회원들이 대구백화점 앞에서 108배 참회정진하는 모습.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분단의 정신적 장애요소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뛰어 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에게 쌓여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녹이고, 죽음에 직면해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의 가슴에 쌓인 감정 역시 녹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1000일 정진 회향식 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말.

11월 24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 정토행자들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회향식' 1부 행사인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143회 연속 대화마당' 회향기념 대화마당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정토회 24시간 1000일 정진은 2000년 1월 1일 백두산에 올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의 그릇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을 세우고, 같은 해 3월 1일 입재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24시간 기도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정진하는 통일염원 철야정진기도,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식을 보내기 위한 통일돼지 저금통 키우기, 북한 어린이를 돕는 거리모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금요일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연속대화마당.

이러한 사업들은 분단의 세월, 수백만의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간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를 역사 앞에서 깊이 참회하기 위해서였다. 스스로가 깨치고 뉘우쳐서 다가올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주체자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다.

1000일 기도는 초등학생, 주부, 교사, 목사님 등 하루평균 27명, 총 27,000여명, 통일염원 철야정진 기도는 총 3,938명이 참가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작해 초, 중, 고 학생층으로 퍼져나간 통일돼지 저금통과 유애경 마산 정토회 회원이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거리모금 등 북한동포돕기 모금 총액 281,204,113원은 함경북도 청진고아원에 지원됐다. 제1기 '통일미래를 이야기한다'부터 제13기 '통일미래와 인류문명의 미래'까지 총 143회 연속 통일대화마당은 박노해 시인, 리영희 교수, 백기완 선생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봉천동에서 서초동 법당까지 매일 택시를 탔던 회원, 통일돼지 키우는 일을 하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3번 갈아타면서 매일 법당에 나온 회원.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회향기념 3천배 정진에 참여한 회원. 이 모든 '통일민들레'들의 정성이 모여 1000일 회향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1000일은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동참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원력은 기도 동참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북한 모두가 반목과 대립에서 화해와 용서로 변화하기 위한 쉼없는 정진이었다.

24일 열린 회향 기념행사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흐름 그 출발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이윤구 인제대 총장, 법륜 스님 등이 참여한 회향기념 대화마당으로 시작됐다. 2부 회향정진에 이어 3부 회향기념식은 이정희 무용단이 'DMZ에서 춤추다'로 시작을 열었다. 남북 분단의 현실과 이를 뛰어넘으려는 격렬한 몸짓이 회향식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로 끝을 맺자,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돌이켜보면 1000일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가 이웃과 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었지만, 1000일을 쉬지 않고 이어왔던 우리들의 원력이 남북한의 동포들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행사는 1000일간의 정진과 활동을 소개하는 '통일민들레는 이렇게 꽃피웠습니다' 영상물 상영에 이어 이윤구 총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의 축사, 아름다운 통일민들레 포상으로 이어졌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직을 하며 매일 오후 8~9시, 오전 2~5시, 두 차례 기도정진을 했던 권윤정 씨, 어머니인 한미영 씨 외 아들인 황대호, 영태 등 가족이 기도정진에 동참한 대호네 가족 등이 각각 통일민들레상, 아름다운 도반상을 수상했다.

마무리 행사인 4부 가수 강산에 씨의 공연에서는 1000일을 정진해 온 정토행자들의 한바탕 대동놀이가 펼쳐졌다.

기름진 땅이나 척박한 땅,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민들레. 파란 하늘에 홀씨로 날아올라 전국에, 온 한반도에, 전 인류에 퍼져나간 통일민들레. 이번 천일정진 회향을 계기로 한 알의 홀씨에서 수천 수만의 민들레로 피어날 통일민들레 홀씨들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얼어붙은 가슴 가슴마다 희망의 꽃을 피워내길 모든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글=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photo@buddhapia.com



◇1천일 정진기간동안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연속대화마당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금요일에 진행됐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1월15일 '하나된 한반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통일돼지'에 모아진 정성은 모두 북한어린이 돕기에 쓰여졌다. 통일돼지에 들어있는 동전을 모으고 있는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과 어린이.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점자도서 장애인단체 기증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1월 28일 'TV 동화 행복한 세상' 등 10여종의 점자도서 200권을 발간해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증했다.

일주문



12월 정기교양강좌 개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5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 제2강의실에서 도영스님을 초청 12월 정기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성우스님 초청 무료특강

혜총 부산 감로불교대학장은 3일, 4일, 11일 오후 2시 감로사 불교대학에서 성우 스님 등을 초청 무료 공개 특강을 연다.



사업·예산안 심의 확정

대운 본원종 총무원장 11월 25일 서울 총무원에서 제 26차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한일 친불가 합동 공연

김재일 동산불교대학장은 11월 20-24일 일본 북해도 양원사 및 삿포로 오오다니대학 음악당 등에서 찬불가 합동 공연을 개최했다.



만다라 봉안 대법회 개최

법공 총지종 통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에서 창종 30주년 기념 만다라 봉안 대법회를 개최한다.



청계사 대웅전 완공

설정 대구 청계사 주지는 11월 28일 대웅전 완공 및 백일기도 입재식을 사부대중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층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제16차 중앙종회 개원

현각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앙종회 의장은 12일 오후 2시 종로 세검정 총무원에서 제16차 정기중앙종회를 개원한다. (02)394-9468



후원인 위한 차·시·음악의 밤

진월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는 6일 저녁 7시 서울 한국의 집에서 후원인을 위한 차·시·음악의 밤을 연다.



11일 영가탑 기공식 개최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11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선망부모 영가천도를 위한 영가탑 기공식을 개최한다.



낙태원혼천도재 입재식

효선 부산 공덕원 주지는 11월 27일 낙태원혼영가천도재를 입재했다. 12월 17일 회향식을 봉행한다.



선암도서관 4일 개원

정야 부산 선암사 주지는 4일 정오 시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는 30 평 규모의 선암도서관을 개원한다.



'우리도 부처님…' 주제 법회

효정 달마회 지도법사는 4일 서울 불광산사 1층 법당에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란 주제로 법회를 연다.

비구니 혜원스님, 제자 결혼식 주례



동국대 교수인 혜원스님(사진)이 비구니스님으로는 드물게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님은 "주례를 서본 경험은 없지만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애제자인 신랑이 현재 불교계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고 신부도 불교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어 젊은 불자부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다"며 주례 승낙 배경을 밝혔다.

혜원스님은 처음 주례요청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도들이 여러 번 주례요청을 해왔으나 거절했었고, 아직까지 수행과 덕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례 승낙은 신랑인 본지 김두식 기자가 여러번 스님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해 이뤄지게 됐다. 결혼식은 12월 8일 오후 1시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열리며 신부는 연꽃어린이집 교사 김기연씨. 남동우 기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싸늘한 단칸방 독거노인 이상순 씨

"종일 점심급식만 기다려요"



◇"어휴, 올 겨울은 어쩌지?" 기름이 없어 멈춰버린 보일러. 이상순 할머니가 계량기 눈금을 살피고 있다.

"올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광명진언을 외우는 이상순(72 · 서울 보문동) 할머니의 입에서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온다. 내복에 조끼를 껴입고, 그 위에 스웨터에 점퍼까지 걸치고 있다.

이 할머니의 방은 그래도 춥다. 불을 때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밖은 영하로 떨어져, 방안이 냉동실이다.

생활비는 국가에서 보조받는 30만원. 그나마 10만원은 방세로, 또 전기세와 물세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아침과 저녁은 굶기 일쑤. 성북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주는 점심만을 하루 종일 기다린다. 그래서 기름을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할 수 없는 처지.

이 할머니는 서른아홉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식모일, 어물장사, 보따리 장사, 노동판 시다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84년부터 10년 동안은 친정동생과 함께 중풍 걸린 어머니의 수발도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보문동의 한옥 한 채. 이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동생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노년을 꿈꾸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동생의 배신. 이 할머니를 남겨둔 채 동생 가족들이 몰래 집을 팔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내가 복이 없기 때문이지. 그게 동생 잘못인가. 지 새끼 살리려니까 그런 거야."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이 할머니의 말 속에는 연민과 서글픔이 서려 있다. 언니를 속였던 동생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올 여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려니 너무 서럽더라구. 남들은 자식들이 병 수발을 해주는데 나는 혼자야. 화장실 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 13년 전 오토바이 사고 때 다친 다리의 병이 도진 것이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며 모아놓은 돈도 다 써 버렸다.

이 할머니의 의지처는 부처님뿐이다. 20년 넘게 보문동 보문사를 다니고 있다. 스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텼던 세월. "더이상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조용히 가야할텐데…." 아픈 다리가 낫는 대로 보문사 부처님을 뵈러 가겠다며 또 진언을 염송한다.

후원계좌 : 조흥은행 319-04-268482(이상순)

연락처: (02)922-4775

강유신 기자

"교리·수행 결부된 승가학 정립"

중앙승가대학원 초대원장 **홍선스님**



"교리와 수행이 결부된 승가학을 정립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6일,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중앙승가대 초대 대학원장 임명장을 받은 홍선스님(포교사회학과 교수)은 승가학 발전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종단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원으로 운영 하겠다는 스님은 "대학원 설립 첫해는 무엇보다 중앙승가대학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승가대 대학원 운영방침으로 수행과 교화의 접목을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한 대중생활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선스님은 1953년 지효스님을 은사로 범어사로 출가하여 65년 경남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70년 일본 경도 화원대 불교학과, 72년 일본 교토(京都) 북교(佛敎)대 대학원 석사, 75년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스님은 77~80년 일본 교토 북교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사 80~91년 미국 시카고 블타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87년 미국 시카고 KAES 대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소중한 인연 이어 가겠어요"

자툴 린포체 티베트 대사 이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울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2년 반 동안 티벳 정부 13개 해외 대표부 중 일본 및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고 7일자로 호주로 발령이 난 자툴 린포체 대사가 인사차 방한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과 관련 자툴 대사는 "내년 4월에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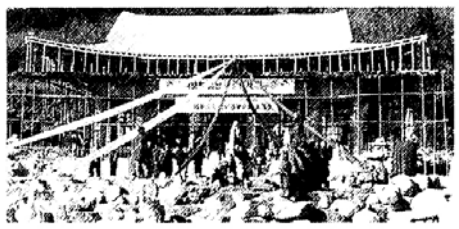
직지사 자광스님 주지진산식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제9대 주지 자광스님의 진산식이 11월 26일 만국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자광스님은 "직지사가 지역 불교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상종 총무원장 학산스님 취임식

대한불교법상종은 11월 22일 여주 대성사에서 제12대 총무원장 학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회의장 도명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산 스님은 "종도교육에 중점을 두어 새롭게 변화하는 법상종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락보전 상량 및 산신대불 점안식

영덕 일도사(주지 일도스님)는 11월 16일 극락보전 상량식 및 높이 12m 산신대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1천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는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주지 일도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으로 상량식 및 대불 점안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으니 더욱 수행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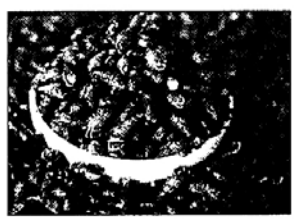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이제부턴 '사이버 포교'다

직장직능단체들 홈페이지 개설 급증

불교기초교리·고승법문·사찰정보 등 망라

회원동향·단체소식·자료 등 정보교환 쉬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2천 6백만을 돌파한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이버 포교에 나서는 직장직능단체들이 늘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를 비롯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직장직능단체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경찰불교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세무사불자회 등 20여 곳에 이른다. 회사 홈페이지나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교환, 포교 등을 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하면 그 수는 40여 곳에 달한다.



◇공무원불자연합회 박현남 간사가 홈페이지내 공지의 글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도 면에서 모범단체로 꼽히는 공무원불자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창립 1주년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팀을 두고 기획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불련의 홈페이지는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는 200여 단체의 소식을 담은 공지사항과 게시판, 불교기초교리, 고승법문, 사찰정보를 총망라돼 공무원불자들의 정보교환 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동호회 코너에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전국경찰불교회는 조직체계와 개별단체 소식, 부처님 말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개개 회원들의 근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정도다.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는 의사소통 공간이면서 소속감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설, 지부별 소식과 회보, 회원 동향, 포교자료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사불자들의 활동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다른 불교단체들과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춘천시청 도반회, 한국세무사불자회, 선재마을의료회 등이 자체 홈페이지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고, 전력인불자연합회, 우리은행 불자회, 수협중앙회 불자회 등은 사내 전산망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포교에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직장직능단체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직장, 가정, 공공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급율이 높은데다가 나이, 세대의 구분을 떠나 누구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불자들에게는 단체 소식과 부처님 말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점도 직장직능단체들의 홈페이지 개설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직장직능단체들의 홈페이지는 직원이나 일반인들도 검색할 수 있어 사이버상에서 불교를 알리는 것은 물론, 조직체계가 허약한 직장직능단체들의 모임소식을 손쉽게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회원수가 많은 연합단체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알림매체다.

그러나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부산영도구청 법우회 등 일부 단체들의 홈페이지는 활용도가 낮아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상인 공불련 홈페이지팀장은 "회원간 자료 공유, 소식 전달기능이 수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단체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포교에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산악인련 서울시지부 설립 추진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의 서울시지부 설립이 본격화된다.

불교산악인연합회 김대원 사무총장은 "2003년 상반기내 연합회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서울시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를 비롯해 서울동부불교산악회, 불이산우법회, 연심회 등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 지회가 서울시지부 설립할 경우 적극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활동이 중단돼 있는 서울북부불교산악회의 활성화와 3~4개 지회의 추가 창립 또는 기존 산악회의 가입도 추진된다. 침체 일로에 있는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서울시지부 설립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고통·원한 다 버리고 극락가소서"

도봉경찰서 불교회, 180여 변사자 영가천도재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회장 고광선)는 11월 23일 도봉산 광륜사에서 올 한 해 도봉구 관내에서 변사(變死)한 회생자 180여명의 천도재를 봉행했다. 광륜사 무상스님을 법주로 열린 이날 천도재에는 유가족과 불교회 회원 50여명이 동참해 변사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도봉서 경승 덕봉스님(성국사 주지)은 "경찰불자들이 뜻을 모아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원혼이 되었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숭고한 의식"이라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회원들의 갸륵한 정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도봉서 불교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변한 제사 한번 지내지 못하는 변사자 유가족들의 사연을 접하고 천도재를 지내주어야겠다고 발심해 회비를 걷어 천도재 비용을 충당했다.

고광선 회장은 "유가족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기 위해 연 천도재 였는데, 그들의 아픔까지 감싸지 못해 부끄럽다"며 "이번 천도재를 계기로 매년 관내 변사자를 위한 천도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사·송광사 순례 경찰청불교회 40여 회원



경찰청 불교회(회장 박재진)는 11월 17일 김제 금산사, 완주 송광사를 순례했다(사진). 경승실장 도영스님이 동행한 이날 순례에서 40여 회원들은 모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청 전투경찰 경비대 소속 모범전경 7명이 동참했다.

우리불자회는요

건설교통부 불자회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불자회원들.

건설교통부 불자회는 송도근 회장을 비롯해 독실한 불자들이 동호회 성격의 모임을 가지면서 결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보다 먼저 창립한 과천청사내 농림부 불자회와 보건복지부 보련회, 경기도청 불자회 등과의 교류도 갖고 있었지요. 창립은 송도근 회장, 이형 교무부장 등 결성에 뜻을 두었던 10여명의 회원들이 기도정진에 돌입, 2000년 12월 28일 이뤄냈지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립법회를 생략한 채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 점은 회원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들은 월 2회 법회를 통해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을 배우고 대덕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불교에 대해 한층 친숙해졌습니다. 우리 불자회의 정기법회 장소인 현개사를 찾아가는 길은 참으로 좋습니다. 직장과 도시생활에 자신이 얼마나 찌들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신선한 공기와 자연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지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절의 언덕을 오르며 부처님 법을 배우러 가는 회원들의 열성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창립 2년째인 우리 불자회는 요즘에는 송도근 회장의 지도하에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계법회, 선지식 순례 등을 열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신행활동에 도움이 됐는지, 회원들은 법회가 있는 날이면 먼저 나와 108배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108배를 하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불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회원들도 늘고 있지요. 지난해 양로원에 쌀을 보시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이후로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회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자회는 과천청사내 다른 부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의 연합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과천청사내 부처의 불자회 창립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도 공무원불자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12월에는 산하 국토연구원 불교회와 합동 수계법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역사가 짧다보니,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교통부 전체 직원이 8백여명인데 회원은 1/10 수준에도 못미친 63명에 불과합니다. 불자라고 밝히는 불자들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불자회 활동이 그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건설교통부 불자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신념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홍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과천청사 다른 부처 불자회 창립 지원

공무원불자련과의 연합활동 적극 동참

우리 모임에선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송년법회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교회(회장 최비석)는 17일 정비창내 강당에서 송년법회를 연다. 이번 법회에는 가족들은 물론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와 가야차량사무소 법륜회원들도 초청해 부산철도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한국은행불교회 창립 17주년

한국은행 불교회(회장 윤주화)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13일 정오 본관 시청각실에서 기념법회를 연다. 조계종 종정예경실장 원혈스님을 초청하는 이날 법회에는 회원은 물론 금융단불교연합회 소속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단체장 동정



수덕사 성지순례·겨울산행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8일 예산 덕숭산, 수덕사, 견성암을 찾아 성지순례 및 겨울산행을 떠난다.



백혈병 등 난치병자녀 성금

박재순 전남도청 불자회장은 11월 26일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청공무원 자녀 3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지장보살·신중탱화 점안

서병하 서울마포경찰서 불교회장은 11월 26일 마포서 법당에서 지장보살 및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열었다.



철원 도피안사 순례법회

오상열 서울중랑경찰서 불교회장은 11월 17일 40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철원 도피안사에서 순례법회를 열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 각종단승려·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국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 분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합격
2002. 11. 존입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률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 376-1321,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종명공고중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종립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영문) ◇ 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025-6798167 ·팩스 : 025-6798168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신청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 업 연 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목어

'크리스마스 씰'



윤제학
취재2부장

'크리스마스 씰'.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비록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긴 하나 우리네 '십시일반'의 전통과 맥이 통한다.

크리스마스 씰은 산업혁명 이후 전 유럽에 결핵이 만연했을 때,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장이었던 아니날 홀벨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연말 우편물에 동전 한 닢 짜리 씰을 붙이면 결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발상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32년 12월에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성금 운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53년에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파는 방식. 아직도 학교를 중심으로 강매에 가까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이런저런 이유의 모금이 많은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인색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우표를 붙이는 편지를 거의 써 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는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문제는 '씰'의 판매 목적이 지극히 선한 데 있고, 그 액수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판단의 중심이 흔들리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의 '일리'를 다 고려해 볼 때, 요즘 같은 시대에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결핵환자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성금을 모으는 방식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두레와 품앗이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금 자체를 혐오하거나 자발성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본지 논설위원

참회하는 자의 생명도 소중

사형제도가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부합할 수 있는가.

1994년 10월 10일의 강주영양(9세) 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중 3명에게 95년 2월 24일 오전에 부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원○○(24세), 공범 옥○○(27세), 남○○(19세 · D여전 비서과) 피고인 등 3명은 살인누명을 벗었고 죽은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이자 앞의 3명과 함께 범행을 했다고 최후 진술 때까지 주장했던 이○○(19, 여)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무기형)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37일만에 제 1심이 모두 끝났다.

결국 검 · 경 실적위주의 짜맞추기식 수사였음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 ·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흉악범으로 몰아 공소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형사법이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반문하게 만든다.

미국에서도 1976년 사형제도가 부활된 이후 800여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중 102명이 무고한 시민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사형수의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으며 일부는 정신질환자 였다는데 우려와 불안이 교차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105개국가에서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국내에서는 사형수가 서울 구치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교도소에 60여명이 분산 수감되어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인권정부'에 들어와서 단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번 대선 이후 김영삼 정권말기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던 점에 비춰 올 대선 이후에도 대거 사형이 집행될 우려가 크다.

지난 10월30일 국회의원 154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화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날 제출된 특별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이 흉악범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복역 후 15년까지는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하는 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인간이 인간이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세이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해 아무 효과가 없다.

살인범죄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 사회가 범죄를 모방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박탈 할 권리가 없으며, 사형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사형제도란 범죄의 원인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풀어가려는 정치적 해결책 이상의 의미는 없다.

11월 30일은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정한 '사형제도 반대의 날'이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여성개발원이 11월 26일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열었다. '행동하는 여성, 실천하는 불교'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 혜숙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이윤수(KBS 방송작가) 씨가 여성불자의 정체성과 불교여성운동의 흐름 그리고 여성불자와 불교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다.

여성불자의 정체성과 역할



이혜숙
(동대 사회복지학과겸임교수)



이윤수
(KBS 방송작가)

불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불자들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불교수행자로서의 목표와 자신의 일상적 경험들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천과 수원의 두 개 사찰에서 총 100명의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즐겨 읽는 경전은 금강경(34%), 화엄경(24%) 천수경 · 반야심경(각 15%) 순이며,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교리로서는 인과응보 참회 보시를 들었다. 또 주요수행 방법은 염불기도 독경사경 참선 봉사 순으로, 여성의 성불을 믿는지에 대해서 매우 믿는다(13%) 믿는 편이다(61%)라고 응답했다.

간단한 조사지만 현실에 대한 어느정도 인식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여성불자의 인식과 행동선택 사이의 인과와 그 양태-여성불자의 정체성-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여성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불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불자들에게 신자가 된다는 것이 자칫 교리적 믿음과 자기현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의 차이조차 느끼지 못하게 호도하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종단이나 불교여성가발원 혹은 개인 연구자들이라도 좀더 심층적인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삼아 종책을 세우거나 불교운동의 방향을 조정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여성불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여성불자들이 잠재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식 · 행동선택 파악위한 조사 시급

근현대불교사에서 여성불교 운동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불교여성 단체만의 색깔로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불교 여성 단체의 조직화 문제는 한결같은 과제다. 비조직화가 활동의 부진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근자 숫자가 많다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안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오늘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건재한 모습으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갖고 펼쳐온 작업에 기인한다. 시대 상황에 맞게 이슈를 찾아내 문제제기 하고 대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순발력이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가령 북한 산도로 관통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 어떤 불교여성 단체가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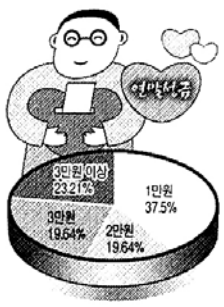
이제 불교계의 제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고양시키는 활약을 기대한다. 아울러 교단내의 완고한 남녀차별 문제에 적극 나서고 비구니 스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추동해내는 역할이 절실하다.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여성 해방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가를 역설하는 일보다 단체 성격에 걸맞는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일, 여성불교 회관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하나라도 꾸준히 지속해나가고 사회 속에서 불교적 실천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불교 여성단체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과제다.

단체색깔 맞는 적극적 역할 모색을

불자의 생각

이웃돕기 성금



불자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비교적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1명이 참여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불자의 88.5%(54명)가 성금내기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얼마정도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37.5%(21명)가 1만원 선을 내고 싶다고 했으며 2만원과 3만원에는 각각 19.64%인 11명씩 클릭했다. 3만원 이상을 내겠다는 마음을 보인 응답자도 13명이나 됐다.

"불우이웃돕기 동참" 88.5%

임연태기자

이렇게 들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남 경멸은 자기 상(傷)하게 하는 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베트남 판 한국어 교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 우리들의 얼굴을 붉히게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갖고 다니는 이 교재는 2년 전 베트남 현지의 인력송출회사 직원이 만든 것이다. 70쪽 남짓한 교재 중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은 한국인 고용주의 폭력에 대처하는 말들을 적은 부분이다. 이 한국어 교재에는 '다시 때리면 다른 회사로 갈거예요' '그만 욕하세요' '당신은 남자인데, 왜 여자를 때려요' 등의 표현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나와 있다. 한글을 모르는 베트남인들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은 로마자로 음을 달아 놓았다.

외국인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가 여럿 있지만 의례적이고 좋은 말만 있다"며 "(이 교재가)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만든 교재라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국내 거주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산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어떤 종족인가 그것을 묻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고 물어라. 〈잡아함 손타리경〉

▩사람이 태어난 곳은 각각 다르나 다만 깨끗한 계를 가지게 하고, 무거운 짐의 번뇌를 떠나 순수하고 한결같이 범행을 닦으면, 그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요, 잘 건너는 이다. 〈잡아함 성문경〉

▩바른 법을 알뜰히 닦아 익히고 착하지 않은 업을 멀리 떠나면 험악한 세상에서 평등하리라. 〈장아함경〉

▩남을 경멸하는 자는 자기를 훼손하는 것이다. 〈화수경〉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佛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치악산 구룡사 천불전 및 심검당 신축준공 대법회



치악산 구룡사는 지금부터 1400여년전 AD666년 신라 문무왕 6년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강원영서 제일의 가람이며 창건이후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 · 사명대사등이 수행한 호국도량입니다.
소납이 주지부임이후 조국통일, 국태민안, 불교중흥을 위하여 천일기도를 봉행중인바 금번 구룡사 중흥불사 일환으로 천불전과 심검당 신축준공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양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치악산 구룡사
■증 명 : 김인허 큰스님(월정사 회주)
김현해 큰스님(월정사 주지)
■연락처 : 033)732-4800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구룡사 주지 (자광) 이원행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
- 법당 : 39평
- 요사 : 7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3억

- 위치 : 경기가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3억

※최고의 산세와 경관을 지녔으며 (예정계획으로 종합병원, 고속도로 및 터미널 10분 이내, 구리시 30분내 거리에 위치함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평생같이 살분

5000만원 내고
남 · 여 부부 환영
남 · 여 불자 환영

0502)999-0506
011)308-6542

구 합 니 다

공부하는 비구니스님으로서
부산인근에 아담한 토굴
암자 임대 주실분을 찾습니다

019)588-6448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약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진주 부근
- 대지 : 약 900평, 임야 6,500평
- 법당 : 28평
- 요사채 : 47평
- 가액 : 3억 3천

※ 영산아래 산세가 뛰어남
※ 목조단청 법당

※ 남강댐에서 15km, 국도에서 300m
※ 주변이 산으로 둘러진 백호국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법천사)

- 위치 : 경남 합양 안의면 (답) 3043평 (임야) 310평
- 믁조기와기붕사찰 130㎡
- 철근슬래브지붕주택 49㎡
- 믁조휴게실, 가추 87㎡
- 대법당 170㎡

017)575-2250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 건평 37평 (2001년 신축)
- 대지 : 400평 , 전 300평
- 임야 :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 점감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아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었음
- 가액 : 1억 5천 (분리 가능)

011)434-7209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홍성 소재
- 부지 : 2000평
- 법당 : 35평, 요사 : 50평
- 산신각 : 20평
- 양도가 : 2억
- 산세 좋은 기도 도량

- 위치 : 서울시내 강북 소재
- 대지 : 475평
- 법당 70평
- 요사 : 120평
- 양도가 : 14억(융자가능)
- 역사깊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남산청,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군유지 밤산 약 5정보
- 건물 : 신축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최고명당 비구니스님 선원자리 최적
- 가액 : 2억 7천만원

016)836-132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 (완전평지)
- 대웅전 25평 (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 (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암자안내

- 위치 : 충남소재
- 대지 : 271평 (좌청룡우백호)
- 특징 : 금계포란형, 지장도량
- 비구니스님 또는 법사보살님 답사요망
- 가액 : 8,500만원

011)526-1824

포교당안내

- 위치 : 구리 남양주 (부영APT앞)
- 건평 60평
- 시설물 : 법당 35평, 방2개, 사무실1개, 공양간 1개, 욕실1개, 화장실 2개
- 2층건물의 2층 전체 사용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31)555-4062

역학 수강생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원보옆
청운역학원 02) 723-7449/011) 9638-8229

사찰(토굴)안내

- 위 치 : 경남 사천군 소재
- 토 지 : 약 10,000평
- 법 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 2동 60평, 주지실 : 20평
- 산신각 : 10평(목조, 단청)
- 가 액 : 3억 8천만원
- 특 징 : 산중 참통사찰로 포교와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 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토 지 : 약 600평(종교용지)
- 법 당 : 20평(목조,단청)
- 요사채 : 50평
- 가 액 : 3억 2천만원
- 특 징 : 도심사찰로써 포교지로 좋습니다.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되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화양리 4거리
- 크기 : 23평 방 1, 거실 겸 주방 법당, 욕실
- 시설일체, 몸만 들어가도 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11)251-5287
02)461-609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최고요지 방이동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5만원
- 시설비 : 9,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무교 의식가능

011)9262-7011

포교당안내

- 청주시내 위치좋음 주차장 완비
- 건물 3층 건물중 2층(60평)
- 큰방3, 법당30평 샤워실 주방
- 시설A급 완벽 현재운영중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9)338-000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전철역 교통요지)
- 법당 : 18평
- 보증금 : 800만원 월 80만원, 합 3500만원 절충가능

011)9634-7851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사 찰 (부지) 안 내

- 진주 사천시 사천운동장에서 차로 5분거리 굴법당 포함 약600평 경치좋음 일금 3억 2천만원
- 진주 사천시 2000평 중 종교부지 500평 허가됨 일금 평당 4만원
- 마산시 진동 도로변 절뒤편은 암석으로 조성되어 있음

- 경남 고성 부지 500평 대웅전 (단청 및 목조 완성) 도로변, 아파트 옆 일금 1억 9천만원
- 경주시 갑포읍 75평 건물 2동 스님기도처 및 쉬는 곳으로 안성마춤 일금 4천 만원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통합병원 앞 산자락에 무허가촌 약 120평, 9평 법당 콘테이너 1개 일금 4500만원

※ 위 물건들에 대하여 인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양도 · 양수 전문 011-836-2502 / 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사찰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관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환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 (준농림지) 중
- 논답 27평, 요사채 약 50평 (스라브)
- 주지실 12평, 삼성각 16평 (목조)
- 가 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흔앙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 옥광리
- 실평수 100평 사용평수 100평 합 200평
- 법당 20평반 산신각 3평반, 온탕화
- 요사채 10평 1동 11평 1동 합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비로자나불
- 인수품 약 2천만원 동네 270호
- 교통편 정류장에서 5분거리
- 상수도 지하수 2가지
- 가액 9천 8백만원

011)9405-8186
043)733-8186~7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산속
- 부 지 : 12,000평
- 법 당 : 35평
- 요 사 : 35평
- 가 액 : 12억

- 위 치 : 서울 시내
- 대 지 : 170평
- 법 당 : 50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9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남 부근
- 대지 : 600평
- 요사채 : 110평
- 대웅전 : 25평
- 가액 : 14억

- 위치 : 경북 예천 군청 옆
- 대지 : 100평 ● 요사채 : 15평
- 대웅전 : 13평 ● 산신각 : 10평
- 가액 : 1억 1천

충청도, 경기, 서울 사찰 양도 하실분을 찾습니다.

011)9820-0112, 041)554-0112 천안기와공장 박대리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시설 녹지) 2500평
- 가건물 3동
- 신도가구수 5천세대
- 가액 : 10억

011)597-4453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주공아파트 앞
- 3층 건물중 2층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일체완비(목조 A급임)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150-8633

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경관수려한 강릉내
- 대지 : 250평
- 요사채 : 합 70평
- 가액 : 3억 8천(절충가능)

02)525-894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역에서 10분거리
- 법당 : 40평 산신각 : 10평
- 요사채 : 방 9개, 심야보일러
- 기도처로 명당자리
- 가액 : 전세 3,500만원
- 즉시 불공 가능

011)845-3596

新 지리풍수학 저자직강

풍 강좌 감정 상담 수

www.poongsoo.net

전국 유명 혈지 상담(陽宅, 陰宅)

※강좌 - 수요일 : 주간반 3시 ~ 5시, 야간반 7시 ~ 9시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남 · 여 수강생 모집

1. 교육기간 : 3개월 속성반(약간명)
교육 후 법사증, 포교사증, 자격증 부여함
2. 교육내용 : 1 불교 교리학
2 조석예불, 의식교육등 학장스님 직접 지도함

※ 사찰 포교원에서 숙식하며 실무 교육 지도함
※ 현재 접수 중 (승려기초 교육체)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02)2201-0796 019)9108-0909

사찰안내

- 경기도 하남시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시설 일체
- 몸만들어오면 됨
- 보증금 : 3천만원, 월 60만원 권리금 : 2천만원

011)715-6333

포교원안내

- 3호선 홍제동 전철역 부근
- 평수 : 40평, 3층
- 가액 : 천만원, 월 백만원
- 권리금 : 2천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2)394-6608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지리산 입구
- 건물, 법당 20평
- 산신각 4평, 독천각 2평
- 요사채 2채 약 50평
- 심야전기, 대지 임야 약 2000평
- 차량 무한정 진입가능
- 기도처나 복지시설로 적합
- 70년 묵은 소나무 쌓여있는 도량

011)9372-597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실평수 60평)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6억 5천만원

011)9073-1560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택지역
- 법당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용궁, 신중후불탱화
- 건물 2층 중 1층
- 법당 : 40평, 주방 겸 거실
- 화장실, 공양간, 샤워장, 큰방 1개
- 전세 : 3700만원, 시설비 : 천만원

011)9813-762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4층건물 모두 사용
- 건평 : 250평, 대지 : 157평
- 가액 : 3억9천5백 (융자 3억 포함)

055)385-0065
011)570-3357

포교원안내

- 위치 : 금호동 금호 2가 4층 건물 중 4층
- 평수 : 70평
- 부처님 3분, 탱화 모두 갖춰져 있음
- 큰방1, 작은방1, 옥탑방 2개
- 포교원에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02)2232-1136
011)9992-3308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 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심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515kr@yahoo.co.kr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양정구청 아림마트 밑 최고 번화가 2층 건물 중 2층
- 평수 25평, 옥상, 베란다 사용 방1개, 부엌1개, 법당, 즉시법회 가능
- 보살님, 법사님 환영 집기입체적공 스님건강문제로 내놓음
- 가액 전세 + 권리금 1500만원 원15만원

011)550-442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소재 천하제일의 명당 영호남 기차역 10분거리 고속 IC 20분거리
- 등기이전 830 실제사용 1300
- 법당, 산신, 요사채 8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뒷산과 대로변에 강이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장기도 도량으로 불사중에 있음

011)381-110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수유1동
- 법당 : 4층 건물에 2층 60평
- 심존불, 후불 지장, 산신, 108지장보살 모셔짐
- 방 : 3개, 주방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8)325-8802 반야심
016)697-6663 정진화
02)907-1643
꼭 필요한분만 연락 바랍니다
출가(스님)를 원하는분 연락바람
미국에 가서 사실분(비구니, 사미니)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팝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기도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회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청림 정각회(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법회안내
삼각산 심우정사
초하루 법회 오전 10시
보름 법회 오전 10시
서울 종로 신영동 산4번지
02)391-1421주지 범진 합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이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삼각산 청련사
매월 초하루, 보름 정기 법회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02)379-3935, 6938
주지 윤지명 합장

염불만일회 정토사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02)396-3405

구인구직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연화세계 혜인큰스님
점안식 초청 법회
양력 12월 15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585-5108
011)390-0108

보살님, 처사님
토굴 같이 쓰실 분
혹은 혼자 쓰실분
011)748-7604

행자모집
(지망생 약간명)
011)9705-68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정선 암자
033)378-8793~4
011)378-72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급여 80만원
▷보너스 별도
011)763-1690
054)745-0246

깊은산에서
천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저의 모든 능력을 드립니다.
불교승려이며 역학 및 불교의식에
능하고 38세의비구스님으로
모든 것을 마음만 맞으면
남은 인생 무료로 드립니다.
011)9391-6987

구합니다
기도 정진중인 역학가능.
비구승으로 서울시내 포교당
운영 할 암자나 토굴 임대나
운영을 맡겨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011)659-27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공양주 보살님 구함
(충주)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043)855-7127
011-711-7127

사무 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87-8500
02)475-8600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반월당 보 현 사
053)254-6966

부전스님 모십니다
▷강원 철원
016)880-7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원경사
www.wonkyungsa.com
031)641-6311

출가하여 승려가
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남 · 여) 40세 이하
011-459-3282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경성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2)2234-219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분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숙식제공
041)736-570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룡)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은평구
02)359-73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봉천동
011)9545-26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천안 도인사
041)567-55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거사
041)567-68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
▷아이있으신 분도 가능
02)379-8697
0 11)758-9511

송리산 명상문화센터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명상에
관심있는 분으로
쳐사 1분 보살님 1분을
모십니다
054)535-0378

한 국 스 님 을 찾 습 니 다
· 법명 : 李 倫 國
중국 남경에서 인연을 맺은 외형제 周仁勇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中國 南京 雙塘里 56號 601室
중국남경(025)220-7934 한국연락처)33)332-6022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사찰 운영권 맞겨 주십시오.
011)9859-7425

사찰 종무실 직원 구함 북한산 노적사
남녀 제한없이 40세 미만, 사찰내 숙식가능자
컴퓨터 경리 사무 등이 가능하고, 사찰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
문의 주 간 : 02)353-4924, 011-9734-4924, 353-5016
야 간 : 02)353-4924, 011-9734-4924
노작사에서 행자(스님되실 분 40세 이하)도 모집합니다

알림정보

(이전, 강좌)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갤러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40석) 연중개방
02)738-5586/5568

기적의 부처님! 화악산 대음사 약사여래불!
확실한 소원성취, 스님의 가르침대로
3일만 기도하십시오.
청도군청 뒷산 054)371-2887 · 373-3658

북경관광 및 한방체험 방문단 모집
· 기간 : 6박 7일 금액 149만원 · 세일, 모집하실분 환영 / 수당지급
게이트관광 02)465-2577

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 안내
첫째주 수요일 : 불교교리 및 경전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정토선 염불 정진
셋째주 수요일 : 접수행 강좌 / 청건스님
문의 02)722-1050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사륜중고차 전문
▷전무 : 심상팔
문의 상담 받습니다.
011-272-7643

비구니 학인입니다.
초하루, 지장재일에
기도해 드립니다.
016-9336-2210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영학역 앞

불교용품

낙화 (민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합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승복 및 개량한복 맞춤 판매
가사, 장삼, 승복, 신도복, 개량한복 일체
각종생활 도자기도 있습니다
아 라 나
부산시 부전동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한국목탄연구소
·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925-0300

쑥담배 BULE (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청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합장
011)703-9130

동성불교사
개금 천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031)575-2532
FAX: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삼환식물성양초
· 특 징 ·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생활장터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青雲易學院
02)723-7449

A+TOUR 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상품 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불교성지순례
▷ 국/내외 여행
▷ 할인항공권/여권/비자
▷ 카나다 유학/어학연수/영어캠프
▷ 투어디자이너 및 영업사원모집
(주)에이플러스여행사 02)735-8844

대구불교회관 10년만에 문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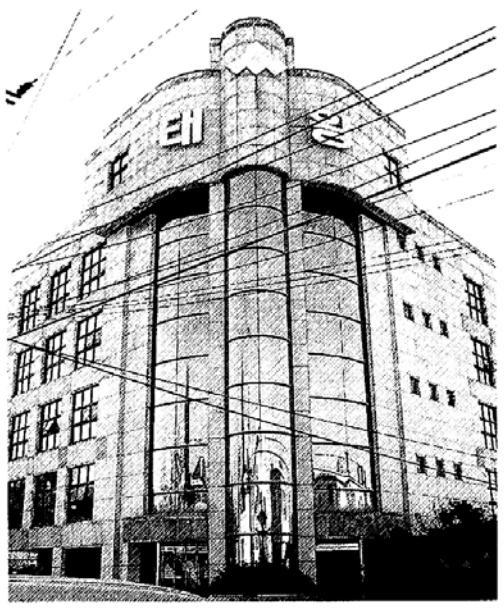
대명동 새 건물 매입, 공사중단부지 매각

건평 120평 5층 규모…이달말 개원예정

신행단체 사무실등 입주, 다양하게 이용

대구지역 불자들의 '멍에'로 작용했던 대구불교회관 건립이 최근 기존 철골구조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시내 중심가에 5층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대구불교회관 건립문제가 10여년 만에 일단락 돼 대구불교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11월 16일 총회를 열고, 대구 남구 대명2동 1800-2번지에 위치한 옛 태왕주택 본사 매입을 결정했다. 12월말 개원할 예정인 새 불교회관은 건평 약 12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대구 사원주지연합회는 최근 대명2동에 위치한 옛 태왕주택 본사건물을 매입했다. 12월말 개원예정인 새 대구불교회관 전경.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새 불교회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상 1~2층은 임대, 3층은 불교신행단체 사무실, 4~5층은 사원주지연합회 사무실 및 대·소 회의실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법당은 내년 봄 건물에 한개 층을 더 올려 여법하게 건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 93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전락한 기존의 신천동 소재 불교회관 건물의 철골 구조물과 대지는 매각키로 했다. 이는 철골에 슨 녹을 깍아내는 샌딩작업과 바닥의 철판교체작업 그리고 주차장 신설 등에 드는 추가비용을 포함,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역 신행단체 한 관계자는 "기존의 불교회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녹슨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민가를 덮칠까봐 조마조마 했던 걱정이 없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새 불교회관이 마련되면 지역포교의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신행단체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한다"는 불교회관 건립과 관련한 원을 피력했다.

한편 대구불교회관 건립은 지난 83년 불교회관건립 추진위원회(회장 백욱기)가 구성된 이후 88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에서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설립, 기금마련 및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면서 부터다. 93년 6월 대구 신천 4동에 대지 3백77평, 연건평 2천3백61평, 지상 8층 지하 2층규모로 불교회관 기공식을 가진바 있다. 하지만 94년 1월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철골철근 구조물만 완성된 약 30%의 공정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장기간의 공사중지로 인해 철골 구조물이 벌겋게 녹이 슬면서 최근에는 주변의 민가 등지에 녹이 날아들고 있어 수차례 민원까지 야기, 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왔다.

대구= 박원구 기자

항일 '법정사 성역화' 무산위기

제주도문화재위, 사지 기념물 지정 보류

유족·시민들 반발…서귀포시 "재신청 계획"

제주도 서귀포시가 추진해온 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사업이 해당 광역지자체 도문화재위원회의 사지 기념물지정 보류로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지난 1월 신청한 옛 법정사 터 기념물 지정에 대해 "일제시대이후 기념물 지정 대상들을 조사한 뒤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뒤 10개월째 가부결정 심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국가보훈처 지원예산 8억과 자체예산 27억여원을 들여 2003년부터 위패봉안소,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유족은 "최근 모슬포에 있는 일제의 항공기 격납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틀간 일본 주재소등을 파괴하고 66명이나 투옥됐던 항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사건의 중심지인 법정사 터를 기념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신청한 해당유적의 가치를 심의하지 않은 문화재위가 다른 유적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귀포시청 한 관계자도 "유족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12월경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 법정사 기념물 지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사 성역화사업은 서귀포시가 1910년대 스님들을 주축으로 한 불교계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항일운동 발원지인 법정사 일대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돼왔다. 서귀포시는 이미 산림청 소유이던 법정사 터 주변임야 33만㎡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확보한바 있다. 옛 법정사는 일제에 의해 철저히 파괴돼 현재 사찰 터만 남아 있다. 지난 8월에는 국가보훈처 지원사업으로 사찰 진입로 1천840m를 폭 9m 도로로 개설한 뒤 포장했다.

김원우 기자

충남 종교시설 10곳중 사찰 2곳, 교회 7곳

충남도내 종교시설 10곳당 교회 수가 7곳에 달하며, 사찰 수는 단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청이 11월 24일 밝힌 '충남도내 종교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내 종교 시설은 총 3,831곳이며, 개신교는 2,652곳(69%), 불교는 859곳(22%), 천주교는 164곳(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전체인구 대비 종교시설도 교회가 한 곳당 723명으로 가장 높고, 사찰은 2,359명, 성당은 1만 1,600명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425곳)이며, 사찰은 공주 147곳, 성당은 당진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종교시설 대비 교회수가 가장 높은곳은 태안으로, 총 139곳 가운데 교회수가 무려 84%에 달하는 118곳으로 집계된 반면, 사찰의 경우는 공주가 높게 나타났다. 김철우기자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속초 전시회가 11월22일 2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깨달음展' 속초전시회 성황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과 속초시(시장 동문성)가 공동주최하고 신흥사(주지 마근스님)가 주관해 지난 11월22일 속초시문화회관에서 개막됐다.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회는 신흥사 주지 마근스님등 지역 스님들과 동문성 속초시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송훈석 국회의원, 최준집 도의회의장,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 등 2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신흥사 합창단의 찬불가 속에서 진행됐다.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은 "교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20세기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전인데다가 전국 순회전시로 진행되는 것도 처음이라는 데 뜻깊다"고 개회인사를 했다. 이어 마근스님의 축사, 총기획자 윤범모(경원대)교수의 간략한 설명회순으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6·25참전 외국인 영가 성불사, 천도재 봉행

11월 28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위령탑의 영가들을 위한 영단에는 밥과 차대신 빵과 커피, 파인애플 등 이색 제물들이 차려졌다.

6.25 전쟁에 참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한 영국, 미국을 세계 16개국, 2,300여구의 국제 영가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국제영가천도대재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물과 삼보사, 법성사 스님들의 영산재로 엄숙하게 시작됐다.

성불사(주지 도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제1부 국제영가천도대재에 이어 자비실천합창단의 육법공양이 이어졌다. 또 제 2부 행사에서는 정각스님을 증명법주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6·25전쟁에 참전해 유명을 달리한 2300여 외국인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국제영가 천도재가 11월28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열렸다.

"전북지역 열반사상의 중심지"

'백제불교=미륵사상' 관점 수정돼야

'경복사지' 학술회의서

7세기 백제불교는 미륵신앙뿐 아니라 열반사상이 크게 유행했으며 전북지역은 열반종과 열반사상의 '중심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소장 임명진)가 '보덕화상과 경복사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주제로 11월 22일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김방룡교수(전남대)씨는 "보덕이 고구려를 떠나 완주에 경복사를 세우고 열반종을 개창한 것은 이미 백제지역에 열반사상이 유행하고 있었거나 그것을 수용할 만한 토대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북지역에 형성된 백제불교를 미륵사상으로만 보던 기존 관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그 동안의 발굴조사와 각종 기록을 볼 때 보덕의 제자들이 세운 8개의 열반종 사찰은 모두 전북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밝히고 "보덕의 열반종은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부산·대구 자원봉사모임 활발

조직재정비·개별봉사자 흡수·통합

부산과 대구에 자원봉사자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산하 자원봉사단(단장 강경준, 등해중학교 교장)이 11월 25일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9교구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이 창립 2년여 만에 11월 22일 전체모임을 갖고 신성자(49. 불명 마니주) 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 본격 활동에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 자원봉사단은 자체 자원봉사자 50여명과 현재 부산시립의료원, 동의의료원, 성우원, 보현행원 등 자원봉사자 110명등 총 16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1월 28일 부산시립의료원 행려 병동에 옷 100벌을 전달했다. 강경준 단장, 장세종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10개팀으로 나눠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불자 자원봉사자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부산불교신도회 자원봉사단의 조직재정비와 재정적 지원은 불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자원 봉사를 통한 포교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1월 22일 대구 보현사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9교구 봉황자원봉사단에는 100여개의 동화사 말사 및 자비의 집, 자비의 전화, 맑고향기롭게 대구본부 등 부설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위사찰 봉사단의 조직을 활성화해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또 12월 11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9교구 자원봉사자대회 및 사회복지법인 동화사 설립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키로 했다.

천미희·박원구 기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이 실시한 양파 실험에서 사랑을 준 식물이 잘 자랐다.

"사랑받은 식물 잘자라요"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양파실험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지원장 청봉스님) 어린이법회 이소희(20, 충북대 경영학부 1년) 지도교사는 지난 9월 한 달간의 양파실험을 통해 사랑과 칭찬, 희망, 긍정, 용기 등을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양파가 무관심으로 대한 양파에 비해 무려 63cm 정도 더 자랐다고 밝혔다.

이소희씨는 "말을 못하는 식물과도 한마음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했다"면서 "이 실험을 통해 '일체유심조'와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교리를 확인해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043)259-5599

김재경 기자

소년소녀가장 103명에 충효사·법화선원 장학금

11월 27일 부산의 한 전통 찻집에서 경북 영천 충효사(주지 해공)는 부산의 연제구청, 기장군청, 사하구청을 비롯 10개 구청에 거주하는 1백명 소년소녀가장에게 전해달라며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11월 28일 구청별로 권창길, 윤혜영, 이상근 등 100백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됐다.

또 지리산 법화선원 부산법당(주지 법공)도 11월 22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각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스님 '바라춤 포교' 뒷바라지

인천 구양사 박정임·김숙자·박화자 보살

"절에 갔을 때 스님이 안계시면 섭섭하죠. 하지만 불교무용과 포교를 위해 힘쓰는 스님이 이제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라춤과 나비춤 보유자인 구양사 즈지 능화 스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씩은 강의와 공연으로 절을 비우게 된다.

이렇듯 스님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신도회장 박정임(길상화, 53), 부회장 김숙자(길상행, 55), 국제문화교류회장 박화자(묘각성, 70) 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여 절에 오는 다른 신도들이 스님이 안 계신 것을 서운해 할까봐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고, 절의 살림을 꾸리는 것부터 절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돌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찰의 일뿐만 아니라 바라춤 후원회를 만들어 공연이 있을 때면 옷이나 무용 도구 등을 챙기기도 하고 조금씩이나마 후원 회비를 모으기도 한다.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도 부처님에 대한 일심의 기도가 깃들여 있는 불교무용의 가르침처럼,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고 널리 펴겠다"는 이들의 신심이 오늘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구양사의 원동력이다.

올해 초파일부터 신도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박정임 회장은 '구양사 5년차'.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데 회장이란 자리를 맡아 부끄럽다"는 박 회장은 "회장으로서 신도회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공부의 과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박 회장은 올 한해 신도들이 가족처럼 지내도록 하는데 더욱 힘쓸 생각이다. "신도들이 가족처럼 의지하고 화합할 수 있으면 절에 오는 일이 즐거워지고, 신심도 깊어지잖아요."



◇구양사 박정임 신도회장(사진 중앙)과 김숙자 부회장(왼쪽), 박화자 국제문화교류회장(오른쪽)이 법당을 청소하고 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신도들 가족처럼 의지·화합에 주력"

부산에서 나고 자란 김숙자 부회장은 1981년 인천에 자리 잡았다. 낯설고 물설은 인천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싶었던 김 부회장은, 86년 자신의 집 근처에 법당을 연 능화 스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나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법당 앞에서 돌아서기를 두 번. 결국 세 번 만에 용기를 냈고, 이때부터 16년 동안 인연이 이어지게 됐다.

박화자 보살은 '구양사의 정신적 지주'다. "나이가 많다고, 직책을 맡고 있다고 남에게 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박화자 보살은 벌써부터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요일 마다 정기 법회를 열고 법회가 끝나면 교리수업과 능화 스님에게 직접 배우는 작법무 강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일요법회를 준비하느라 부산한 요즘이지만 세 명 보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항상 공부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구양사 신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인천= 여수령기자

추천의 말

능화스님 구양사 주지



구양사는 앞으로 불교교양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등 '불교문화의 거점사찰'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는 박정임, 김숙자, 박화자 보살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일과 신도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나가는 세 분 보살님들은 구양사의 큰 버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분 보살님처럼 불자들이 서로 이끌어 주면서 부처님 정법을 실천해 갔으면 합니다.

세계최고 골프화 메이커 三德通商(株)

성불화 룸비니 신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편안한 신발! 새해 선물로 스님과 불자님께 최고 !

스님! 승복과 같이 신발도 통일하시면 더욱 품위가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



성불화 룸비니
남 · 여 공용225mm~275mm

개발비 10억!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으로 개발

성불화 룸비니는 세계 정상의 골프화를 만든 축적된 노하우로 사찰 지형과 한국인 체형에 맞게 개발 됐으며 최고급 골프화에만 적용하는 최첨단 신소재와 천연방수 가죽 뉴벅을 사용 신발에 대한 발의 적응력을 높이고 초경량 골프 그립을 밑창에 부착해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게 했으며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다. 또한 외부의 물을 철저히 차단하고 발의 습기 또는 땀을 흡수하는 F-T를 개발하여 부착했으며 추운 겨울에는 외부의 냉기를 철저히 차단해 발을 따뜻하게 하는 Skill Keeping을 고안하여 추운 산속에서도 전혀 발이 시렵지 않게 했고 눈, 비 올때에 미끄럼 방지가 완벽하다. 디자인면에서는 승복과 잘 조화되고 품위가 있게 했으며 불자님들은 평상시에도 신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만들어 졌다.
신발 안쪽 바닥에는 신발 바뀜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할 수 있는 란까지 세심하게 제작됐다.
사찰에서 평상시에 사용해도 좋고 스님의 만행 및 산행 또는 포교와 불자님들의 성지 순례와, 등산, 사찰 불공등 장시간 보행하거나 활동하시는 스님과 불자님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성불화다.
브랜드 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이며 어린시절 고향인 중인도 카필라국 수도였던 룸비니로 했다.

년말년시 새해 선물은!
성불화 룸비니로!!

부처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개발

세계적인 골프화 메이커인 三德通商(株)에서 출시한 성불화 룸비니가 스님과 불자님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
직원 600명 거의가 불자인 삼덕통상주식회사(사장 문창섭)은 스님을 볼때마다 승복은 통일되었는데 신발을 보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신발을 제조하는 불자로서 사업성 보다는 부처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편안하며 과학적이고 인체 공학적인 최고급 성불화 룸비니를 출시하게 됐다.

신어본 스님과 불자님들, 감탄과 찬사

스님들이 신발을 살려면 큰 고민을 했으나 이제는 룸비니 출시로 고민거리가 사라졌다. 불자들도 사찰 불공시, 성지순례시, 경건한 마음으로 성불화를 신고 갈 수 있어 기쁘다고 한다.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다니고 있는 사찰 스님께 추운 겨울 따뜻하게 성불화를 보시하는 것은 불자로서 최고의 공덕을 쌓는것이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선물과 생신선물, 존경하는 분, 친지, 친구에게 신년 새해 선물로 성불화 룸비니는 길이 길이 남을 최고의 선물이다.
현재 각 종단별로 특별디자인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각종불자회, 합창단, 등 일체감을 주기위해 단체주문을 하고 있다.

성불화 신청전화 (02)723-4533

룸비니는 남 · 여 공용으로 225mm~275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됐으며 단 한컬레도 전화로 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어디든 우체국 소포로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격: 88,000원 ※신용카드 분할도 됩니다 ★농협:053-12-102911 김 남 룡
★ 일요일 공휴일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찰구내 취급점 및 대리점 모집

2000만 불자님들의 성불화인 평생 성불사업에 동참할 불심강한 불자님을 초빙합니다.
사찰 구내매점인 경우 2평정도 진열칸이 있어야 하며 사찰영외 대리점인 경우 5평 이상의 점포소유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본사에서 각종 불교신문에 지속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三德通商株式會社
S D TRADING CO.,LTD
성불화 LUMBINI 사업단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4 인창빌딩503호 (인사동4거리)

스님께 존경의 선물! 부모님께 효도의 선물! 친구에게 자비의 선물!

발이 편해야 건강하고 장수한다.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환자 건강에도 최고!!

세계 최장수 노인 슬로베니아의 아벨로 카슈(127세 수체화 기술자)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좋은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신을 사서 신다보면 편하지 않아도 그냥 참고 신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피로가 쉽게오고 골절과 관절의 균형이 깨지며 관절과 골절의 계속적인 무리를 주어 노후에 관절염 또는 디스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모든 피로는 발에서 부터 온다. 신발이 편하고 좋으면 건강도 좋아지며 장수한다.

성불화 룸비니에 금강저와 연꽃 문향 넣어.

성불화 룸비니에 깊 떠나는 스님과 불자님께 근심 걱정 번뇌를 떨쳐버리고 화를 쫓고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금강의 강한 힘과 지혜를 얻어승리하라는 뜻에서 금강저를 넣어 스님과 불자님께서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신발에 부처님 꽃인 연꽃을 넣어 성불화 룸비니를 신고부터는 연꽃이 피듯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연꽃 문향을 넣었다.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 성취 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



잡귀와 악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치는 금강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원효대사때 부터 전래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2002년 사법고시에 금강염주를 선물 받은 수험생이 거의 다 合格했으며 結婚 13년이 지나도록 子女가 없어 고민 고민하던 부부가 임신이 되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모두 당선되는 금강염주 반입 7개월만에 신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금강염주가 지니는 뜻과 색상은 잡귀와 악귀를쫓고 동서 남북의 복을 부르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고 정신이 안정되며 밝은 지혜를 주는 검정색의 金剛念珠와 죽어서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故人께 마지막 효도 선물로 드리는 녹색의 金剛極樂염주로 옛날부터 전래되는 금강석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공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고 부처님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처음 염주를 구입 하였을때에는 꼭 3배하고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 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금강염주에는 金剛의 강한 힘과 金剛의 지혜와 영험과 품위가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대전광역시 시법남공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산문밖의 禪

"관음도 그릴 때는 내가 관음돼야"

이만익 씨
서양화가



◇무엇을 그린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그리려는 대상과 손끝의 붓, 화판 앞에 앉은 자신이 일체가 될 때 비로소 좋은 그림을 만날 수 있다는 이만익 화백.



◇관음보살을 평범한 시골 아낙네로 의인화한 이만익씨의 '관음도'. 나무 아래 한복차림을 한 관음보살이 왼손에는 감로수가 담긴 정병을 들고 오른손은 턱을 괴고 앉아 있다.

"사찰에도 현대미술을 활용한 불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 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전'에 서양화가 이만익씨(64)가 참여한 이유다. 단구에 헝클어진 머리, 짧지만 짙은 콧수염 등의 외모와 '한국적' '민화적' '신화적' 화풍으로 널리 알려진 이씨는 요즘 새로운 화두와 씨름 중이다. '왜 불교미술 중 국보는 옛 것이어야만 할까'. 이 화백의 이러한 화두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이어진다. "근현대 불교미술품 중 어디 국보가 있습디까?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이제 한두개 정도의 국보급 미술품을 불교계가 실력있는 작가들을 활용해서 창조해 내야 하지 않을까요"

"국보는 왜 옛것이어야만…"

그동안 통도사, 선암사, 송광사 등 불교유물이 많은 절은 어김없이 그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다. 감은사지석탑, 석굴암 본존불, 미륵반가사유상, 백제관음 등 수많은 불상도 화폭에 담아냈다. 하지만 이씨가 처음부터 불교미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서울대 미대 졸업 후 10여년간 고교 미술교사 생활을 하다 73년 돌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2년 후에 돌아온 후부터 서양 첨단미술 흉내가 아니라 거꾸로 조선의 민화를 연상시키는 '한국적' 그림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적' 이라는 명사 속에서 불교를 찾아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의 그림이 단순히 소재만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천란한 원색에 둥글둥글한 선은 보는 이에게 정겨움과 안도감을 준다. 그의 그림엔 오순도순 어깨를 맞대고 돌러앉은 가족이 있고 흰 한복을 입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살아 숨쉰다. 하늘을 나는 학과 소나무까지 그의 윤곽선 굵은 그림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고구려 건국신화, 심청전 춘향전 같은 판소리, 탈춤도 곧잘 등장한다. 말하자면 그의 그림은 원색으로 표현한 한국의 근원 세계다.

이러한 '이만익 스타일' 정착은 80년대 초반 3년여에 걸쳐 문학잡지 '현대문학'에 '그림으로 보는 삼국유사'를 연재했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시기에 단순하고 명쾌한 굵은 선이나 주홍색 색감이 자기 스타일로 자리잡았다. '스타일' 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주제가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것으로 정착된 것도 역시 이때부터다. 오랫동안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건국신화등에서 모티브를 따와 이에 현대적 조형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 자리 잡는다. 설화 이외에 탈춤 판소리 등에 나오는 해학과 가락, 정한의 분위기가 들어 오면서 '이만익 톤(풍)'은 더욱 한국적이 된다.

한국 고유정서 형상화

대표작을 꼽아달라고 하자 2000년에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26번째 개인전 도록을 건넨다. 지난 95년 예술의 전당에서 화업 40년 회고전을 연 이후 5년만에 갖는 국내전으로 회고전 이후의 신작들을 모은 전시회였다. 총 50여점 중 1000호짜리 탈놀이등 500호가 넘는 대작도 8점이나 된다. 한국적 정서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과거 전시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추상성이 강해졌고 선이 좀더 자유로워졌으며 무엇보다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대거 등장했다.

'석굴암본존불'은 황색과 적색의 제한된 색채 에서 우리민족 최고의 미술품을 화판에 이관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백제관음', '삼불', '산사', '행려관음도' 등 이 화백 스스로 모험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불교 소재가 많았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찾다보니 숙명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틈만나면 화구를 꾸려 전국의 산사를 돌아다녔지요. 무엇을 그린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비천도'를 그릴 때면 내 자신이 구름 위를 날아가고, '관음도'를 스케치할 때면 이미 내 자신의 몸이 관음이 된 듯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려고 하는 그림과 손끝의 붓 그리고 화판 앞에 앉은 내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은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불교미술현대화 대작불사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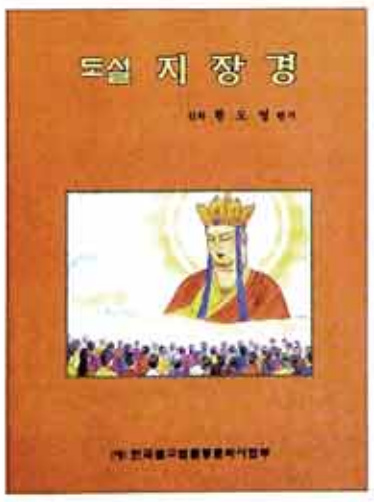
이 화백은 단순히 화폭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특히 몇해 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명성황후'의 포스터에도 한국적 분위기가 물씬한 이 화백의 명성황후가 그려져 있었다. 또 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문화행사에서 무대와 의상 소도구등의 색채 코디네이션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막 쉰줄에 들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때인지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거의 1년반 동안이나 그림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겠느냐' 싶어 일을 맡았다"는데, 이 일을 계기로 또 한번의 변신을 했다. 이후 작품에 생동감이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에서 개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방이나 흉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지요. 전업작가이기 때문에 제자를 키우는 일은 안하고 있지만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들이 이 점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몇 달전 발목을 다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 말고는 아직도 건강에 자신있다는 이 화백은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교미술의 현대화에 한몫 기여할 수 있는 대작불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속내를 밝히며 남해안 스케치 여행을 위해 급히 화구를 꾸려 길을 나선다.

글= 김주일 기자 jeni@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황도명 스님의 "도설 지장경"





◇「도설 지장경」 제6품중에서 ◇「도설 지장경」 제12품중에서

도명 편저/(재)한국불교법륜종문화사업부 발행
신국판 변형/올칼라 174쪽/값18,000원
반포 · 주문처 ☎063)563-1683 · 011)233-2752(HP)
* 법보시 주문시에는 할인해 드립니다.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그림으로 보고 읽는 "지장경"

엄마와 자녀가 함께 읽기에 좋습니다!!

출판기념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귀 불자님과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넘쳐 좋은 날 좋은 삶 되시길
기원하면서 본종 문화사업부에서 발행한
도명스님(본종 총무부장)의 편저
도설 지장경 출판기념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부디 왕림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46년(2002)년 12월 13일(화) 오후 2시
❖장 소 :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02)703-0108)
❖연락처 : 063)563-1683 · 041)734-5377~8

2002년 12월 일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덕산 창법 합장

릴레이 수행일기

신익찬(上)

제일투신 준법감시인



부처님의 법(法)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뜨린 겨자씨가 땅에 꽂아 놓은 바늘에 꽂히는 격이라 하였던가? 나 역시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금전을 허비하며 법을 찾아 해매였던가? 책을 통하여 고승 대덕들의 법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리산으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인천으로, 대구로, 거창으로, 영주로, 영천으로, 예산으로 ,부산으로, 경주로, 양산으로, 제주도로 찾아'가 보기를 수십 번.

그 뿐인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가 수행자들 중에도 혹시 법을 통한 분이 있을까 하여 40년 동안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하셨다는 분, 13일 동안 한숨 자지 않고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드셨다는 분, 40년을 화두선(話頭禪)으로 참선하신 분, 18년을 밥과 한 가지 반찬만으로 하루 1식만 고집하며 염불선(念佛禪)과 화두선(話頭禪)으로 수행하셨다는 분도 만나보았다. 심지어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근원통(耳根圓通)을 통한 즉각 깨닫는 관음법문을 말해 준다는 베트남의 칭하디 무상사라는 분도 만나 보았고, 4년 여를 멸치 국물도 들어가지 않은 채식을 병행하며 수행도 해보았다. 누구든 어디든 인연 있다 생각되면 곡절을 불문하고 찾았다.

그러나 그분들과 인연이 없어서였을까? 그 어느 분의 수행방법도 와 닿지 않았음은! 대승경전의 실체 없는 방편 법문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설화 같은 이야기라 가슴에 와 닿지 않았고, 조사(祖師)들의 법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투성이라 나와는 상관없는 그분들만의 말잔치로 들렸다. 우리 불교는 보살도(菩薩道)를 추구한다 하면서도 보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수행과는 거리가 먼 기복신앙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생사(生死)를 걸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무던히도 법을 찾아 헤매었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에 대한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언가 빠져버린 듯 허전함만이 가슴을 에워싸는 세월이었다. 그러던 내가 작년 11월 미국에서 온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인 김사철 박사님과 연방죽선원의 법주 스님을 만난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기쁨에 비견할 바가 아니었다. 몇 해 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에 대하여 책으로 접한 적은 있었으나 수행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 있던 차에, 이 분들을 통해 비로소 부처님 법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풍문이나 전설이나 소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경전의 내용에도 이끌리지 마라. 믿음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깨닫고, 보고, 파악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김사철 박사님은 인간 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던 중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분은 내가 만났던 그 어느 선지식보다도 붓다의 깨달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함축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법주스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통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해주셨다. (계속)

추상적인 방편 법문에 실망
"스스로 깨닫고, 보고, 판단해야"

참다운 염불은 자력·타력 구족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매주 금요일 저녁 '자비수참' 독송 및 염불정근으로 철야정진을 하고있는 만일염불결사회 향천선원, 만일염불결사회 회원들이 24일 일요법회에서 '우리말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다.

마음청정, 이곳을 정토로 가꾸는 첩경
언제 어디서든 염불통한 일념으로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

이같은 표어로 생활속의 염불수행을 강조해온 만일염불결사회(회주 보광스님 · 동국대 교수)의 '향천선원',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향천선원(원장 유혜림)은 선원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참선보다는 염불 수행 위주의 도심 포교당이다.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가 열리기전, 향천선원의 분위기는 자녀와 함께 온 부부들이 모여앉아 서로의 신행담과 가정사를 묻는 오붓한 가족법회와도 같았다. "염불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법회가 꾸려졌다"는 게 이자광(66 · 여의도동) 신도회장의 말이다.

화기애애한 차담 시간이 끝나고 봉선사 정인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삼귀의례와 우리말 천수경 독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진다. 목탁에 맞춰 108배와 예참문 독송을 함께 하는 108 참회가 끝나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 정근이 1시간 가량 진행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70대 할아버지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칭명(稱名)염불 소리가 퍼져나간다. 〈정토삼부경〉이나 아미타불을 쓰고 그리는 '사경(寫經)염불', 부처님의 공덕이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관상(觀想)염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생각하는 '법신(法身)염불' 등 다양한 염불법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이런 '칭명염불'이다. 칭명염불에 의해 염불행자는 마음이 정화되며, 염불 집중이 깊어짐에 따라 '관불(觀佛)삼매'의 세계에 들어서면 비로소 아미타불이 자성미타(自性彌陀)임을 깨닫게 되며, 정토왕생이라는 목적도 실현 가능해진다.

향천선원 회주 보광 스님은 만일염불결사 청규(淸規)에서 "우리 염불행자들은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실재하심을 믿으며,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과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가르침을 따라 염불 수행함으로써 현세에는 자신의 마음을 청정이 해 가정과 사회, 국가를 정토화하고 내세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로부터 염불 수행을 권한 큰스님들은 법당에서는 물론 일할 때나 쉴 때에도 염불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공양을 할 때 등 언제 어디서라도 염불을 통한 일념에 들어 번뇌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념에 이른 무념으로 염불삼매에 들어, 선과 다름없는 '염불선'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기복이 아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생각하며 염불에 임해야 타력과 자력신앙이 구비된 참다운 염불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 27일 개원한 '향천선원'은 만일염불(2000년 6월 6일~2027년 10월 22일) 결사후 500일마다 전국 각지에 염불원을 개원하겠다는 보광 스님의 원력에 따라 개설된 첫 염불원이다. 일요법회와 함께 매주 금요일 '자비수참' 독송 및 참선으로 철야정진을 할 정도로 열심이다. 현재 만일염불결사회(www.pureland.or.kr)에서는 불자들에게 자신의 수행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염불달력을 나눠주고 있다. 정토사=(031)723-9797, 향천선원=(02)2254-317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만일염불결사회 향천선원장 혜림

가장쉽고 확실한 수행방편
공덕, 사회회향 잊지말아야

"탐내는 마음 올라올 때 나무아미타불! 성내는 마음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어리석은 마음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정진할 때 삼독심이 녹아내립니다."

향천선원 유혜림(47) 원장은 칭명염불에 의해 마음이 정화되고 극락왕생해 성불을 이루게 되는 것이 염불수행의 과정이라며, "염불은 누구나 쉽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나무아미타불' 여섯자만 외우면 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수행방편"이라고 강조한다.

유 원장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겠다는 보리심의 증장과 더불어 주변의 도반들과 함께 불도를 이루겠다는 회향발원이 중요하다"며 염불로 얻은 공덕을 사회로 회향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 원장은 1일 1000번이상 칭명염불, 1일 20분 이상 관상염불을 실천하면서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한' 생활을 할 때 염불은 저절로 생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향천선원'의 염불수행

수행 캘린더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은 12월 4~8일 '깨달음의 장', 12월 25~29일 '나눔의 장' 수련회를 개최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세이상 65세 미만이며, 20명 선착순 모집. (054) 571-6031

■초기불경 '니까야 읽기'=초기불경 '니까야 읽기모임'은 대달 첫 · 셋째 화요일 오후 7시 빠알리성전협회에서 '쌍윳따 니까야'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빠알리 니까야는 부처님의 육성을 담은 사실상 유일한 경전군으로, 경전의 대부분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00년 안에 성립됐다. 부처님에 대한 생동하는 기억이 제자들과 민중들 속에 살아 있을 때였음을 보여주는 이 경전에는 〈법구경〉이나 〈숫타니파아타〉 등도 속해 있다. (02)2631-1318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30여 스님을 초청, 화엄산림 대법회를 연다. 교육원장 무비 스님(12월 6일), 포교원장 도영 스님(7일),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13일),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20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28, 29일) 등 대강백들이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는 화엄경의 화장장엄세계를 펼쳐 보인다. (055)382-7182

■선무도 회랑수련회=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과정도)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무도 화랑수련회를 연다. 수련내용은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초발심자경문, 부모은중경), 전통무용 및 다도 등으로 다양하다. 스님을 비롯한 사범 10명, 무용강사 4명, 다도 강사 2명이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054)745-0246

■석불연구회 미얀마 답사=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2월 27일부터 10일간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의 석불문화 답사법회를 갖는다. 전문가의 해설로 소승불교의 성지를 찾아가는 이번 답사에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02)760-5128

■초심자 참선교실=부산 우곡선원(원장 우곡)은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10시 초심자를 위한 참선교실을 연다. (051)740-6288

■위빠사나 초보자 수행=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 스님, www.boris.or.kr)은 12월 2~13일, 매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초보자 수행을 지도한다. (02) 517-2841

제3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본 협회는『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주제로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불교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새로운 정보 및 기능을 습득하는 강습회에 함께 하시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2547년 12월 7일(土) 오후2시 ~ 8일(日) 오후3시
2. 장 소 :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 02-413-6060
   【교통편 안내】지 하 철 : 2호선 잠실역하차(4번출구) 도보10분
3. 교육내용

강 의	비 고
올 불교학교는 Sing in Game으로...	김 종 헌(본회 연구위원)
새로운 찬불동요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정 유 탁(풍경소리 작곡가)
도구제작 및 놀이체험 - 성물도 놀이	교육연수국
HIPHOP REC DANCE .	이 화 용(JJ DANCE COMPANY 단장)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김 은 미(종이접기 사범)
Thinking Game	이 성 훈(본회 교육연수국장)
전 래 놀 이	이 상 호(놀이 연구가)

4. 참 가 비 : 일반 40,000원 / 회원 30,000원 / 군종 및 도서벽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02-739-4967(본회 사무국) FAX. 02-738-7863
   본회 카페 - http://cafe.daum.net/burec
   ※ 선착순 100명 모집

대한불교조계종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2003학년도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 대학원 모집요강

1. 불교문화학부(모집정원 25명) : 정시 '나'군
   -. 불교학전공 · 불교문화전공 -. 입학원서접수 : 2002년 12월 10일 ~ 13일
2. 대학원 불교학과
   (1)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명	대학원명	개설전공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00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문화학	00명
	종 학 과	진각종학, 밀교학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02년 12월 2일(월) ~ 12월 7일(토) -. 전형일시 : 2002년 12월 21일(토) 13:00
   (3)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3. 불교지도자과정
   (1) 지원자격 : 각 종단의 성직자, 각 신행단체(불교)의 간부 및 대표, 신행이 돈독한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성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3) 면접일시 : 2002년 12월 21일(토) 14:00
4. 장학특전 : 각 종단 성직자, 공무원(군인), 교직원, 불교단체간부, 불교언론인은 각종 장학혜택 (각 과정 공통)
5. 기 타 : 입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학부는 학부사무실(054-760-1510)로, 대학원 · 지도자과정은 평생교육팀(☎054-760-1142,15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古都, 강한 대학 —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780-8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
Tel : 054)760-1515, 1142 Fax : 054)760-1135
http://www.Uiduk.ac.kr



◇부처님께서 부정관(不淨觀)으로 무상과 고를 깨달았듯이, 병든 육신에서 나오는 똥이나, 피, 고름을 보는것도 수행의 일환이다. 매주 행려병자들을 돌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무량 공덕을 쌓고있는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봉사팀.

바라밀현장

부산시립의료원 '목욕봉사팀'

"지친 마음까지 씻어 드릴게요"

행려 병자를 부처님처럼 공경

병자향한 기도, 수행점검 계기

월요일이면, 부산시립의료원의 행려자 병동이 분주해진다.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행려병자들이 목욕실 앞으로 옮겨지고 앞치마를 두른 보살들이 목욕준비로 바쁘게 오간다. 월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행려병자들을 목욕시켜주는 7명의 보살들은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봉사회의 목욕봉사팀. 이들은 월·목요일은 행려자 병동에서 수·금요일은 일반 병동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바가지, 비누, 의자, 비닐 등을 챙기고 목욕물을 받으면 준비 완료. 그 다음부터는 때, 냄새, 분비물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알콜 중독, 정신적 문제가 겹친 환자들이고 보니 거리를 헤매다 다리에 난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도 있을 정도다. 기어나오는 구더기를 치우며 환자를 씻길 때 겪었을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11월25일에도 목욕을 시작하자마자 치매인 70대의 할아버지는 연신 설사를 했다. 그러나 봉사자들의 손놀림이나 표정엔 전혀 변화가 없다.

"똥이나 피, 고름 같은 것은 예사죠. 더럽다는 생각이 있으면 못해요."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 이상의 봉사를 통해 저절로 터득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악취와 거친 병자를 달래어 목욕시키다 주먹으로 맞기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열어놓았고 이제는 "장가가도 될 만큼 깨끗이 씻어 드릴게요." "보고 싶었죠?" 하며 서슴없이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다.

의식이 맑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행려병자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이들의 원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물 온도를 좋아하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사연으로 입원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봉사자들은 행려병자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 자기 수행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두 개의 조로 나눠 목욕실에서 목욕이 진행되는 동안 제일 나이가 많은 심영섭(65) 보살은 목욕탕에조차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병실을 다니며 머리를 감긴다. 발톱도 깎아주고 몸 구석구석을 클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한다. 오랫동안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상주 보살로 봉사를 해왔던 심 보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특별할 것은 없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한 두 번 봉사 이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힘이 들다보니 새로운 인원은 보충되지 않고 3년 전부터 고정된 봉사자들만 있을 정도다.

평균 연령 50대를 훌쩍 넘겨버린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봉사회 목욕봉사팀은 지칠 줄 모르는 신심으로 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자신을 거리에 내 팽개친 사람들의 숱한 사연과 고통이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

부산시립의료원 법당=(051)607-295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목욕봉사팀' 강성봉 보살

봉사상 거절, 행려자 옷 요청키도

불자들 후원등 포교 뒷받침 시급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96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봉사의 외길을 걷고 있는 강성봉 보살은 '봉사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 불교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신심있는 불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집에서 108배로 시작하는 2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강 보살은 7~8년을 한결같이 봉사를 해오면서 45명의 고정 회원을 확보했고 중앙공급실, 수술실, 의무기록실, 안내 등에서 체계적으로 봉사를 펼치고 있다.

얼마전 봉사상 수여도 마다하고 행려자 병동 환자들을 위한 옷을 요청했을 정도인 강 보살은 "보다 많은 불자들의 후원으로 행려 병동과 결핵환자 병동의 부족물품을 충당할 수 있었으면"하는 바람을 비쳤다. 또한 "병원내에서 목사, 수녀님이 있어 적극적인 선교를 펼치는데 법당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봉사와는 별도로 상주 스님이나 법사, 불자들의 후원 등 포교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心 마음비추기

'빨리 견성' 집착은 병

여기 재미있는 예화가 있다.

어느 고행자가 자기 스승의 말만 믿고 벽에 붙어 있는 고행을 하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이렇게 평생을 벽에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스승의 말대로 벽에 붙어 살던 고행자는 어느 날 자신도 이제 늙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는 언제쯤에나 진리를 알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는 신에게 기도를 했다.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이와 같은 고행을 해야 진리를 알 수 있는지 그 답을 달라고 했다.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구도자여, 저 앞의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의 잎사귀가 보이느냐."

고행자는 보인다고 말했다.

앞에 있는 나무는 아주 무성하여 그 잎의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신은 말했다.

"저 나무 잎사귀의 수효만큼의 생애를 지금처럼 고행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때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고행자는 감격하여 신에게 말했다.

"오, 신이시여, 겨우 그렇게만 하면 말입니까?"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벽에 붙어있는 고행을 계속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든지 "빨리빨리" 해 치우려는 성격이다. 외국을 좀 드나든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바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급한 성격을 지닌 국민도 드물다. 뭐든지 "빨리빨리" 마치 조급증 걸린 사람들 같다. 운전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 밥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위장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도 채 기다리지 못해 옆의 버튼들을 있는 대로 눌러댄다.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하기 보다는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빠르고 쉬운 길만을 가려한다.

이와 같은 습성은 수행을 한다는 불교인들에게서조차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도량에 가면 입문한 지 3일 만에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여 몰려가는가 하면 아예 견성하게 하는 기계까지 등장했다고 신문에 광고가 날 정도이다.

금생에 반드시 도를 깨쳐야만 하겠다는 결심도 좋다. 그러나 부지런한 것과 급한 것은 다르다. 부처님은 부지런히 수행하라고 하셨지 급하게 빨리 수행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부처님도 몇 겁의 세월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지 않았는가.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2월-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회향은 실천의 완성

지난 8월, 괄순의 실항민 강태원 씨가 평생 모은 재산 25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가족들도 몰랐다는 강 씨의 선행은 장안의 화제가 됐다. 강 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故 김영한 보살이 98년 법정 스님에게 부지와 요정 대원각을 시주,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청정도량으로 거듭났다. 김 보살은 생전에 누렸던 부를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회향한 일이기도 했다.

아름다운 회향, 삶의 가치 빛내

탐내는 마음없이 공덕 이웃에게

'백일기도 회향' '법종불사 회향' '천일정진 회향' '회향문' 등 '마무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회향이라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쌓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베풀어 자타가 함께 불과를 이루려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진 재화, 법, 은혜, 서원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인 것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에게 회향하는 보살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회향은 사회를 맑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웃과 중생을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 때문에 잘못된 동기와 과정도 회향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연꽃시니어 봉사단 33명의 64~80세 노인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지난 2월 창립한 이후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운동', 장애인·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 보시 큰 자비운동',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푸른하늘 보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직장을 퇴직하고 가정일에서 손을 뗀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이들의 활동에는 그동안의 삶을 원숙하게 회향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숨어있다.

김상인 단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받기만 하다가 베풀 수 있어 환희심이 든다. 봉사단에서의 활동은 평생을 각박하게 살아온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준다"면서 "평생을 나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여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개인적인 수행과 더불어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불자들은 궁극적으로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베풀되 나를 위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보시하면서도 아끼거나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들린다." (증일아함경) 박봉영 기자



◇무의탁 노인들에게 대중공양을 제공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구로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어르신들.

중앙승가대학교 200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다"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정원내40% (대교과출신)	특별전형 정원외 (재외국민등)	비고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72명	48명	2명	122명

※ 특차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2. 12. 2 ~ 12. 13

◇ 접수기간 : 2002. 12.10 ~ 12. 13 (17:00까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 (2003년 졸업예정자포함)

4) 승적증명서1부 - ⊙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강원 대교과졸업(예정)증명서 1부 : 특별전형지원자에 한함

※특별전형 지원자는 강원졸업확인서를 조계종 교육원에서 일괄 조회함

6) 주민등록 등본 1부

7) 사진(대가사 수한 반명함판 3×4㎝) 5매 제출(3매 원서 / 2매 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 2) 전형료 : 60,000

◆ 전형일정

◇ 예비소집(특별 일반전형) : 2003. 1. 21(화) 09 : 00 ~ 09 : 40

◇ 필기(교리)고사 (일반전형) : 2003. 1. 21(화) 10 : 00 ~ 11 : 1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3. 1. 21(화) 12 : 3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 '03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중 '03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 수지자격을 받을 수 없음

편입생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년	전산코드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23	역경학과	
		33	포교사회학과	
		43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사편입)	14	불교학과	
		24	역경학과	
		34	포교사회학과	
		44	사회복지학과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만2년 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납 만2년 이상인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편입생은 특별전형이 없음

◆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031) 980-7713~7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㉝ 법사공덕품 제19

다섯가지 법사

수지·독·송·해설·서사하는 수행자

적극적인 자리이타 실천이 보살도

이 19장은 법화경을 기억하고[受持], 읽어주고[讀], 외어서 들려주고[誦], 해설해주고[解說], 문자화하여 남에게 전해주는[書寫] 수행을 하는 다섯 가지 법사의 공덕을 설한 조각[品]인데, 범본에서는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즉 법사공덕(法師功德)이란 법사가 얻는 공덕이라는 뜻이다. '법사(法師)'란, 〈법화경〉에서는 출가 스님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 모두를 뜻하는 말이다. 재가자라도 좋고 남자이건 여자이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며 남에게 설해 세상에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법사(dharmabhanka)라고 불렀다. 그들은 설법자이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청중에게 경전을 설해 들려주는 사람이었다.

앞의 '제10장 법사품'에서 법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했는가 하면, 〈법화경〉의 한 시구라도 이를 기억하고 읽어주고 외어서 들려주며 해설해주고 문자화하여 전해주는 경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즉 우선 가르침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굳게 기억하며 다음에 더욱 깊이 경전을 읽고 그것을 외워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를 위한 행이라 하겠으나 아무튼 신앙인으로서의 기초를 자기 몸에 굳게 구축하기 위한 행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신앙이 진보하면 자연히 남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샘솟는 다(이것이 진리의 외향성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읽어주고 문자화한 경전이 없는 경우에는 오 워서 들려주고 그리고 경전을 해설해주고 또 문자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행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거기에다 경전에 꽃이나 향 내지 경전을 읽어주고 외워주고 해설해주고 문자화해서 전해주는 사람에게 의복이나 기악(伎樂) 등의 열 가지의 공양을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법사라고 설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수지, 독, 송, 해설, 서사라고 하는 경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래의 대행자(代行者)이며 여래의 어깨 위에 실려진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은 여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여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 '법사공덕품'에서 말하는 법사도 이 경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경전 수행자를 후세에 '5종 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가운데 경전을 읽어주고[讀] 외워주는[誦] 것으로 나누어서 도합 다섯 가지로 하기 때문이다. 범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수지(受持): 경전을 받아들여 믿어 마음 속에 굳게 간직하고 잊지 않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2)독(讀): 경전을 입으로 소리 내어 크게 읽어주는 것을 말하며, (3)송(誦): 경전이 없는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외워서 들려주는 것이고, (4)해설(解說):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해설 설법하는 것을 말하며, (5)서사(書寫): 경전이 없는 경우에는 〈법화경〉을 문자화하거나 또는 경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베껴 쓰거나 남을 시켜 베끼게 하여 남에게 전해주어 후세에 넓히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다섯 가지의 경전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하며 그 법사가 다섯 가지의 수행을 실천함에 의해서 얻는 공덕을 설하려는 것이 이 '법사공덕품'의 내용이다. 이것이 다음에 말하는 6근 청정(六根淸淨)이다.

그런데 종래에는 한자(漢字)의 해석에 급급하여 받들어 간직하고[受持], 읽고[讀], 외우고[誦], 해설하고[解說] 베껴 쓰는 것[書寫]에 대해 수지와 독, 송, 서사는 자기를 위한 것, 즉 자리(自利)라 하고 해설만을 타리(他利)라고 하였다.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상구보리한 연후에 하화중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므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마치 시간적으로 선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법화경〉의 원명이 〈삿다르마(팔리어 삿 담마) 푼다리카 수트라〉인데 '푼다리카'는 연꽃을 말하므로 〈신비한 진리를 연꽃에 비유한 가르침〉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연꽃이라는 말이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맺는다[華果同時]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하화중생을 하면 동시에 상구보리가 된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삿 다르마[法]'인데 이 말은 곧 객관적으로는 진리라는 말이며 이 진리를 부처님께서 주관화한 것이 부처님의 지혜[佛智]이다. 이 부처님이 얻은 지혜의 작용이 자비이며 자비란 바로 이타행을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이타행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법화경〉 실천행을 말하므로, 범본에는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㊱

그대로 두는 정직한 결단

생각·느낌의 흐름 자체를 경험해 보라

오직 여러분 눈 앞에서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니,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삼도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에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는 수고만 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대들이 남에게서 부지런히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3아승지겁이 지나더라도 또다시 생사로 돌아갈 것이니, 일 없이 절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것이 더 좋다.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낄 일이 많다. 아니 대하는 것들 전부가 거리낄 일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일에서 대하는 상대가 모두 나를 압박해 온다. 나와 상대를 구분하여 나의 입장에서 상대를 대하니 자연 그렇게 거리낄 상대가 있게 된다. 아상(我相)이 있으니 인상(人相)과 중생상(衆生相)도 있다.

요컨대 거리낄 일은 모양[相]을 좇아다니며 모양에 구속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스스로 모양을 좇아다니지 않고 모양에서 벗어난다면 거리낄 상대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부란 모양을 좇아다니지 않고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모양을 좇아다니지 않고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면 된다.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게 될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단호하고 정직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름과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므로, 이름과 뜻으로 이해하는 일을 단호하고 정직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참으로 솔직 담백하게 꾸밈없이 모든 알음알이를 포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즉시 바로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엄밀하고 정확하게 찾아보는 것이다. 즉 스치며 지나가는 허망한 이름과 뜻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이다. 단, 이 변함없는 것은 이름과 뜻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이름과 뜻이 아니라, 이름과 뜻이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다양한 물결을 이루며 냇물이 흘러 지나갈 때, 그 흐름 속에서 물을 감지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흔들리는 물결은 곧 물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의식 속에서 온갖 생각과 느낌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온 힘을 기울여,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느낌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변함없이 만들어 주고 유지시켜 주는 흐름 그 자체를 경험해 보라. 흐름은 흘러갈 뿐이다. 언제나 흘러갈 뿐이지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 이름과 뜻은 변화무상한 허깨비일 뿐이고, 이 흐름이야말로 진실로 이름도 모양도 뜻도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변함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유일한 것이다.

다만 흐름이란 이름과 뜻을 가지고 흐름 그 자체를 본다는 착각은 삼가하라. 생각과 느낌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흐름 그 자체로만 있어 보라. 무슨 일이 경험되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정화) http://www.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㉔

장수와 보시

최근 세계적인 팝 스타인 마돈나(43)가 그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팬들에게 내면적 불안과 고민을 술회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의 전부가 아니며 지속되지도 않는다. 때때로 회의를 갖고 나약해질 때가 많다." 그러면서 그녀는 "힘들 때에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베풀기"라면서 우울하거나 수렁에 빠진 기분이 들 때는 "친절을 베풀라!"고 조언했다.

이런 도움을 주는 행위의 효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인 〈심리과학〉 최신호에서,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높다고 보고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도 노후에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지금까지의 통설을 뒤집었다.

한편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 보살이 수행하는 여섯 가지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이 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바라밀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덕목인 보시 바라밀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본래 보시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행위를 뜻하며, 재물로써 베푸는 재시(財施)와 즉 진리(석가세존의 깨달은 바를 가르쳐 주는 법시(法施), 두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무외시(無畏施)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요새 보시란 말은 불공이나 불사(佛事)를 할 때 불교신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며 금전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이라는 좁은 의미로 거의 변질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지금 처한 위치에서 전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만을 통해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하며 신세를 한탄하곤 한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즉 누구나 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방향성의 보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하루의 도움만 받으면 충분한 사람에게는 하루의 양식을 나누어주면 그만이지만 한 평생을 도와야할 사람에게는 능력에 맞게 스스로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다.

남 위해 베푸는 사람이 오래살아

자립적 삶 기반 닦는 것이 중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불교계의 자선단체들은 서양의 자선단체들처럼 기부금 모금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시급한 구호 사업과 병행해 백장(百丈) 선사(禪師)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정신을 본받아,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함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체 멀쩡한 게으른 분들의 경우에는 삶의 참 뜻을 바르게 새기며 스스로 점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욱 애써야할 때라 판단된다.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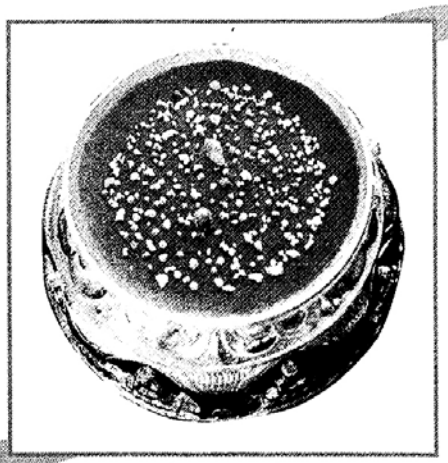
봉 국내 최다 진신사리 친견 축

모시는 말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한번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진솔(眞率)하게 참회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종족, 사상, 이념, 종교, 문화, 환경,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인류가 세계화로, 아니 한 가족이 되어 국경, 여권, VISA가 없이 오대양, 육대주를 마음대로 순유(巡遊) 할수있는 용화세계(龍華世界)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월드컵 경기때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소리치던 붉은 악마로 변한 우리 국민의 그 무서운 잠재력이 다시 분출되어 학연, 혈연, 지연을 초탈(超脫)한 머슴이 뽑히고 용화세계의 발상지가 되고 역사와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임을 보여줄 참다운 진아(眞我)를 찾는데 평생의 결정체인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친견하시고 소원성취(所願成就) 이루시기를 합장하여 비옵니다.

불기 2002년 11월 동명사 사문 합장


사리함


진신사리


사리함

◎ 진신사리 친견 : 불기 2546년 11월 30일 부터~
◎ 동 참 문 의 : 02-442-0962
02-442-9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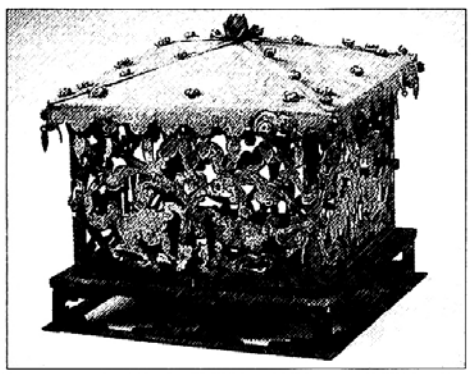
※ 사문(沙門)과 인류(人類)를 위하여 대작 불사(大作佛事)를 함께 하실 신심이 돈독하고 능력이 있으신 회장님을 찾습니다.

동 명 사

서울 강동구 암사 1동 460-15호 상원빌딩 5층

찾아오시는 길
암사역 2번 출구
천호사거리
선사사거리
암사역 1번 출구 (지하철 8호선 종점)
고덕주유소
대원 APT
암사역에서 동명사 700m 도보로 5분거리
동명사 상원빌딩 5층

'불교문화학'이란 새로운 방법론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6월 출범한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사재동)가 11월 30일, 12월 1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한국 사찰의 불교문화학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 한국불교문화학회는 불교서지, 불교민속, 불교음악, 불교문학 등 불교문화와 관련해 그 동안 각개벽파 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연구를 지양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출범한 학회.



◇1966년 불국사 석가탑 해체수리 때 발견된 금동제사리외함(국보 126-1호).

"고찰은 불교문화 원형이자 본류"

불교문화학회 학술대회 불국사 집중조명

연기설화, 산신신앙과 불교 조화의 예
사찰의례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돼야

이번 학술대회에는 문학, 건축, 서지, 공예, 민속, 무용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모여 불국사가 지닌 불교 문화적 특징을 파고들어 갔다. 한국불교문화학회는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봄, 가을에 한 번씩 한국의 고찰을 순례하며 그 절의 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는 "절은 불교문화의 원형이자 본류"라며 "지금도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 조명함으로써 그 절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대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 사찰 불국사. 먼저 '불국사와 목조건축'을 발표한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불국사의 역사를 수리·복원사의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금창기〉의 내용은 신라시대 내용을 제외하면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파괴된 불국사를 재건해 온 역사를 정리해 놓은 데 불과하다"며 "〈고금창기〉가 1740년 저술된 뒤에도 1805년까지의 수리사실을 누군가 부가했듯이 일제침략기의 수리와 조사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1969~1973년의 발굴·복원 사실 등을 추가로 보완 정리해 새로운 〈불국사 사적기〉를 완성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말했다.

'불국사와 불교민속'을 발표한 오출세 교수(동국대)는 석불사(지금의 석굴암) 연기설화를 통해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토착화했는지를 살펴봤다. 오 교수는 "김대성이 꾼 꿈 속에 곰이 나타나 곰을 살생한 대가로 절을 지어라 해서 절을 지었다는 것은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전생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한다"며 "이러한 연기설화는 초기 산신 신앙과 불교가 미찰 없이 조화·수용되는 한 예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교수(청주대)와 강순형 궁중유물전시관장은 각각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사리기를 조명했다. 김성수 교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6년부터 불국사의 창건년도인 751년 사이에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인쇄도서인 만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폈다. 강순형 관장은 "석가탑 사리장치는 의장과 솜씨에서 통일신라 최절정기의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둘째날 '사찰 의례와 불교무용(사찰무용 종류와 사찰학춤의 전승보존)'을 발표한 법현 스님(동국대 교수)은 "불교문화예술의 전승과 불교무용의 보존에 관심을 갖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nny@buddhapia.com

의상 화엄의 현재적 의미는…

의상만해연구원 7일 낙산사서 발표회

해동 화엄의 창시자 의상(625~702) 스님의 입적 1300주년을 맞아 의상만해연구원(원장 설웅)은 7일 오후 2시 낙산사에서 '의상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연구원 연학실장 이도흠 교수(한양대)는 "1300년 전 의상의 화엄 사상을 오늘에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의상사상의 현재적 함의' 주제발표를 겸한 이 교수는 "오늘날의 복잡해진 사회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지극한 철학이라 하더라도 현재적 의미는 없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해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킬링필드 등은 모두 서양 철학의 중심이었던 '동일성의 사유'를 극단화하여 실천해서 빚어진 야만이라고 진단한다. 동일성은 타자와 나를 구분하고 대립시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의 유를 차이의 사유로 전복시킴으로써 현대의 상호텍스트 이론과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형효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의상의 대표적 저서 〈화엄일승법계도〉를 현대 서구철학의 방법론적 틀을 사용해 재해석을 시도한다. 또 김천학(도쿄대 대학원)씨는 의상 화엄이 중국,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토우 아츠시(일본 동양대학 비상근강사)씨는 의상의 화엄 사상을 중도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의상과 의상 이후의 사상적 차이를 밝힐 예정이다.

'보조선을 조선불교 핵심으로 규정'

구산장학회 논문발표회



11월 23일 보조사상연구원(www.bojosasang.org) 주최 구산장학회 제7기 구산논문발표회에서 '다카하시의 조선 불교 연구'를 발표한 조남호(서울대 강사 사진)씨는 '〈이조불교〉를 쓴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1877~1966)를 대표적인 식민사학자로 규정하면서 덮어놓고 그의 주장을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문적 검증을 통해 식민지 학문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카하시의 불교사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다카하시는 한국 사상의 자주적 성격을 과소평가한 식민사학자로 비판받고 있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론은 현재도 우리 학계의 중요한 틀 거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남호씨, 다카하시 불교사 연구방법 분석
"덮어 놓고 배격하기보다 학문적 검증 필요"

대표적인 것이 정치사의 틀에서 한국불교의 성격을 밝히려한 것이다. 다카하시는 불교 및 각 종파의 성쇠를 정치적 맥락에서 찾으려 했고, 고려와 달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조선 불교가 침체되었다고 본 다카하시는 불교 재흥을 위해서는 총독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조선 불교의 정체성이 임제선에 있지 않고 보조선에 있다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 불교계를 선교양종으로 통일시키려고 한 총독부 정책에 발맞추어 선교양종 겸수를 주장한 보조선을 조선 불교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논평을 맡았던 최연식(서울대 강사)씨는 "한국 불교사 연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던 방법론적 틀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됐다"라며 "현실적으로 식민지 청산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10)

19세기 코미디

단순히 부처님 말씀만 전하고 참선만을 강요해서는 더 이상 일반인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지 못한다. 19세기 불교계는 이 점을 깨닫고 매우 현실적인 포교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민간의 신들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들까지 과감하게 끌어들여 불교의 신앙체계로 삼았던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신인 산신, 용왕, 조왕신, 수성노인 등을 불교의 신으로 만들고, 산신각, 독성각, 삼성각 등을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일반인에게 다가갔다. 물론 이전에도 칠성신을 조심스럽게 불교화한 적은 있지만, 이 때만큼 다른 신앙의 신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적은 없었다. 원래 불교의 신들은 화엄경에 기록된 것처럼 39위(位)인데, 19세기에 와서는 무려 104위로 늘어났다. 104위는 인도신, 중국 신, 한국 신을 망라하니, 신들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들 104위의 신을 그린 104위신중도는 조선, 그것도 19세기에만 나타난 독특한 도상인 것이다. 이 불화는 19세기 불교계가 어떤 변신을 꾀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당시 불교계의 넉넉한 포용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민간불교로서 정착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104위신중도에는 단지 신들이 늘어난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1862년에 제작된 해인사 대적광전 신중도를 보면, 전혀 의외의 얼굴 모습에 당황하게 된다. 신들이 마치 코미디의 주인공들처럼 얼굴표정이 극적이고 변화무쌍하다. 적어도 해인사신중도에 표현된 신들은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들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한 분들이다. 그렇다고 이 불화가 결코 예술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불화는 후대의 불모(佛母)들이 신품(神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작품이다. 다양한 표정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상상력도 놀랍거니와 그 많은 상들이 부딪힘이 없이 조화로운 구성을 이루고 있고, 상들의 캐릭터도 매우 개성적이다.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신중도(1862년) 부분. 해학적인 표정은 19세기 불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해인사신중도에 보이는 해학적 표현은 이 불화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현왕도, 지장시왕도, 나한도, 심지어 석가불화 중 제자상 등 주로 신중과 조사상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19세기 코미디'라는 애칭을 붙여본다. 권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해학적인 형상으로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불상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형상으로 민간에게 다가갔는데, 19세기에는 해학적인 형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여 준 것이다.

불화에 나타난 해학성은 16세기 민간불화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7, 18세기에도 부분적이나마 해학적인 표현이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19세기에 와서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불교가 일반인들 사이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불교미술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처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일까?

神位圖 신의 수 39위서 104위로 급증
표정도 변화무쌍…해학적이고 친근감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머시윤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랑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읍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의사) 박동암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숨,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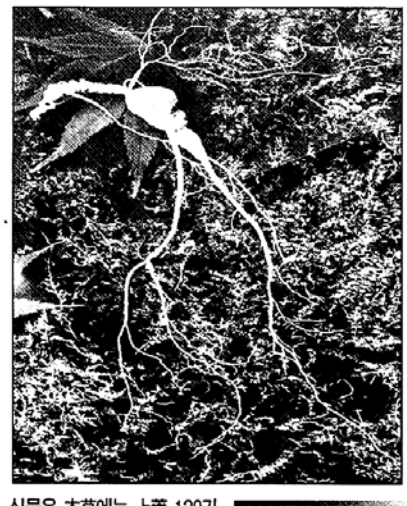
초월케미칼라이프 Co.
C.W.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지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애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립선 염 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잔뇨, 빈뇨, 야뇨, 소변후 불쾌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국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
①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②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③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④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⑤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⑥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⑦ 평소 잠을 자다가(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뿌리를 모르면 화두도 망상"



'감산자전'
감산스님 지음 / 대성스님 옮김
여시아문 / 8천원

"내가 보건대 범과 이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업신여기기는 하면서도 늘 겁을 낸다. 잡아먹힐까 두렵기 때문에 늘 겁을 내는 것이다. 색욕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어찌 범이나 이리만 못하겠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업신여기면서도 즐기고, 다 잡아 먹히고 나서도 즐거워하며, 태평스럽게 그것을 겁낼 줄 모르니 큰 잘못이다. 범이나 이리는 몸뚱이만 잡아먹지만, 색욕은 성품을 잡아 먹는다."(199쪽)

<감산자전>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지는 감산 스님(1546~1623)이 자신의 평생사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다.

감산 스님은 화엄경 법화경 능가경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등 주요한 대승경전과 노자 장자 대학 중용 등 중국 고전들에 대한 탁월한 주석서들을 저술하여, 사상적으로 비교적 침체기에 있던 후기 중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감산 스님은 달마에서 육조로 이어지는 선(禪)의 명맥을 복원한 당대 최고의 선승으로 평가받는다. 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시도 전법과 수행을 놓지 않았던 스님은,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진정한 스승이었다.

이 책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이다. 년 단위로 주요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도처로 행각을 다니며 깨달음을 열어가는 이야기들이 간결하면서도 진솔하게 담겨져 있다.

감산 스님의 일생은 관재를 당하기 전인

연대순으로 기록한 감산스님 자서전

오늘의 수행풍토 비추는 '마음의 거울'

50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6세에 행각에 나선 스님은 남경의 보은사에서 출발하여 북경을 거쳐 오대산에서 수행했다. 그 뒤 산동성의 뇌산에서 오래 교화하다 50세에 광동성의 뇌주로 유배 되었는데, 유배 기간 중에는 광주와 조계에서도 머물렀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는 조계를 비롯한 광동성 일대를 옮겨 다니다가 68세에 호남성의 남악, 그리고 72세에 강서성의 여산에 정착했다.

부록으로 <감산서언>과 <동유집 법어 3칙>을 실었는데, 본고에서 스님의 행장을 눈으로 보며 감화를 받았다면, 여기서는 스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정리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에 충분하다.

<감산서언>은 감산 스님이 30대 초반에 쓴 최초의 저작으로, 불교 용어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삶의 교훈을 설하는 경구집이다. 이 저작은 노자의 <도덕경>을 본뜬 옛 문체로 되어 있는데, 비유와 대구를 통한 간결한 표현 속에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담았다. <동유집 법어 3칙>은 참선, 염불, 지주라고 하는 불교의 주요한 세 가지 수행법에 대한 스님의 관점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참선에 있어서 화두를 참구하는 요체는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가르침은 훗날 허운(虛雲) 스님에게로 계승된다.

"불조는 일일이 지침을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를 참구하라고 했지만, 이는 그 현묘한 언구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선 공부를 한다면서 누구나 화두를 보고 의정을 일으킨다고 말은 하지만, 뿌리를 추구하는 법은 모르고 화두 상에서만 추구하여 오나가나 그런 식으로만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마음에 어떤 광경이 일어나면, 자기가 깨쳤다고 하면서 게송을 읊고, 기이한 것을 만들어 내고는 자기가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망상지견의 그물에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참선수행의 핵심' 중>

이 책은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한 대성스님이 번역했다. 스님은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 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골라 읽는 감산자전

'10살 행각승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야 많지만, 출가하여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스님이 될 것을 결심한다.

'19살 출가 참선하여 자기 마음자리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다'
역대 전등 조사와 고승들의 수행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매우 통쾌함을 느끼고 탄식하면서 스님은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즐거운 일이구나." 그리고 바로 출가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오직 한 가지 일을 참구했다.

'27살 행각을 떠나 선사들을 만나다'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온 길을 알고 있는가(記得來時路否)?"
"한 번 지나온 길은 놓아버립니다(一過便休)."
"자네가 온 곳이 이미 분명하네(子却來處分明)."

'31살 고요한 경지를 체득하다'
"고요함이 지극하면 빛이 일체에 두루하고, 적연한 비춤이 허공을 머금는다. 알고보면 관세음보살도 꿈속의 일일뿐이다 라더니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50살 관재를 당하여 유배되다'
"부처님께서는 한 중생이라도 건지기 위해 삼악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해 지방 사람들은 삼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나 내가 여기 와서 교화한 뒤로 모두 염불을 할 줄 알게 되었으니, '그릇됨을 버리고 올바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53살 법화경을 강의하다 현보탑품에 이르러 그 뜻을 환희 깨닫다'
"사바세계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화장세계가 있으며, 그것을 보려면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지만, 가장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도 능히 해낼 수 있다."

'56살 조계 도량을 회복하다'
"육조(혜능)의 도량을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람 다니는 길과 물길을 새로 내고, 스님들을 선별하여 계를 주었으며, 학당을 설립하여 사미들을 길러냈다. 그리하여 1년도 되지 않아서, 백년이나 내려오던 폐습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었다."

'78살 조계에서 입적하다'
"너희들은 마땅히 생사의 문제가 크고, 죽음이 금방 닥쳐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간절하고 실답게 염불을 해라."

청담스님 법어집 2권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혜성스님 엮음
화남 / 1만 2천원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
설산스님 편저
연중기획 / 법보시용





청담 큰 스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얼마 전 스님의 평전이 발간된데 이어, 이번에는 스님의 법문을 모은 법어집 2권이 연이어 나왔다.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와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가 바로 그것이다.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청담스님의 제자인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이 청담스님이 생전에 설한 법문 가운데 수행과 깨달음, 마음을 주제로 한 것들은 중심으로 구성했다.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는 청담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계실 때 스님의 수법제자가 되었던 정토사 주지 설산스님이 쓴 책이다. 설산스님이 청담스님을 모시면서 들었던 가르침과 일화를 묶었다.

두 책 모두 어렵고 암울했던 시절, 초인적인 인욕 정진으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애쓰셨던 청담 스님이 우리에게 설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그대로 들려준다.

이은자 기자

'인도에 대하여'
이지수 지음
통나무 / 1만 8천원

인도문화·역사의 참고서



<인드에 대하여>는 인도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일종의 참고서라 할 만하다. 동대 인도철학과 이지수 교수가 인도유학을 하며 경험한, 살아 숨쉬는 인도의 문화와 역사가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1부에서는 인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관과 사회생활, 언어와 문학, 예술, 과학과 의학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인도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설명한다. 인도 전통종교인 힌두교를 비롯, 자이나교와 시크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이 인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한다.

힌두 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미망사, 상카, 요가 등 6파 철학도 언급한다. 또한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생겨난 인도 수피즘과 시크교 등 현대 인도 종교와, 서양 문명과의 만남을 통해 독자적 사상을 형성한 현대 인도 사상가인 랍 모한 로이, 비베까난다, 타고르, 간디, 오로빈도, 라다끄리쉬난 등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부에서는 불교의 발생과 쇠퇴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부파불교, 대승불교, 아비달마 철학, 중관철학, 유식철학 등을 거치며 쇠퇴해간 불교가, 스리랑카 다르마빨라 스님과 암베드 까르 박사의 불교 부흥운동을 거치며 되살아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해외불서 소 치는 사람 : 선종의 십우도



사찰을 찾았을 때 주존이 모셔진 법당의 외벽에 가장 많이 그려지는 벽화의 하나인 십우도(十牛圖). 일찍부터 선가(禪家)에서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을 소에 비유하여 마음 닦는 일을 소 찾는(尋牛) 일로 비유해 왔다. 소의 상징은 '참 생명', '참 나' 그 자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소를 찾는 일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행자를 이끄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열 단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십우도라고 부른다. 저자인 스테퍼니 웨이더(Stephanie Wada) 콜롬비아대(동양미술학) 교수는 <소 치는 사람 : 선종의 십우도(The Oxherder: A Zen Parable Illustrated)>에서 십우도를 그린 12세기 송(宋)의 곽암(廓庵) 선사와 제자들의 사상과 그림을 해설하고 있다. 아울러 십우도가 만들어지기 이전, '물은 푸르고 산은 녹음이 짙다. 고요히 좌정해 세상의 요동침을 본다'는 전형적인 선화(禪畵)들도 설명하고 있다. 미국, George Braziller 출판.

김재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마음꽃	경허 스님	고요아침
3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4	이뭐꼬	성철 스님	김 영 사
5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 림
6	천진한 부처 성철스님	공 광 규	북앤피플
7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8	아비달마구사론	권 오 민	동국역경원
9	숫타니파타	법정 스님	이 레
10	쏟아지는 햇빛	아놀라 스님	정신세계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농·수·축·임산업, 식품가공업 및 가정 건강생활 필독서!!
질병을 고치는 책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성분의 놀라운 효능
목차: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목초액 식첨용1Kg ..... 현재가격 29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600,000원)
목초석류엑기스 1200ml ..... 현재가격 29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495,000원)
목초석류엑기스 성분 석류엑기스50%(흑석류80%+홍석류20%)+목초액10%
창나무 간질환 · 당뇨병 · 암 · 무좀 · 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저자 : 류창제(구. 창열) 값 8,500원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제의 건강교실"에서 명강의 중
류창제(구. 창열) 소개
목초액 연구가
심성교정 연구가
환경보존 연구가
사회사업가
산업강사 : 각 기업 및 단체 출강중
방송인 : 서울신문 창업방송(SBS, SBS 안산방송, 다솜방송, 이벤트방송, 제주방송), MBN매경TV 매주 6회 출연중
최신간! 영광의 테이프 포함!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값 13,000원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 → 입 → 마음 < 부정 → 부패 → 독소 → 탁한 피 → 면역기능 저하 → 세포질병, 노화촉진 / 긍정 → 소화 → 영양소 → 맑은 피 → 면역기능 상승 → 세포건강, 젊음유지
도서는 전화 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전화 011-9702-8282 / 011-344-5897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94-24-0006-533 (예금주 : 류창열)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모 제3회 집
국제 전문 자격사 취득 안내
"부처님의 극락 불탑의 나라 황금의 사원미얀마"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한국, 공용 국제자격증
국제 포교를 위해 증설한 미얀마 국제 아우미따지 성도 대학원에서 지식인들의 등용문이 되고자 다음 해당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전문자격취득과정
① 전통 침술 국제 자격증반
② 스포츠 지압 국제 자격증반
③ 비만 클리닉 백침 자격증반
④ 명예 철학박사 학위반
지원자격
① 남녀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② 현재 침술 또는 경력 1년 이상인자
③ 학력 제한 없음
④ 지원서, 등본1통, 사진6매, 이력서
(대학원 확장과 한국 분교 증설로 이번기회 전원 무시험 통과 자격 취득)
◆ 접수 및 문의 : 031)867-4131 / 팩스 031)867-4134 / 011)214-4135 / 018)370-4133
◆ 홈페이지 접수 : www.sukamony.or.kr
◆ 지원서 접수 마감 : 양력 12월 15일
◆ 출발일 : 양력 26일 ~ 30일 (4박5일 - 일정에 관광포함)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아이들이 묻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답한다'

베티나 슈티겔 엮음 / 나누리 옮김

달리 / 1만 4천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22가지

석학들, 어린이 눈높이서 다시 보게

어린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달라이라마: "누구에게나 사랑의 씨앗이 감춰져 있단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키워 꽃 피게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해당하는 거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개미에 대한 사랑에 차이가 있을까? 아니. 전혀 없단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도승들은 날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계발하고 키우는 수행을 한단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 쯤 아이들이 불쑥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의 호기심을 한껏 부추켜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로 커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묻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답한다〉는 제목 그대로 아이들의 질문에 세계 최고의 석학이자 정신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꾸며진 책이다.

무언가에 대해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자면 질문은 삶의 원동력이다. 특히나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질문은 더더욱 그러하다. 단순하게만 느껴지는 아이들의 질문은, 그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성장을 돕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은 모두 심오하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에서부터 '왜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야 하나요?' '하늘은 왜 파란가요?' '몸은 왜 아픈 걸까요?' '왜 1+1=2인가요?' '나는 왜 어떤 일은 잊어버리고 어떤 일은 기억하는 거죠?' '지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될까요?' 등 이 책에 나오는 22가지 질문은 보통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지만, 그 어느 것도 어른들이 쉽게 대답하기 힘든 주제들이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과 함께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연재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독일에서 단행본 판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던 화제작이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정기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대해 아이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도록 요청했다.

아이제 로메이의 독특한 삽화가 어우러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 책은 질문하기를 즐기는 아이들 뿐 아니라 아직 질문하는 법을 잊지 않은 어른들, 적어도 궁금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이다.

도서출판 이레와 영진닷컴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아동 출판사 '달리'에서 만든 첫 책이다.

이은자 기자 eleel@buddhapia.com

"네티즌이여 정보판별력 키워라"

전문가 서평

'거미줄에 걸린 웹'

로라 J 구락 지음 / 강수아 옮김

코키토 / 1만 2천원



2002년 11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약 70%에 가까운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 여건 만큼 인터넷 이용의 질적 측면도 함께 향상됐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을 이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만을 즐긴다면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거미줄에 걸린 웹〉은 정보의 소통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의 질적 전환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시기적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을 위해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또는 지금의 신기술은 무엇이며 어떤 모델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 서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수많은 정보와 광고, 그리고 난무하는 흑색선전과 극단적 편견 등 온갖 정보가 뒤섞여 있는 인터넷이란 매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즉 네티즌들은 어떤 권리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거짓 정보를 가려내는 식별요령은 무엇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문제와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제와의 관계들이 이 책의 중심적 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구락은 인터넷이란 매체를 대하는 네티즌들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사이버리터러시(Cyberliteracy)"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이 말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키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스크린의 정보를 읽어내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 하지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사회와 문화에 끼치는 영향과 그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 견지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줄 아는 네티즌들의 전체적인 능력과 자질을 가리킨다.

구락은 이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테크놀로지는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본가와 권력자들에 의해 기능과 방향이 왜곡되거나 조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유저는 적극적으로 그 기술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불온한 의도에 맞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하면 수많은 네티즌들은 소수의 거대자본이 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돈과 개인정보가 담긴 쿠키파일을 건네주고 물건을 사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인터넷 매체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기존의 신문이나 책과 달리 아무런 통제나 검증절차 없이 생산되고 유통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떠도는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성인물이나 귀찮은 홍보성 메일에 대해 필터를 통해 걸러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락은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기술적 보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간의 이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구락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체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디로 인도하든 그 책임은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 강조

하이테크 부작용도 결국 인간의 책임

전체적으로 이 책의 주제가 시기적절하고 참신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지나치게 정보의 소비자만을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쌍방향성이기 때문에 정보의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깨어있는 정보의 소비자 못지않게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정보 생산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점에서 구락은 정보의 생산자가 가져야할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평을 면할 길이 없다.

끝으로 이 책의 원제 「Cyberliteracy」는 디지털 코드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환경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의 권리의식과 대응방식을 사이버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판에서는 이 중심적 개념에 대한 적절한 한국어 번역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내용을 하나의 개념으로 답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어반복에 가까운 책제목은 원제의 함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배서재영/동국대 강사(www.buruna.org 운영자)

〈거미줄에 걸린 웹(원제 : Cyberliteracy)〉은 미국의 저명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로라 J 구락 씀 책이다. 저자는 거부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리터러시'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도입해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이버 디지털의 세계에 대처하라고 이야기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인터넷 시민들이 바로 인터넷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식있는 인터넷 항해를 돕는데 있다.

'영혼의 도시 라싸로 가는 길'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 / 김은주 옮김

다반서 / 1만 8천원

佛 여성구도자의 티베트 여행기

운남성-라싸-강체에서 8개월간 모험담



"알렉산드라는 유럽인임에도 산스크리트와 불교철학에 정통하며, 여행지에서 만난 티베트인들과 아무 불편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티베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여행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녀가 라싸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제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갬초는 20세기 초반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티베트 라싸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프랑스 여성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을 가르켜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도시 라싸로 가는 길〉은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이 1927년 발표한 티베트 여행기다.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이며, 여행가였던 알렉산드라는 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합천 해인사와 금강산 유점사 등지를 여행할 정도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의 문화와 미지의 정신세계를 탐험하고 연구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알렉산드라는 이 책에서 중국 운남성에서 출발해 라싸에 이르는 여정과, 라싸에서 두 달 동안 체류한 뒤 영국 통상부가 있던 강체로 향하는 여덟 달 동안의 모험담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때까지 티베트는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국인 영국이 철저한 쇄국 정책을 펼치던 터라, 그녀가 티베트를 여행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철저한 경계를 뚫고 이 여행에 성공하기 위해 알렉산드라는 탁발 순례 중인 티베트의 무식한 시골 노파 행세를 하며 3천 킬로미터나 되는 멀고먼 길을 걸어서 여행했다. 시킨 지방의 한 사원에서 알게 된 이래 양아들로 삼고서 줄곧 동행을 했던 라마승 아플 용덴과 단둘이서 변변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떠난 여행이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설정 덕분에 다비드 넬은 티베트 여러지방의 생활상과 풍습, 신앙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티베트 문화를 서양인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알렉산드라와, 주술사의 손자로 태어나 티베트 사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용덴의 시각차를 짚어보는 것도 이 책을 읽어가는 재미 가운데 하나다.

이은자 기자

한글대장경 봉안은 부다피아외환카드로...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다피아카드 신규 발급과
대장경 봉안 불사를 동시에...

부다피아외환카드로
사찰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부다피아외환카드 신규 발급 1장으로 대장경 1권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명이 가입하면 장경각(보급형)도 함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카드사업단(02-725-1132)으로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부처님께 드리는 참된 공양

가장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특히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빙자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새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 우다나에 나오는 내용은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바로 내 뒤에 서서 내 발자국을 따라 다닌다고 해도, 그가 마음속이 탐욕스럽고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하며, 마음이 산란하여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니라.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니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실 이상의 인용문은 나 자신을 위한 법문처럼 들리기에 간절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만든다. 수로나국으로 포교를 떠난 우바리 존자도 부처님을 그리워하자 상기 인용문과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온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솔하고 겸허하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기 시작 했던 그때의 법문 내용은 4제와 보시, 지계, 생천설이었다. 4제란 일체의 존재들은 모두 불만과 불안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변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과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보시와 지계는 생활 속에서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회윤리이기도 하다. 어떠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녀야 하는지 알려주기에 법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상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가란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숭상한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종교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간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혹은 절대자와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가가 아니었다. 인간의 면모를 가지고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의 이성을 개발하고, 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천궁행하는 교사적인 역할의 종교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법이란 다르마(dharma)란 범어를 번역한 것인데 존재라는 의미와 정의, 법칙, 가르침이란 의미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삼보의 하나를 법보라 하는 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일체의 결전과 율전을 비롯하여 후대에 이룩된 논서들까지 포함되고 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경전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잡아함경〉〉 권30의 837경에서는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고 말한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 다섯 가지 허물이 생긴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중의 비난을 받으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계율을 범하고 어기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는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면 도랑을 찾지 않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속세로 돌아가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실망하게 된다. 따라서 절을 찾지도, 대중을 공경하지도, 법을 듣지도 않고 선행을 등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지만 법은 무상의 법칙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잡아함경〉〉제46 1238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법은 현재에서 모든 번뇌를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통달하여 밝게 보며, 자기를 인연으로 스스로 깨달아 그 법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중생의 좋은 벗이 되어 중생을 생노병사와 우비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며,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하며, 보고 통달하여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게 합니다." 법의 실천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진솔·겸허하게 법 실천하는 것
보시·지계 인간사회 윤리규범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경기도 부천시 보운산(寶雲山) 아래 자리 잡은 석왕사를 찾아갔을 때, 고산 스님은 점심 공양을 위해 방문을 나서는 중이었다. 그런데 공양을 하러 가신다면서 스님은 왼손에 아홉 개의 커다란 나무 구슬로 만든 단주를 쥐고 계셨다.

"스님, 항상 그렇게 단주를 들고 다니십니까?"

"단주가 어째 생겨났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우반 존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생에 소로 살다가 죽어서 인간이 된 분이었는데, 전생의 업으로 항상 입을 우물우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 소가 여물 먹을 때 우물우물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우반 존자를 위해 처음으로 단주(염주)를 만드셨습니다. 단주를 돌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염불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거리면서 우반 존자에게 항상 단주를 손에서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단주가 생겨 난거군요."

"처음에 아홉 개의 구슬로 만들었는데, 9라는 것은 숫자의 종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종극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라는 뜻이지요. 아홉 개의 구슬로 만들었던 단주가 이후에 108개, 1080개 3000개 등으로 늘어 난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오른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왼손으로 염주를 돌리라 하셨습니다. 균형을 이루도록 말이에요."

한번 생각하면 종자 생기고

두번 생각하면 싹이 트고

세번 생각하면 열매 거둬

고산 스님은 매월 초 여드레 정기법회 때 마다 이곳 석왕사를 찾아 법문을 하신다. 고산스님은 석왕사의 창건주다.

"원래는 서울에 포교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서울은 내가 아니라도 지을 사람 많으니까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곳 부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세가 가장 센 곳이 부천입니다. 여기에 신앙촌을 비롯해서 200여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좋아하려고 적극적으로 포교했지요. 처음에 나한테 전도하러 왔다가 지금은 열렬한 불교 포교사가 된 신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스님은 부천에 불교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맨 먼저 구약 신약성서를 통째로 다 외워 버렸다. 그리고 불교의 잣대로 그것의 오류를 전도사들에 일러주며,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 자신들과 달리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취한 스님께 KO패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고산 스님께 기자가 며칠 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다.

"꿈 속에서 스님을 만나러 여기 오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도착했는데, 올상이 된 저에게 스님께서 이것 저것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참, 희한한 꿈도 꾸었네. 꿈은 주사야몽이라,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반영된 겁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전부가 다 이뤄진다 해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일체유심조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첫 번째 생각하면 종자가 마련되고, 두 번째 생각하면 싹이 트고, 세 번째 생각하면 벌써 열매를 거둔다하셨습니다. 기자 선생이나 만나러 오려는 생각에 그런 꿈을 꾸었나 보오. 그래서 지금이 자리에 있지 않소. 허허허…"

"많은 이들이 저처럼 꿈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허해서일까요. 게다가 세상이 점점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 좋은 꿈을 꾸었다 싶으면 곧바로 복권을 사고요. 요즘, 복권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가지 가집니다. 하지만 저도 기꺼이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만 바래야지, 허영심을 가지면 인생을 망칩니다. 복권이나 증권으로 큰 돈을 얻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주는 기쁨은 '보살 복'이

고산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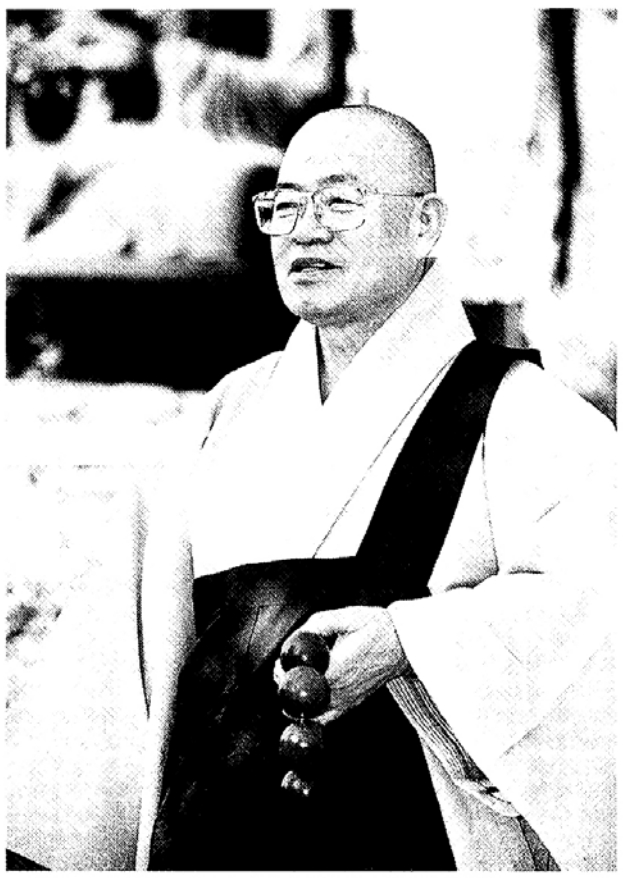
3개사찰 창건 포교앞장…즉흥 법문 유명

고산스님은, 부천 석왕사 외에도 부산 혜원정사, 통영 앞바다의 연화도 연화정사 등을 창건해 포교와 수행에 앞장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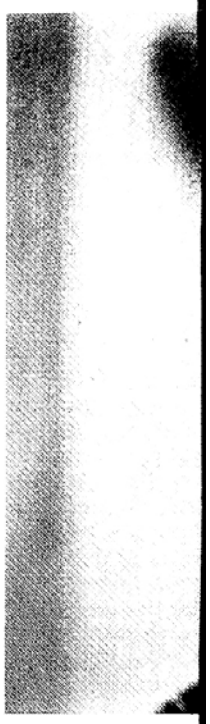
스님은 1948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1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제방선원을 다니며 참선 수행 하여, 선교일여(禪敎一如)의 경지를 이루었다. 69년~75년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78년 조계종 제5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스님은 즉흥 법문으로도 유명한데, 그 모두가 수행의 힘이다. 98년~99년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수행 할 때에도 각종 행사 직전에 비서진에서 써온 원고를 뒤로 하고, 즉석에서 말씀 하실 정도였다. 스님은 "미리 써 둔 것을 읽으려면 자꾸 더듬거려서, 그리고 행사 전에 한번 읽어라도 봐야 하는데 항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원고한번 제대로 검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할란다 하고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 하곤 했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부산 혜원정사에 주로 주석하시면서, 석왕사와 연화정사, 쌍계사 등지를 오가며 여전히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계신다.



◇고산스님은 어디를 가든 심지어 공양하러 갈때에도 항시 단주를 지니고 다니신다.



초발

보

고 산

주는기

보살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속쉬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죽,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중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정수 법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 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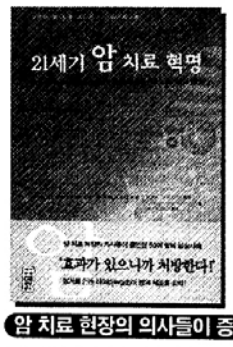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21세기 암 치료 혁명

대체 요법의 첨단을 달리는 아라비녹실란

이제 '서양 의학으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체 요법이다. 본서의 김수자인 의사 오비즈 이렇게 말한다.
"현재 전미(全美) 125개의 대학의 의학부 가운데 실로 75개 대학이 대체 요법 부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 흐름은 성난 파도와도 같다. 일본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대체 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는 아라비녹실란에 의해 그런 확신에 도달하였다."



▶병원치료인 수술요법 화학요법(항암제), 호르몬요법, 방사선용법등의 치료를 한후 상기 대체요법을한 90명의 환자에 대해 2~5년의 재발확률을 관찰한 결과 현재 86명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요법의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면역세포)의 활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된 4명의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수자 오비즈 료이치 - 의학박사
저 자 나가사와 오사무 - 의료 저널리스트
편역자 황성주 - 의학박사

암 치료 현장의 의사들이 증언한 50여 명의 임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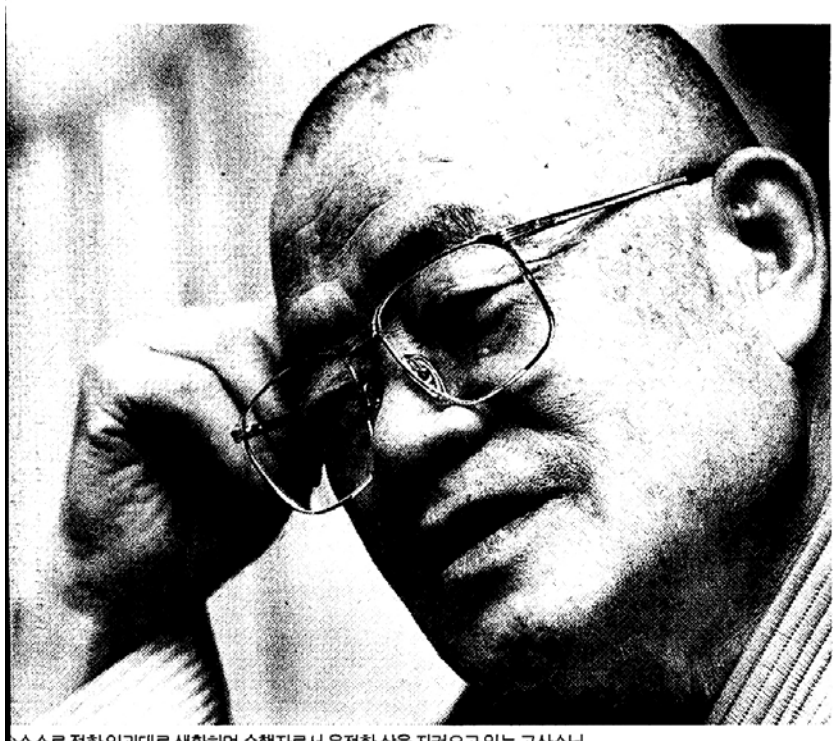
이치바시 클리닉의 이치바시 겐이치 원장
유방암 4기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아라비녹실란 3g을 투여한 지 한 달 만에 NK세포 활성이 2배로 상승했고 종양 지표는 1/3로 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또한 '만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 3g 의 아라비녹실란을 투여하면서 3주 후에 백혈구 검사를 해보니 6만 5천에 달하던 수치가 정상 범위인 5천까지 내려온 놀라운 일도 있었다

오모리 내과 일레르기 클리닉 오모리 원장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몇 년 뒤에 간으로 전이된 60대 환자는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라비녹실란을 투여한 지 일주일 만에 종양 지표가 내려갔고 그 뒤 암의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어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은 모두 적출해 낼수 있게 되었다.

호시기오카 후생 연금 병원의 보우지마 도오루 박사
폐결핵을 앓으면서 폐암 3기인 64세의 남성이 수술 후에 뼈까지 암이 전이되었다. 이 환자는 몸이 너무 약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라비녹실란만을 투여했는데 6개월정도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면서 암 세포의 크기도 줄어들었다. 물론 종양 지표인 ICTP도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구입 및 상담문의 (代) 545-7536 ■가격 8,000원

02·737·8881



스스로 정한 일과대로 생활하며 수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지켜오고 있는 고산스님.

으로 돌아가세요

엇을 하든 성공합니다

서 뵌 큰스님

스님 (쌍계사 조실)

보살복, 받는기쁨=거지복

로 사는것이 불자들의 삶

서 하면 다 성공합니다. 처음 자기가 뜻을 발할 때 그때로 돌아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압니까? 물질문명만 최상으로 올려놓고, 정신문화는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총무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 설 테니, 우리 정신문화 계발에 힘써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 모양입니다."

스님은 큰 한 모금 드시지 않고 말씀을 이어나갔다.

"내가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주로 부산 혜원정사에서 생활하는데, 부산 서민들의 생활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곳곳에 큰 백화점을 지어서,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같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부자만 자꾸 부자가 되고, 동네 구멍가게는 아무도 찾지를 않아서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살피고, 서민들 살아가는 것을 살펴서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야 하는데, 다들 지 감투나 챙기려 하고, 자기 자리나 보전하려해서 문제입니다. 서민들 잘 살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본분인데, 다들 자기 얼굴이나 내고, 자랑이나 하고…, 부산 만 그런게 아닙니다. 대도시는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점포도 하나 꾸려나갈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중소기업이 망하고, 내일은 또 어느 가게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고산 스님은 30분 넘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며 안타까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신문화가 땅에 떨어진 결과라며, 정신문화를 계발해야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셨다.

쉼 없이 말씀하시는 고산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수행으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다. 스님은 스스로 일과를 정해 놓고 생활한다.

매일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에서 108 참회를 한다. 바로 예불에 참여하고, 〈원각경〉과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송에 발원문 까지 한 후에 아침 공양 전까지 참선을 한다. 이후에는 법회나 천도재에서 법문을 하고, 오후에는 경전을 읽으며 정진하거나 때로 찾아오는 신도들과 대화도 하신다.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저녁 예불하고, 저녁 공양하고, 다시 참선 수행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이렇게 매일 같이 생활하다보면, 하루도 넉넉한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을 하거나,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지요."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출가자의 삶을 살고 계신 고산 스님.

불현듯 고산 스님이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보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네가 가진 물질적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 육신의 골수까지도 다 중생을 위해서 다 베풀겠다는 마음입니다. 받기만 하려는 거지의 마음을 버리고,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 전체가 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언론에 연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한 번 보세요.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는데, 서로 헐뜯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고 바보처럼 그대로 믿기나 합니까. 오히려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욕을 먹지요.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해 집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불자의 삶입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수암스님



재가불자들이나 세속의 사람들은 출가스님들의 삶이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붙이 가족과 친지를 떠나 평생 홀로살기로 서원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깊은 산속 수행승의 이미지가 각인된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스님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남들 생각처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출가는 단절과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재출발이 본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산해서 행자생활을 할 때부터 도반이 생기고, 강원과 선원 생활을 통해서 뜻을 함께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좋은 벗들을 만날 수 있다.

수암스님은 나의 행자도반이다. 입산해 아직 머리도 깎지 못하고 부엌일을 거들며 행자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였다. 해질녘에 새로운 행자가 왔다고 하여 가보니 두꺼운 안경을 쓴, 나이가 무척 많아보이는 처사 한명이 와 있었다. 그 처사가 나와 같은 날 삭발을 하고 수계도반이 된 수암스님이었다.

스님들 사이에서 행자도반은 친형제나 다름없



는 사이다. 때로는 출가의 뜻과 마음을 일생 함께 할 수 있는 까닭에 출생을 함께한 혈연보다 더 굳은 관계가 되기도 한다. 행자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가생활의 기본이 행자시절에 거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알속에서의 고통과 성숙해가는 과정을 견디면서 마침내 계를 받아 스님이 되는데 있어 속세의 과거를 뛰어넘어 출가인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행자도반이다.

나이들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같은 또래였던 수암스님은 출가전에 고교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이 인연이 되어 입산하게 된 계기가 같아 다른 도반들보다 좀더 친밀할 수 있었다. 가끔 먼저 입산한 상행자들의 부당한 태도에 속상해 하고 힘들어 할 때 은근히 다가와 같이 욕하기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도 했고, 며칠 늦게 입산했으면서도 절사정에 밝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치면 오히려 가르쳐주는 일이 더 많았다. 큰 스님의 49재를 만나 매주 수천명의 밥을 해대느라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공양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자기소임은 끝까지 감당해내고, 암자의 스님이 키우던 벌떼가 날아갔다고 도와달라는 부탁에 얼굴을 온통 쏘이고 와서 끙끙 앓아누워서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곤 하였다.

계를 받고 먼저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배운 교재와 자료를 가져와 설명을 해주면서 뒤늦은 도반에게 자신의 공부를 나누곤 했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산중의 대중살이와 분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방학을 맞아 본사에 오면 밤늦도록 이야기하다가 같이 잠이 들어도 도반의 몇 분간의 휴식을 위해 먼저 일어나서 도량목탁을 치거나 종송을 해주기도 하는 자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수암스님은 오신채와 멸치국물도 못 먹는 철저한 산승체질로 수년간 도시에 살면서도 음식에 대해서 한점 불평과 불만이 없었는데, 혹 신도들이 공양대접 한다고 식당을 가도 그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만 가려 먹을 뿐 좋고 나쁜 표현이 일체 없다. 아직도 출가전에 인연맺었던 불교모임의 동기와 후배들과 소식을 끊지않고 이어나가고 있으며, 고향에 내려가면 속가도 자주 찾곤 한단다. 흔히 출가하면 속가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여 속가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찾지도 만나지도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오래되고 묵은 옛 인연을 출가의 새로운 인연으로 엮어서 더 좋은 불연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다.

속가때 인연도 불연으로 승화

행자때 신심 간직…늘 젊은 스님

십 여년전 한 대학의 불교동아리와 맺은 지도법사의 인연도 그곳을 떠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데, 방학이면 학생들이 절에 찾아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며 스님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에는 출가해 수암스님의 상좌가 된 사람도 있고, 짝을 이룬 학생들이 여럿 주례를 부탁해 도반들 중에서 최다 주례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년째 살고 있는 홍성 용봉사에는 일요일이면 인근 부대의 장병을 태워와서 법회를 베풀고, 근처의 교도소 법회를 비롯해 힘이 닿는 한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법회의 설법문안은 두꺼운 파일로 몇 개가 쌓여가고 있으며, 설사 짧은 법문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가벼이 넘기지 않는다. 때로 다니느라 피로가 심해 휴게소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스님을 찾는 인연에게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찾아가 보는 열성이 식지 않는다. 이젠 윗머리까지 훤해져서 겉모습은 노스님이 다 된 수암스님이 언젠가 은사스님의 출타에 시봉한다고 나섰을 때, 은사스님께서 "내가 널 시봉해야겠다." 하시는 바람에 쓰쓸하게 웃은 적이 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산골 절의 담백함을 가득 담고 사는 수암스님은 은사스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도 행자시절의 신심을 품고 사는 '늘 젊은 스님'이다.

圖 서산 부석사 주지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판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상담문의 ☎ (02)3437-8282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포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대구 팔공산 1인1지장 만불보탑 성취 4000일 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장보살님의 성취공덕이 늘 함께 하길 두손모아 기원 올립니다.
불기 2540년(1996년) 대구 두산동에서 맨손으로 몸소 불단을 만들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기도수행, 포교복지 원력으로 6년 이제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에 지장보살님의 새 터전 작은도량을 마련하여 1인1지장 만불보탑 불사와 한가정 한평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지장대법사 묘허 큰스님을 모시고 만일기도 결사의 원력으로 4000일 기도를 입재발원 올립니다.
지장경 전독 제4차 1000일기도와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새원력과 새날을 기다리지 않고 성취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두눈과 두손의 무한 가피력으로 선근공덕, 성취공덕, 회향공덕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길 두손모아 지장보살님전에 축원 올립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 입 재 : 불기2546년 12월 8일(음력 11월 5일) 일요일 오전10시
㊣ 1일1지장 인연공덕 동참자 1인, 한가정 한평불사 인연공덕 동참자 5인가족 동참일로부터 1000일축원
㊣ 동참금 : 1인 1지장 (원불, 조상영가, 태아영가) 30만원
한가정 한평불사 100만원
인연따라, 형편따라 선원장스님과 상담후 분납됩니다.
㊣ 1인1지장에는 인연공덕 동참자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한가정 한평불사 동참자는 공덕비에 5인가족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100일마다 천도재 올립니다.

※ 대구은행 지장선우(055-05-422870-001)

불기2546년 11월 좋은날 조계종 범어사 대구포교당
지장선원장 지 공 손모음
지장선원 ☎ 053)744-0150~1

한국 명상음반 설자리 잃어

수입품 1500종…장르도 뉴에이지등 다양

국산 20여종 불과, 소재 빈곤도 극복돼야

수입 명상음반이 봇물 터지듯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작곡가 크레이그 푸르어스가 진언을 수록한 이색 명상음반 'Sacred Chants of Buddha'을 내놓는가 하면 선(zen), 평화, 명상을 주제로 한 외국음반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음반 매장에 선보이고 있다. 현재 전문 음반 매장의 명상음반 코너와 인터넷 사이트에는 완전히 수입음반 일색이다. 그러면 국내 명상 음반은 어디에 있을까. 불교 전문 책방인 여시아문의 명상음반 코너에 가 보면 국악명상음악 '향'(한소리레코드), 명상레코드에서 기획한 '산사의 명상음악시리즈 5권', 명상기획의 '천년의 선', '국악명상음악' 올니레코드의 '선의 세계' 등 20여종도 채 안된다. 그나마 국내 명상음악의 선구자로 알려진 작곡가 김영동씨의 '선 I, II' '바람의 소리' 등이 눈에 띌 뿐이다. 외국 음반에 비하면 턱없이 왜소한 수치다. '교보문고'의 전문 음반 매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명상음반은 '명상의 말씀'과 김영동, 김도향, 김수철씨의 명상음악 정도가 고작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명상음반을 주로 취급하는 음반 사이트 명상나라 손민규 대표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입 명상음반은 1천5백종이상이 될 정도로 뉴에이지를 비롯해 연주악기나 장르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세분화 돼 있다"며 "이에비해 국내 음반들은 주로 국악기에 한정돼 있고 소재도 산사나 불교만을 주제로 하는 등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고 있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대다수 음반들이 명상음악의 본거지인 티베트와 인도의 전통악기에 현대적인 신디사이저 악기를 접목시켜 연령에 관계없이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각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98년 인도음악에 심취한 김창수씨(서울대 작곡가 강사)가 '티벳 불교 예불' 음반 에 이어, 4년간 현지 녹음한 '인도 명상음악' CD 8장을 펴낸바 있다. 아침을 맞는 인도인들의 경건함과 기쁨, 슬픔의 감정을 연주해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후속 음반을 내 놓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경전 내용이나 염불을 모두 현대적인 장르와 악기로 음반 작업을 해 놓아 명상음악과 불교음악이 이미 대중화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상음악의 장르를 단순히 국악이나 종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월드뮤직의 흐름과 연계한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동양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명상음악이 이제 서구의 영업 전략에 밀려 판들



◇음반매장을 찾은 한 여성이 수입명상음반을 고르고 있다

치는 작금의 현실을 음반 기획자와 음악가, 수요자 등 관련자들이 냉철히 인식해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 jkm@buddhapia.com

"현대불교미술 창조정신 필요"

윤범모교수, 월간지 '문화예술'에 기고



'현대의 불교미술은 신라미술의 단순 복제보다 석굴암의 창조정신을 요구한다'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평론가)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잡지 '문화예술' 11월에서 고언한 내용이다. 윤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미술전시회로 각인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향방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이 많이 출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미술대전이 일반 미술계의 역량있는 작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는 "장인들에 의한 과거 미술의 단순 복제 작품이 범람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시대의 역량있는 미술가들은 당연히 불교미술의 현장과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윤 교수는 "다수의 현역작가들이 참여한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은 회화, 조소, 공예, 판화, 사진,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불교사상을 선보인 의미있는 전시였다"며 "중요한 것은 신라미술의 단순한 복제가 아닌 석굴암의 창조정신을 존중하는 불교미술계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의미 큰 전시회

종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치 않았다. 윤 교수는 "불교미술의 찬란함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교육, 전시할 불교전문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며 "종단에서 불교미술관의 건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김주일 기자

도올, 불교재즈공연으로 종강

숫타니파타 · 금강경 등 경전내용 선율에



◇도올 김용옥씨가 EBS-TV 불교특강 마지막 강의에서 보컬그룹과 함께 '금강경'을 재즈화한 '번개여 쳐라'를 노래하고 있다.

"예스, 잇 워즈 마이웨이(Yes, it was my way)".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아리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EBS-TV 특강 '도올, 인도를 만나다'의 마지막 강의에서 도올은 내 식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프랑크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자기 방식대로 불교를 강의했다는 내용으로 개사한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말문을 열었다.

"불교의 초기경전과 계송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을 감정으로 표출한 일종의 노래"라며 "흑인 영가나 재즈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 〈숫타니파타〉와 〈금강경〉을 선율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담은 완성도 높은 강의였으며 무엇보다 팔리어 경전과 초기불교의 세계는 지적 즐거움 그 자체였다"고 감회를 덧붙였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코빨소의 외쿱경전〉의 내용을 가사로 만든 재즈곡이 서울재즈아카데미밴드에 의해 연주됐다. 또 '번개여 쳐라', '나를 없애라'〈금강경〉와 '나도 없다, 너도 없다'〈반야심경〉의 내용을 4명의 보컬그룹이 연주할 때는 도올도 어깨동무을 하고 춤을 추며 흥겹게 따라부르기도 했다. 특별출연한 김성녀 씨가 '연잎바람'과 '무상계'를 경서도소리 명창 김영임씨가 '가야지', '어화너', '정선아리랑' 등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

처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녹화장을 찾았다는 김성원(45 강남구 개포동)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양질의 강의여서 의미있었다"며 "하지만 주제의 내용보다 흥미위주 이야기가 많을 때도 있어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한다.

한편 이날 공연 도중 도올은 "기자의 눈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겠느냐는 문화일보 김정국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소외받고 학대당하는 계층으로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기자직 수락 배경에 대해 도올은 "8월 중순 동국대 강연에서 농담삼아 가볍게 기자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시사저널 기자가 한줄 기사화 한 것을 문화일보 김 사장이 보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부연 설명 했다.

김주일기자

"평기자로 새로운 인생 시작 하고파"

국악인 안비취씨 삶다룬 '한오백년' 국립극장 공연

작고한 유명 국악인의 인생을 다룬 소리극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98년부터 소리극을 공연해온 (사)경기민요보존회는 국악인 안비취(1926~1997)씨의 5주기를 맞아 안씨의 삶을 소리극 '한오백년'으로 기획, 14일 오후 3시와 15일 오후 3 7시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총제작지휘는 선생의 수제자인 이춘희씨가 맡는다. 또 애제자인 김혜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기능보유자 후보지정), 이호연(경기민요교육 보존 지정) 등 70여명과 연극배우 이주실씨가 시어머니 역으로 특별출연 한다.



◇'한오백년'의 리허설 장면

이춘희씨는 "소리 인생을 살다가신 아내, 어머니, 또 스승으로서 안비취 선생의 삶을 강원도민요 '한오백년'의 한 맺힌 소리를 통해 승화시켜 보겠다"고 밝힌다. (02581-5801)



명찰가요 1,2집 출시

차상우씨 불음포교나서

'전국 유명사찰의 전설이나 역사, 비경을 책이 아닌 노래로 듣는다면 그 사찰에 대한 이해가 더 쉽고 빠를 수 있다.'

최근 명찰가요 음반 1 2집을 출시하며 음반포교에 나선 차상우 회장(한국명찰가요협회)의 생각이다. 차씨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국보와 문화재 1,466점중 불교문화재는 9백여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사찰만큼 흡족한 박물관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노래로 사찰을 알리는 작업을 해왔다"고 음반 발매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음반에는 '직지사' '향일암', '아제아제바라아제' '용주사' 등 총 26곡이 수록돼 있다. 작사도 차 회장이 직접 전국의 산사를 기도 순례하며 지었으며, 노래는 최영주, 김건아 등 한국명찰가요협회 회원들이 불렀다. 내년 초에는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신흥사' 등을 소재로 한 음반을 발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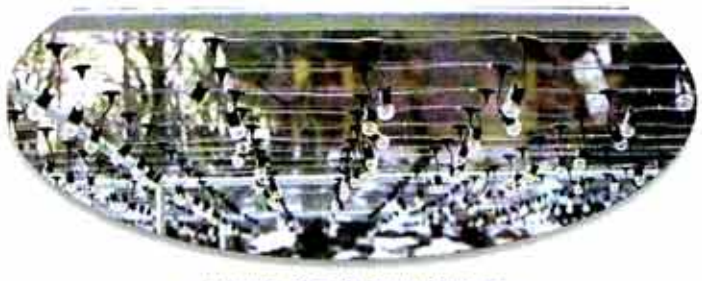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쌀로 만들어 보세요

포도쌀조청

포도 20Kg, 쌀 1말, 엿기름 5Kg

①포도는 즙을 내고 쌀은 쪄서 고두밥을 짓는다.
②한 김 나간 고두밥에 엿기름물을 섞어 따뜻한 곳에 6시간 정도 두어 충분히 삭힌다.
③②를 베 보자기에 걸러 끓인다. 1/3가량 줄어들었을 때 포도즙을 넣고 약한 불에서 졸인다.
④표면에 거품이 일면 불을 끄고 식힌다.



차 쌀강정

쌀 1/2컵, 시럽 2/3컵(설탕2/3컵, 물엿 2/3컵, 물 2큰술, 가루차 2작은 술, 소금 약간), 대추 4개, 땅콩 50g, 소금, 물 약간

①5시간 정도 불린 쌀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인다. 손끝으로 뭉개보아 쌀알에 심이 없을 정도로 익힌 후 찬물에 헹군다. 소금간 한 물에 5분쯤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뺀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바싹 말린다.
②①을 망에 담아 200℃의 기름에 튀긴다.
③냄비에 설탕과 물엿을 넣고 실이 생길 때까지 조리다가 소금을 넣는다. 물 2큰술에 가루차를 풀어 붓고 다시 한 번 끓인다.
④시럽에 튀긴 쌀, 땅콩, 채썬 대추를 넣어 버무린 다음 한 입 크기로 뭉친다.



밥바

밥 2공기, 양파 1/4개, 소고기 50g, 피망 1/4개, 흑임자 1/2큰술, 달걀 1개, 소금, 후추, 밀가루, 식용유, 토마토케첩, 나무젓가락

①양파, 피망, 소고기는 곱게 다져 소금, 후추로 양념하여 볶아낸다.
②밥에 흑임자를 넣고 소금, 후추로 양념한 후 ①의 재료를 넣고 잘 섞어 먹기 좋은 크기의 둥근 막대 도양으로 뭉친다.
③②에 밀가루, 달걀물을 입혀 식용유를 두른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낸 후 나무젓가락에 꽂아 낸다.



시래기 밥

찹쌀 1컵, 멥쌀 3컵, 시래기 200g, 다시마물 4컵, 들기름 3큰술, 구운소금 1작은술, 홍고추, 풋고추 1개, 간장 3큰술, 통깨, 고추가루 1작은술, 후춧가루

①마른 시래기는 충분히 불린 후 솥에 물을 넉넉히 부어 너무 무르지 않도록 삶아 물기를 뺀다. 질긴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썰어 놓는다.
②1시간 정도 불린 쌀과 시래기, 소금을 솥에 넣고 들기름으로 볶은 다음 다시마물로 밥물을 부어 쌀을 앉힌다. 뜸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
③잘게 다진 고추와 진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후춧가루, 통깨를 섞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라이스 김치 크로켓

밥 2공기, 깍두기김치 100g, 치즈 2장, 계란 2개, 빵가루 2컵, 식용유, 소금, 케첩, 마요네즈

①밥에 잘게 썬 깍두기를 넣고 치즈를 위에 얹은 다음 전자렌지에 30초간 녹여 섞는다.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모양을 만든다.
②계란은 잘 풀어둔다.
③빚어놓은 밥에 계란물과 빵가루를 묻혀 180℃ 기름에 튀겨낸다.
④케첩과 마요네즈를 곁들여 낸다.



쌀의 변신

쌀(米). 파자(破字)해 보면 팔십 팔(八八)이 된다.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여든 여덟 번이나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또한 우리 농업 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농사는 홍수조절기능은 물론이고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산소를 방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음료에서 피자까지 쌀이용식품들 다양

"쌀밥 당뇨병 치료식 이용 가능" 주장도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먹은 쌀의 양은 89kg으로, 199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백 20kg이었던 데 비하면 10여년 사이 30kg 이상이 줄었다.

쌀 재고량은 지난 96년 이후 연속된 풍작과 소비감소 등으로 2000년부터 적정량을 넘어서 지난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927만석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318만석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쌀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농민 · 시민단체가 나서 '아침밥 거르지 않기'와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쌀을 이용한 음료에서부터 요구르트, 소주와 스낵, 피자와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쌀식품'도 선보이고 있다.

밀, 옥수수와 함께 인류의 3대 곡물로 꼽히는 쌀은 영양도 뛰어나다. 쌀에 들어 있는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밀가루보다 2배나 많고 체내흡수율도 높다. 또 쌀밥은 빵에 비해 소화흡수가 잘 되므로 인슐린 요구량이 낮아 당뇨와 비만을 예방하며, 섬유질 성분이 구리, 아연, 철성분 등과 결합하여 중금속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처럼 쌀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쌀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 '쌀밥은 당뇨에 안좋다'는 등 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최근 쌀이 당뇨병 환자에게 오히려 권장할 만한 식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개발연구원 하태열 박사는 "쌀밥과 감자, 식빵을 각각 섭취한 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살펴본 결과, 식빵이나 감자에 비해 쌀밥이 인슐린 분비가 훨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쌀밥이 당뇨병의 치료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가정에서도 쌀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 보자. 바삭한 쌀강정과 남은 밥을 이용해 만든 밥바, 크로켓은 아이들 간식으로 좋다.

쌀의 제맛을 살리려면 우선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 밥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 경우 적어도 밥을 짓기 30분전에 쌀을 물에 불려 쌀알에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쌀을 씻은 첫물은 되도록 빨리 헹구어 버린다. 쌀 표면에 묻어 있는 쌀겨 냄새가 씻는 동안 쌀에 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쌀을 씻은 후에는 체에 밭쳐 물기를 완전히 빼두었다가 밥짓기 바로 전에 물을 넣어 밥을 한다. 밥물의 양은 쌀의 용량, 즉 부피의 1.2배 정도가 적당하고, 중량으로는 1.5배 정도가 알맞다.

<자료제공=향토음식연구회>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이럴땐 이렇게

○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비닐이나 은박지를 입힌 종이에 포장된 쌀은 공기가 차단되므로 쌀독이나 쌀통에 덜어 보관한다. 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사과를, 쌀벌레를 퇴치하려면 마늘을 넣어둔다. 쌀을 덜 때는 물 묻은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묵은 쌀 냄새를 없애려면

묵은 쌀에서 나는 냄새 제거에는 식초가 제격. 우선 아침밥으로 사용할 쌀을 그 전날 저녁에 식초 1~2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씻어서 물기를 뺀 뒤 밥을 지을 때 한 번 더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난 뒤 밥을 지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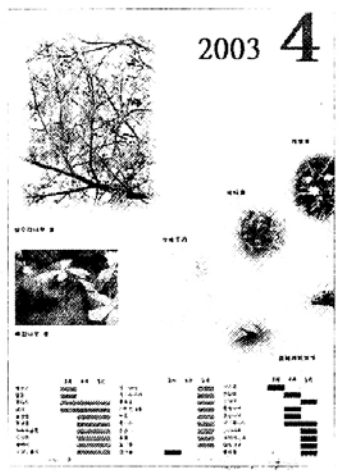
○설익은 밥 뜸들이기

가스불이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경우 물의 양을 잘못 맞춰 밥이 설익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다 끓인 밥에 청주를 조금 뿌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밥솥의 스위치를 켜거나 약한 불에 5분 정도 둔다.

○밥 탄 냄새를 없애려면

나무주걱 같은 것을 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큰 숯 덩어리를 한두 개 얹은 후 뚜껑을 닫아둔다.

생물들의 삶·계절변화 담은 생태달력 나왔다



'3월 4일, 꽃다지 꽃망울이 올라옴. 4월 3일, 버들잎벌레가 짝짓기. 4월 26일, 꼬마물떼새가 알을 낳다. 5월 7일, 토끼풀천국'

생물들의 삶의 모습과 계절의 변화를 기록한 '2002년도 생태 달력'이 나왔다.

환경단체 '생태보전시민모임'이 만든 달력에는 환경운동가와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지난 3년 동안 도심의 작은 산과 생태공원 등에서 관찰한 생물들의 출현시기와 새싹이 나오는 시기, 꽃이 피는 날 등 생태변화가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달력을 만든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운동 중에서도 생태만을 특화시켜 갖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민성환 간사는 "생태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키워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을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달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생태달력은 홈페이지(www.ecoclub.or.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값은 1만2천원.

여수령 기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아욱수제비



수제비 반죽(밀가루 200g, 단호박 찐 것 1/4개, 소금 약간), 아욱 400g, 된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참기름 2큰술, 물 4컵, 다시마(10cm) 1장, 표고버섯 가루 2큰술, 굵은소금 약간

1.아욱은 질긴 껍질을 벗기고 굵은 소금을 뿌려 치대어 푸른 물을 빼고 찬물에 헹궜다가 건져놓는다.
2.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 참기름을 잘 푼 다음 다시마, 표고버섯 가루를 넣는다. 끓기 시작하면 아욱을 넣고 충분히 끓인다.
3. 분량의 재료를 넣고 수제비 반죽을 한다. 이때 물을 넣지 않아야 맛있다. 반죽을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보관한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죽에 찬물을 부었다가 물을 따라낸 다음 수제비를 떠야 쫄깃쫄깃하다.
4. 아욱이 누르스름해질 때까지 국물을 끓인 다음 수제비 반죽을 조금씩 뜯어 넣고 끓인다.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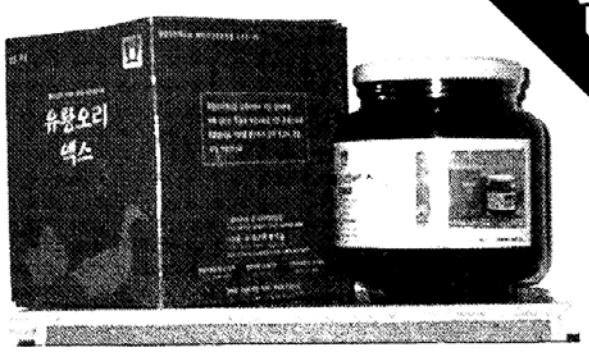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잘 낫지 않고 고통스러운
감기기침
[인진무엇]으로 다스리세요.



[인진무엇]은 늦가을 서리맞은 토종무에다 인진쑥, 구기자, 살구씨, 호도기름과 기타 몇 종류의 약초를 첨가하여 엿기름에다 1주일 정도 고아서 먹기 좋게 물엿같이 만든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제품입니다.
그동안 [인진무엇]을 써 보신분 만이 그 효능을 인정하고 가족과 친지는 물론 주위 분들에게 권하여 기침의 고통을 덜어 줌으로서 자신이 福을 짓게 되는 제품입니다.

● 판 매 가 : 1kg 1병 = 70,000원, 2병 = 125,000만원
● 송금구좌 : 국민은행 096-24-0196-202 유 영 동

인연을 소중이 여기는 건강나눔 041-541-1095 011-336-8377

효과를 못 보신 분은 대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11월27일 은평노인복지관 앞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김치를 만들고 있다.

연말을 불우이웃과 함께…

불교계 복지관등 각종행사 마련

결식아동 영화관람, 눈썰매 타기
김장김치 나누기…후원 · 자원봉사자 모집
어르신문화축제, 먹거리 장터 열어

연말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들이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힘든 곳을 돌아보는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청담복지관은 12월 25일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와 '송년의 밤' 행사를 열어 불우이웃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 영주장애인복지관은 12월말 '장애인 장기발표회'를 개최해, 일반인과 장애인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동복지관은 12월 20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관람행사'를 열어, 이웃 사랑의 따듯한 마음을 전한다. 몰운대복지관은 12월 말경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눈썰매장으로 가는 행사를 한다.

본동 · 덕유복지관 등 10여개 불교계 복지관들은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어 김치를 배달해주는 등 소외된 이웃과 음식을 나눈다. 이를 위해 불교계 복지관들은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도와줄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행사도 열린다.

은평노인복지관은 12월 20일부터 '제4회 은빛 어르신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참가하는 '어르신 문화축제'(26~28일), 주간보호소 노인들과 가족들의 송년잔치(24일), '어르신과 아동 이색통합 작품전시회'(20~28일), '먹거리 장터 및 알뜰바자회'(26~28일) 등이 열린다.

구로복지관은 12월 21일 방과후교실 아동들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잔치'를 준비한다. 과천복지관도 12월 13일과 27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대잔치'와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장기를 펼친다. 의성노인복지관은 12월 18일 복지관 소속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노래 뽐내기'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은평노인복지관 곽선영 홍보과장은 "연말연시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쉽다"며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계 복지관 12월 행사

행 사 명	복 지 관	연 락 처
김장나누기 행사	몰운대복지관(12~14일)	(051)264-9033
	문경복지관(5, 6일)	(054)555-0108
	덕유복지관(13일)	(032)325-2161
송년의 밤	능인복지관(12일)	(02)571-2988
	본동복지관(27일)	(02)817-8052
	부산금정복지관(4일)	(051)532-0115
장기발표회	간양복지관(21일)	(031)455-0551
가족잔치	일산노인복지회관(25일)	(031)919-8677
불우이웃돕기 거리모금	금오복지관(7, 9, 14일)	(054)458-0230
	두송복지관(4일)	(051)265-9471

행복한 참견

◆노인용품 무료대여=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노인용품과 간호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휠체어, 목발, 네발지팡이 등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02)385-1351

◆불안증 환자 모집=삼성서울병원 정신과는 항불안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 참여할 불안증 환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불안장애를 지니고 있는 19~75세 사이 환자로, 참가자에게는 8주 동안의 치료약이 무상 제공된다.(02)3410-0390

◆가족 음악회=서울 양재복지관은 14일 오후 5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발표회'를 진행한다. 1년 동안 손자들이 배운 재주를 자랑하는 자리.(02)579-1850

◆무료 백내장 치료=금천시립노인복지관은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치료를 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0명.(02)804-4058

◆음악치료 워크숍=광주동구노인복지관은 16~19일 복지관 강당에서 음악치료 초급과정을 진행한다. 참가비 24만원. (062)513-0977

◆수지침 진료=의왕노인복지회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성결대학교 수지침 동아리 회원들이 진행하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031)625-3676

새해 달력에 기념일을 새기자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겨둔 때가 되었다. 아쉬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때다. 또 이맘때는 새해 달력이 돌기 시작한다. 올해는 노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하고 달력을 넘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기도 한다. 조금 유치하기도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 기대를 반영한 행동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새해 달력을 꺼내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내년도 달력을 보는 거다.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 엄마 생신, 동생 생일…. 이러다 보면 딴 동네로 이사간 이웃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이쯤 하고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에 웃음이 번지지 않는다면 그 가족은 곰 발바닥 같은 감정의 소유자들이거나 서로의 존재에 대해 무심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왕 내친김에 하나 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정도도 표시해 두자. 그리고 이웃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자. "축하 해."

행복쪽지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짓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아웃사이더'의 고독

회색 바바리코트에 자주색 머플러를 하고 저를 찾아 온 40대 중반의 남자는 자기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소개한 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지쳐서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을 듣고 난 저는, 나도 40 대 중반에는 저런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그 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출판사를 하고 있는 아버지 덕분에 삼면의 벽이 책으로 가득 찬 집에서 성장기를 보낸 그 분은 고등학교 때 세계문학전집을, 대학교 때 세계사상전집을 독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으로서의 인생길에 들어섰다고 술회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서의 인생길에 들어섰다고 술회한 것은 그 때부터 주위의 친구들과 자기 자신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에 자신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친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 안에서는 무가치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난 그 분은 그 때부터 '아웃사이더'로서의 고독감에 젖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적인 오만감과 열외자로서의 낯가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 (부록 · 비디오 포함) 우단금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매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주문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어떤 것이 부처의 삶인지…

문 항상 보이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인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부처의 삶인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예전에 통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통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분은 5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호랑이한테 잡혀간다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사는 길이 있느니라. 모든 일은 순조롭게 응하되 거스리지 말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순순히 먹혀라. 살고 죽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산을 지나가다가 천야만야한 산턱에서 대호(大虎)를 만났습니다. 기절을 할 지경인데 문득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는데도 순리적으로 거역하지 않고 그냥 잡아먹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씹지도 않고 삼켰는데 이 스님이 퍽 고개를 들고 천장을 쳐다보니 아, 뭐가 달렸거든요? 주머니 하나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니고 있는 장도를 꺼내서 쓱 도려냈습니다. 뜨겁거나 춥거나 그래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고선 칼을 쓱 꺼내 가지고 간을 한 점 도려서 꿀떡 삼켰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이거는 요새 말로 오토바이 타고 막 돌길을 가는 거와 같이 날뛸 거 아닙니까.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거든요. 그러자 또 한 점을 썩 베어서는 또 꿀떡 삼켰습니다. 아, 꿀떡 삼키니까 또 뛰거든요.

바깥에서는 호랑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호랑이의 증조할아버지가 "얘! 너 왜 그렇게 뛰니?" 하니까 그냥 물어 죽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뛰니?" 하고 물으면 또 물어 죽이고, "아버지, 왜 그렇게 뜁니까?" 하면 물어 죽이고, 사방으로 하늘이 높다고 뛰면서 다 물어 죽여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죠,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죽여 버리고 자기도 고만 죽게 됐는데, 거기에서 간을 뭉텅 떼어서는 소금도 바를 새 없이 아예 꿀떡꿀떡 삼켜버렸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냥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용하거든요. 조용하니까 자기 장도로다가 꽁지를 둥그렇게 뚫고서는 쓱 나오니까 머리가 홀떡 다 벗겨졌더란 말입니다. "다 벗겨져서 참 싱그럽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살면서 스님이 하신 말씀도 건성 들었더니 참 싱그럽구나. 모두가 번뇌망상을 먹고 산다고 했더니 모두가 싱그러운 그 법력을 먹고 살았구나. 그러하니 망상이라고 떼어 버릴 것이 뭐 있으며, 망상이 아니라고 가질 게 뭐 있던가! 푸르고 높은 산 얕은 것을 산이라 하노라." 하고선 내려간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서 통선사와 제자 5만 명이 죽 늘어앉았는 데에 이 스님이 들어가서 은사 스님한테 퍽 삼 배를 올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독 안에 들어서는 독을 굴릴 수 없노라. 독 바깥에 나오니 굴리고 굴려도 굴리는 자체가 없더라. 한 손 한 발 딛고 한 손 들어 천지를 쥐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걷어쥐니 일체 푸른 산 푸른 초목들은 한데 걷어 모아서 상투를 틀고 내 석장을 빼서 동곳을 삼으니 이 천지 어찌 싱그럽지 않으랴. 여기에서 그 동곳 한 점이, 5만 명이 오천이 될 수 있고 오천이 한 점이 될 수 있고, 그 한 점이 바로 여기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시노라.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한 손 들고 한 발 딛고 절하라." 하고선 버럭 악을 쓰면서 참 공손히 자기 은사스님한테 절을 하거든요, 합장을 곱게 하면서. 그러니 스님께서 "저 산이 항상 푸르다고만 했더니 붉게 익었구나. 붉게 익었으니 흰 구름도 검은 구름도 다 걷혔구나. 얼씨구절씨구 좋을 씨구, 우리 살림살이 이만하면 좋을씨고." 하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리를 허투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남녀를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모른다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말도 할 수 없으리만큼 치욕스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세세생생 헤맬테니 그 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차 얘기를 하는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서 일할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일하다가도 외출을 할 일이 생기면 금방 탈바꿈을 해 가지고 바깥에 나갑니다. 구두를 신고 온통 바르고, 모습을 확 바꿔 가지고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렇게 바꿉니다. 어느 장소에는 이렇게 입고 가고 어느 장소에는 저렇게 입고 갑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신령스러울 만큼 모습을 바꿔가면서 살고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눈을 부릅뜨게 되고, 속이 안 상하고 태평하고 즐거우면 해바라기처럼 즐겁게 웃고, 또 너무 화가 나서 부득부득 뭐가 일어나면 막 부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화를 냈으면 화를 낸 대로 행이 나오고, 웃을 때는 웃는 대로 행이 나오고, 울 때는 우는 대로 행이 나옵니다. 그 행이 바로 탈바꿈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모습 자체도 변해 가면서, 물건이 전부 부서지고 변해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체 만법이 다 똑같다는 얘깁니다.

항상 말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 다니면서 봤는데 토끼란 놈이 말입니다. 잿빛을 하고 있다가도 추운 겨울에는 잿빛 나는 털을 하얗게 탈바꿈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묘한, 짐승들도 자기가 살 궁리들을 하면서 탈바꿈을 하는데, 사람이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이름입니다. 대의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한 번 빙그르르 돌아서 나와야지 돌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천지가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마음도 그렇게 안으로 굴리면서 돌아야 바로 내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생산해서, 내가 또 안으로 체험하고 안으로 굴려서 두 번 없는 두 번의 생산이 됐을 때, 비로소 너와 나와 둘이 아닌 죽음이요, 다시 한 번 너와 나가 나툴 때, 세 번 없는 세 번의 죽음이요, 우리가 지금 참나를 발견한다, 마음을 깨닫는다, 도인이다 하는 말이 있기 이전에 말입니다. 순박하게 못났든 잘났든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화두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고 24시간 자나깨나 그것이 전체가 다 참선이요, 싱그러움이요, 법이요, 묘한 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서 억겁을 거쳐서 이 세상에 거듭거듭 나오면서 이렇게 아픔과 쓰라림을 당했거늘 어찌 오늘날에 인간의 몸을 받아 가지고도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살면서도 모릅니까. 지금 복장을 치면서 아파서 울면서도 모릅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본법과 우리 살림살이가 둘이라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살림살이 빼놓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무엇을 일컬어서 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연(鮮妍)한 부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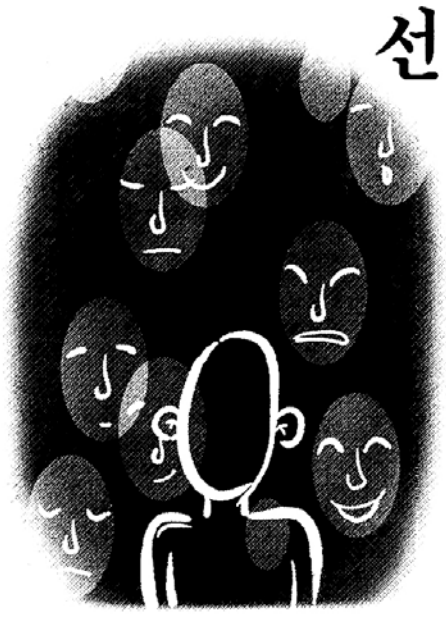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와 남이 더불어 함께하는 선연한 부처의 삶 살아가야

24시간 자나깨나 전체가 다 참선이요, 싱그러움이요, 법이요, 묘한 도리

망상이다, 끊어야 된다 하지말고 자기한테서 나온 거 자기한테 놔야

병고 때문에 고통이 큰게 아니라 그 병고를 느끼는 마음이 문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요

문 저는 27세의 청년입니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 '성(性)'이란 무엇입니까. 전 예전에는 '성'이라 하면 왠지 죄악시 하곤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저는 저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을 보는 눈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지요.

답 그 나이에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 육신이 자기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 근본은 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불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성과 흔히 말하는 영혼은 다른 뜻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은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그대로 굴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성은 힘을 배출해 주는 근원처입니다. 수레가 굴러갈 때에 바퀴에 심봉이 있어서 이탈을 안 하고 굴러가듯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 속에 의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습과 의식, 생명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관하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된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자살의 경우라면 입력이 되는 대로 의식 속에 차례로 입력이 된 자체가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자꾸 발사가 되는 거죠. '넌 죽어야 한다.' 그러구 말입니다. 또 세균성 · 인과성 · 유전성 · 업보성 · 영계성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식이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을 일으켜서, 핑계가 돼 가지고, 상대성의 핑계가 돼 가지고 그냥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깐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천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큰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딛고자 했던 것이 허탈하고 허망할 때,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대치하느냐 하는 거를 제시하고 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데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전부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것 해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순간순간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다고 하고 어떤 걸 봤다고 하겠습니까.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참나찰나 나툰다고 하는 건 건너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건너뛰고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또 한 발짝 떼어놓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단, 마음에 소속된,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또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거죽에 보호된 장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구도 안에 있으면 바깥에 지구라는 장치가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과 정신계와 둘이 아니게 그냥 끝없이 돌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원이 높게 발족하는 대로 발명을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나를 발견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무조건 거기 맡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도 놓고 선도 다 놓아야 되니깐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요,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밖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하거나 '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선 그 또한 다시 놓고, 잘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거는 나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양면을 다 놓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으니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놓고, 또 안 된다는 생각조차도 놓고, 빨리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를 실험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간에 남녀의 문제라 해도 그렇고, 죄가 된다는 생각도 그렇고 모든 걸 맡겨 놓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관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무조건이요. 이 공부는 이유가 붙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자기 돌아가는, 참나에 돌아가는 자기 주인공한테 그냥 무조건 놓고 지켜보세요. 일체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 맡겨놓고 매사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나간다면 어느 땐가 자성불이 발현이 될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 때가 되면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이든지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병고에서 벗어나려면…

문 마음도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정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석에 들고 보니 그렇듯 자신 있게 믿어왔던 제 안의 주인공이 있기는 한 것인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스님, 이렇게 나약한 질문을 올리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닥친 이 병고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눕게 한 놈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파서 눕게 한 놈이 누구냐? 그거를 알면 아파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가 그런 거니깐 일으키는 것도 네가 일으키는 거지. 네가 형성시켰으니깐 네가 일으켜라."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다면, 설사 몸은 누워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한잠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듯 그렇게 가벼워질 테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을 하면서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그냥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끄달리니까 몸 속의 생명들도 꼭 그렇게 듣고선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될 수밖에요. 그래서 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아주 미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짝을 성큼 뛸려고 해도 뛸 수 없으니까 요만큼만 뛰어야지 알맞겠다고 생각하고 떼어놓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덮어놓고 그냥 막 떼어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살아나가는

☞ 26면으로 계속

☞ 25면에서 계속

모든 것이 한마음속에서 생기는 것
둘아닌 도리 알고 한곳에 보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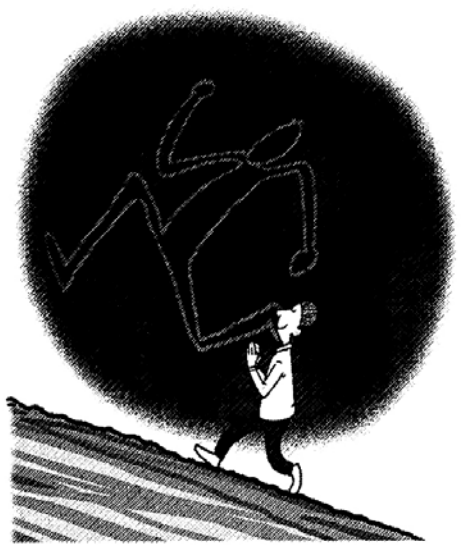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모두가 공했으니
그냥 묵묵히 길을 걸을 뿐

주인공자리가 어떠한지…

문 저는 평소 스님 법문을 현대불교 신문과 한마음 요전을 통해 보고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자리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느낌은 옵니다. 욕심과 분노에 안절부절하는 내가 있고, 그 이로 뛰어넘으면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답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이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는데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하는 한 발 한 발 겁내지 말고 떼어놓고 사시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마음으로 뛰어넘을 때는 우리가 지혜를 넓혀야 되겠다 할 때는 가차없이 떼어 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건 길이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저게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생각을 하니깐 믿게 되는 거죠. 저 언덕배기가 길이라고 그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뜻이 있으니깐 믿는 겁니다. 여기가 길이니까 저기가 길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만 길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뒤에 문제를 좀 알아보자 하고선 올라가서, 까만 데 올라서서 보니까 허공만 보이거든요. 허공만 보이니깐 "어, 이게 허공길이구나! 허허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달이 된 세상에서, 옛날에는 몸으로 가서 봐야 알았지만 지금은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게 길이 아니라 저 높다란 산꼭대기가 길이라고 한다면 생각으로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혜가 모자라서, 거기가 길이라면 그냥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나 어려서만 해도 그렇게 못 듣고 못 보고 했으니깐 여러석은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육체의 고행이 아니라도, 정신의 노력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 땅이 이만큼 있어도 그 진 땅을 넘어서면 아무 기탄이 없는데, 그 진 땅을 넘어서지 않고 다리를 걸고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니까 그거 씻어야지, 뭐 이것저것 죄 해야지, 옷을 갈아 입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쩍 뛰어넘어라 이랬습니다. 마음으로 뛰어넘으라는데 왜 못 뛰어넘느냐, 마음으로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억지로 할 수 없나 봐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모두 제 마음을 가지고도 제 마음대로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문제가 크죠. 병고 때문에 고통이 큰 게 아니라 그 병고를 느끼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상처가 생겨도 그 아프다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큰 고통이지만 설사 큰 병고라도 마음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관한다면 그 또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찰나에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훌륭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의 나도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알려고 애를 쓸 때의 나도 있고, 지하철 역 앞의 거지에게 100원짜리 잔돈을 주는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항상 그 마음이 그때뿐입니다. 참나를 찾아서, 보리심을 내었는데 돌아서면 잠시 예전과 똑같이 또 욕심부리고, 화내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일상의 나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법당에서 108배를 하거나, 불보살님의 명호를 욀 때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법당 문을 돌아서서 나오면 예전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마음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번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이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는데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하며, 무엇을 내가 가졌다고 하며, 무엇을 내가 줬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내 것 아님이 없고 남의 것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닙니까? 아니죠? 한 발 떼어놓았으면 금방 앞서 발자국은 없어지고 과거로 돌아간 발자국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발자국 딛고 걸어온 사람 자체도 공해서 없습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언제 왔다고 하고 언제 갔다고 하며,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고,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며, 어디를 내가 갔다고 하며 어디에 내가 왔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공했으니 그냥 길을 걸을 뿐이요, 먹을 뿐이요, 만났을 뿐이요, 말할 뿐입니다. 그냥 묵묵히 말입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말을 하고, 찰나찰나 듣고, 찰나찰나 책을 보고, 그렇게 찰나찰나 말을 하고 만날 뿐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없는 문을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 불성이 그대로 여여한 것을 알고 중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 그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108배를 하고 만 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몸으로 한 것이라면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 배를 올리더라도 삼 배를 올리더라도 일체를 하나로 둥글려서 공심으로 하는 절이라면 그건 우주 천하를 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불성이 있다는 걸 알고, 불성이 있는 고로 여여한 줄 알고, 또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유자재권을 그대로 모두 소유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핏물이든 빗물이든 똥물이든 모든 물이 바다로 한데 합쳐서 모입니다. 깨끗한 물이든 구정물이든 어떤 거든지 말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짖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면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금 내려줍니다. 이게 생수입니다. 그래서 저 풀 한 포기도 그 생수를 마시고 삽니다.

근데 그게 참 묘한 것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먹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먹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아주 작은데도 그냥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평등한 공법으로 아무리 우리를 건져주셔도 그릇이 작아서 먹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릇대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비를 내려주셔도 자기 그릇이 요만하다면 고만큼밖에 못 먹는 거죠. 크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구요. 그러니 누구 원망을 하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난 탓이요, 자기 그릇이 작은 탓이요, 또 넘치는 건 그릇이 큰 탓이니까 넘치지도 말고 적지도 말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중도로써 중용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한마음 속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그렇게 바깥으로 뱅뱅뱅 돌다보면 세월 다 가고, 그러다 보면 벌써 옷을 벗게 되는 거죠. 모습이 없으면 부딪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이 몸이 스러지기 전에 기필코 우리는 그 소식을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로 '마음공부' 한다고 말하지만 일거수일투족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하는 거고, 또 자기가 있으니까 생활이 있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하는 둘 아닌 도리에 대해서 아시고 모든 걸 한 군데다 보림을 해야 하는 거죠. 용광로에 모든 쇠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쇠로 만들듯이 그렇게 뭉땅 놓아서 새로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걸러져서 정말 생수가 돼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는 다 그 물로 하여금 살고 있는 것이니 일체가 공식(共食)을 한다는 겁니다. 공식이다 해서 먹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집어삼키라는 뜻입니다. 앞에 닥치는 거마다하지 않고 집어삼키고, 가는 거 잡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그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임을 알고 화가 나든지 편안하든지 어떤 경우이든 그 자리에 놓고 밭기는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영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

아직도 구도(求道)하십니까?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고통과 죽음을 초탈한 3일간의 체험

부처님 당시 '마하기섭'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테크닉(방편)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이상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약드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구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확실하고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수 련 과 정

本 性 (3일)	無心, 無我, 無分別智, 업장소멸, 죄의식소멸
無碍法界 (2일)	不空, 寂滅,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마음의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無上覺 (2일)	거듭남의 비밀, 삶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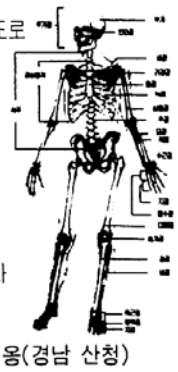
춤바웅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온라인 불교동호회 봉사활동 활발

보현행원·연꽃향기모임·부처님나라 등

수재민·소외계층 돕기 현장 맹활약

"가상공간서 인연, 현실세계서 회향"



◇다음 보현행원 카페 회원들이 지난 11월 17일 김해 노인요양원을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17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 노인요양원. 20여명의 불자들이 빨래, 청소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다음 보현행원 카페 회원들. 요양원에 거주하는 80여명의 노인들은 자원봉사자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활짝 웃음을 짓는다.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도 봉사방과 자비회라는 소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봉우이웃을 돕고 있다. 봉사방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청소년 보육시설인 경기도 시흥 송암동산과 안산 둥지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97년 6월과 98년 4월 각각 송암동산과 둥지마을을 처음 방문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봉사방 회원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친형, 누나처럼 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가을 김해에 수재가 났을때 십시일반 모금을 해 수재민을 도왔고, 8일에는 보현행원 노인요양원에 대형 텔레비전을 선물하기 위해 기장군 혜광사에서 일일찻집을 열 계획이다.

천하게 지내고 있고, 보육시설을 내집처럼 훤히 알고 있어 스스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할 정도다. 부산지역방 내의 자비회도 매월 둘째주 일요일 부산 천마동산에서 정기 봉사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달 10일에는 쇠고기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선물할 계획.

다음 카페의 연꽃향기모임(http://cafe.daum.net/simhyang)도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다. 강원도 번개부대 군법당 보현사 불사후원, 의정부 선재동자원 후원, 헌혈증서를 모아 생명나눔실천회에 기부, 매월 1구좌 천원이상씩 후원해 소녀가장, 독거노인, 소년원, 양로원 등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그 활동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맹렬하다.

그 외에 다음 카페 천수천안, 세이클럽 카페 청년불교우리사랑, 남만의 통도마을, 아이러브스쿨의 감로수 등의 동호회에서도 다양한 봉사 및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승지스님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현실세계에서 회향되고 있다"며 "봉사활동과 같은 오프라인모임이 인터넷상에서 회원증가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신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조계종이 종단 홈페이지 영문사이트(http://eng.buddhism.or.kr)를 11월 26일 개통했다.

조계종 영문사이트 개통

불교세계화 이미지 향상 기대

'로터스렌턴' 등 각종 자료 수록

이 영문사이트는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국제적 홍보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국제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불교기관 및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사이트는 종단소식과 종단일정, 칼럼 등을 통해 한국 불교계의 현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교리나 한국불교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실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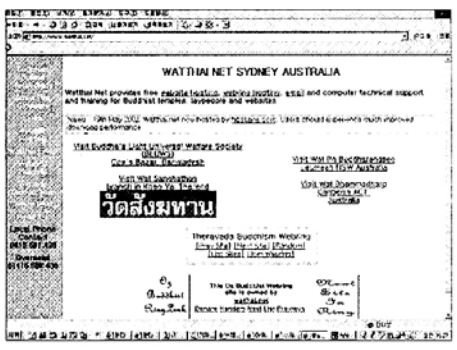
또 불교관련 각종 영문자료를 수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계종에서 발간하는 영문판 계간지인 '로터스렌턴'을 호수별로 수록해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구성은 종단소식, 불교경전, 한국불교용어와 해석, 칼럼, 종단일정, 메일링 리스트, 환율 등으로 구성되며, 템플 스테이, 한국의 사찰, 한국불교의 고승 등의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조계종은 앞으로 계속해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축적해 나가는 한편, 일어와 중어로 된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와타이닷넷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을 돕기 위해 웹 호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음성법문 서비스 제공

와타이닷넷(www.watthai.net)은 호주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로 비상업적인 웹사이트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왕소와 담마사라 눈스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아잔 와야다, 아잔 냐나담모 등 대수행자들의 법문을 담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보디냐나 수도원의 수도원장 아잔 브라흐마왐소가 풀어내는 9일 명상 이야기는 1997년 12월에 녹음된 것으로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와타이닷넷의 자랑은 뭐니뭐니해도 음성법문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음성법문을 모아 서비스 하고 있다.

아잔 브라흐마왐소는 오온, 성냄과 용서, 명상 안에 있는 고요와 통찰력 등 다양한 불교 교리와 접근방식을 법문으로 풀어내고 있다. 와타이닷넷은 소규모의 팔리 용어 사전도 선보이고 있어 인기다.

음성서비스를 살펴보면 보디냐나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아잔 브라흐마

강지연 기자

게시판 엿보기

○ 실의에 빠지지도 말고 오늘의 아픔에 좌절하지도 마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깐요... "인생은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화산, 세무사불자회 보리수게시판

○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이곳엔 항상 난로처럼 따뜻하고 이쁜 이야기가 많을 것 같네요.

이성수, 부처님 마을 신입·가입인사

○ 내마음 어느 한자락, 당신께서 뿌려주신 사랑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일연, 다음 관세음보살카페 게시판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삼광사

종무관리프로그램 '삼(Sam)' 자체 개발

ARS, 터치 스크린 등 각종 자료 수록



◇부산 삼광사 종무원들은 완벽하게 구축된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12월 11일 아미타전 기공식을 앞둔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종무소는 행사 안내장 발송 작업이 한창이다. 새벽 6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종무소에서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신도 주소가 출력되고 안내장이 우체국으로 보내지기 까지 꼬박 사흘이 걸린다. 전산화된 신도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인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방대한 분량의 DM 발송이 진행중이지만 종무소의 업무는 순조롭다. 김은희 총무계장이 신도증을 갖고 오지 않는 신도의 성의금(회비) 납부 현황을 알려준다. 이름만 입력하면 신도의 회비와 시주금, 안거 횟수까지 모든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산화가 단 9명의 종무원으로 33만 신도를 관리할 수는 비법이다.

삼광사는 날로 늘어나는 신도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1993년 자체 종무 프로그램인 '삼(sam)'을 개발했다. 전산을 전공한 손현열(44) 총무과장에 의해 개발된 '삼'은 개별 사찰 실정에 맞지 않는 기존 종무 관리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삼광사에 맞는 종무 통합 관리 개념을 도입해 만들었다. '삼'에 들어가면 신도관리, 불공관리, 제사관리, 안거관리, DM발송 등 16개 항목이 있어 신도들의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삼광사의 홈페이지(www.samkwangsa.or.kr)는 97년 초 문을 열어 삼광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전국의 네티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인기 사이트로 자리잡았다.

어느 사찰보다 앞서가는 신도관리 프로그램으로 종무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삼광사의 전산화에 대한 의욕은 끝이 없다. 2~3년 내에 문을 열게 될 천태종 인터넷 방송은 크고 작은 법회의 동시 생중계로 신도들뿐 아니라 네티즌들을 향한 적극적인 포교방안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말사 공사현황이나 대규모 행사를 본산에 앉아서도 볼 수 있도록 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도 계획중이다.

또한 2002년 7월 이미 메일샷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간부 1500명에게 행사 안내, 회의 소집 등을 공지해온 삼광사는 ARS를 통해 주지스님의 음성으로 신도들을 격려하거나 행사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광사 방문자나 신도를 위해 내년 중반기에 사찰 내에 터치 스크린을 설치, 필요한 정보를 열람,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의 전산화가 효율적인 신도관리에 치중되었다면 이후 디지털 불사는 신도들을 향한 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겨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서츠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8 서츠 ₩5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지 ₩60,000
₩3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혈순환 마사지 "열기왕생"
케이블 육아 TV,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금강산 가던 경원선 중단점인 '신탄리역'에 멈춘 기차는 다시 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차 멈춘 곳 옛절이 있네

최북단 간이역 신탄리역
금강산 향하는 마음 아쉬워도
심원사 도피안사서 "피안의 즐거움"을…

무작정 기차에 오르고 싶을 때가 있다. 종착지까지 이런 목적이라면 남한 최북단의 간이역이자 금강산으로 가던 경원선의 종단점인 신탄리역도 좋을 것이다. 의정부에서 탄 기차가 세차게 바람을 가르며 북으로 달린다. 원효가 들어와 수도했다는 동두천 소요산을 오른쪽으로 올려다보고, 거세게 흐르는 한탄강 건너 북으로…. 1시간 쉼 없이 달린 여섯칸 남짓한 기차는 차탄천을 거슬러오르며 신망리역 대광리역을 지나 드디어 **신탄리역(031-834-8887)**에 도착한다.



◇심원사 지장보살상.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기적 소리도 힘차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신탄리역에서 철길을 북쪽으로 300m 쯤 가면 레일은 끊기고 철도중단점을 알리는 입간판이 서있다.

'언제쯤이면 마음놓고 이 길을 기차로 지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밖으로 나와보니 동송행 버스가 기차 하차 시간에 맞춰 서 있다. 10여분 달렸을까. 차창밖으로 길가 왼편에 낯익은 노동당사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3년전만 해도 민통선 안이라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요새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20여분 더 가니 도피안사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통일신라시대 경문왕 5년(865년)에 창건된 '도피안사'는 국보 제 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과 보물 제 223호인 3층 석탑이 보존돼 있다. 당시 도선국사가 높이 91m의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만들어 철원 안양사에 봉안하기 위해 가던중 잠시 쉬고 있을때 불상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도선국사와 동행한 승려들이 일대 부근을 샅샅이 뒤지다보니 현재의 도피안사 자리에 불상이 정좌한 채로 발견돼, 이 철조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도피안사(033-455-2471)**라 이름지었다. 지난 10월에는 법당앞 3층 석탑에 아침 예불시간만 되면 개구리 세 마리가 출현해 함께 예불드린다고 화제가 돼서 모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다.

도피안사에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다 동송읍내에서 상노행 버스로 갈아타 10분 정도 가면 **심원사(033-455-3468)**가 있다. 보개산 심원사는 유점사의 말사였다. 유점사본말사지에 의하면 심원사는 647년(진덕여왕 1) 영원(靈源)조사가 보개산에 창건, 고려때 모두 폐사되었으나 흥림사만 맥을 이어 오늘의 심원사가 되었다고 한다. 심원사는 6.25 당시 잃어버렸던 지장보살상을 되찾아 모신 기도도량이다. 이 지장보살상은 높이가 90cm, 무릎폭이 70cm가량의 작은 석불이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내려감은 듯한 눈, 잔잔한 미소, 왼쪽 어깨에는 천년전 이순석이 쏜 화살에 맞아 손상된 흔적이 남아있다. 보개산 석대암으로 들어가야 할일이 남아서일까. 강원도 심원사 지장보살은 도금을 하여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칠이 벗겨지고 만다고 한다. 주말에는 생지장보살의 가피를 입으려는 기도 순례자들로 끊이질 않는다.

철원=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msoo@buddhapia.com

산사가 있는 간이역

◎**부산 기장역(051-721-7788)**: 장안사(051-727-2393)는 신라문무왕 13(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해 쌍계사라 부르다 애상왕이 다녀간 후 개칭한 사찰이다. 경내에는 대웅전·명부전·응진전·산신각이 있으며, 부처님 진신사리 7과가 3층 석탑에 봉안돼 있다. 기장역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용궁사(051-722-7744)는 바닷가 절벽에 자리잡아 절경이다.

◎**경남 사천 다솔사역(055-854-6661)**: 다솔사(055-853-0283)는 신라 지증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한 역사 깊은 고찰로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뜻의 이름이다. 사찰 내에는 조선 영조때 건물로 가장 오래된 대양루와 극락전, 응진전과 함께 유형문화재가 있으며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있어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온 고색창연한 고찰의 향기를 넉넉히 맡을 수 있다.

◎**강원 고한역(033-591-2787)**: 정암사(033-562-9690)는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1천 3백여년전 창건한 고찰로서 석가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과 서해 용왕이 보내준 마노석으로 쌓았다는 전설이 깃든 수마노탑(보물 410호)이 우뚝 서 있다. 법당인 적멸보궁에는 자장율사의 법복과 붓서(佛書), 선덕여왕이 하사한 금란가사, 인도에서 건너왔다는 오동 향로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진골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불상은 없다.

◎**경기도 소요산역(031-865-7788)**: 자재암(031-865-4045)은 신라 선덕여왕 14(645)년에 원효대사가 지은 사찰로 창건 후에도 원효대사가 계속 참선 수행하며 도를 깨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자연 석굴안에 부처님과 16나한을 모셔 놓은 나한전은 영험한 기도처로 유명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 압록역(061-363-7788)**: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깡패엄마 이영애가 몸을 던졌던 곳으로 유명한 이 역의 주변에는 도인들이 숲같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고찰 도림사(061-362-2799)와 한때 송광사와 화엄사를 말사로 거느릴 정도로 대찰이었던 태안사(061-362-4906)가 있다.

◎**강릉 정동진역(033-644-5062)**: 괘방산 중턱에 있는 등명낙가사(033-644-5337)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처음 세워서 수다사라고 불리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등명사가 중창되어서 많은 스님들이 수도 정진한 사찰이다.

기차역이 절 이름인 역

기차역	노 선	위 치	전화번호
직지사역	경부선	경북 김천시	(054)436-7788
불국사역	동해남부선	경북 경주시	(054)1544-7788
희방사역	중앙선	경북 영주시	(054)638-7788
흥국사역	여천선	전남 여수시	(061)685-6083
백양사역	호남선	전남 장성군	(061)392-9044
개태사역	장경선	충남 논산시	(041)735-0779
성주사역	진해선	경남 창원시	(055)1544-7788

여행메모

이색 볼거리

백마고지, 노동당사, 월정역, 전망대, 제2땅굴 등 안보관광지로서 볼 것이 많다. 신탄리역 앞 백마관광(031-834-8951)에 문의. 1만3천원이면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안보관광지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고대산 정상에 오르면 탁트인 철원평야와 백마고지를 볼 수 있다.

신탄리역 뒤쪽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갔다오는 데 3시간30분 소요. 험한 산이 아니어서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좋다. 또 유황성분을 함유한 온천수가 나오는 대광온천(031-834-9950)이 가까운 곳에 있어 산행 후 온천욕을 즐길 수도 있다.

먹거리

고대산 자락의 대광골에는 부근서 이름 높은 막국수와 추어탕, 순두부 등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몰려있어 미식가들이 즐겨찾고 있다. 특히 고대산 입구의 통일식당(031-834-8025)은 된장국과 나물반찬이 한상 차려져 나오는데 보리밥에 고추장을 넣어 비벼먹으면 별미다. 값 3천5백원.

찾아가는 길

의정부역에서 신탄리역까지 경원선 열차가 06:20부터 22:20까지 1시간마다 출발한다. 신탄리역에서 의정부역으로 되돌아오는 기차는 매시 정각에 출발. 1시간 20분 소요.



종각역에서 도보로 1분거리, 조계사 옆-
종각 우정에쉐르

ESHER

교통 | 1호선 종각역 도보로 1분, 광화문 사거리, 안국로 인접
경제 | 국세청, 40여개의 대사관, 500여개의 외국기업 밀집
환경 | 조계사주변 공원화, 우정공원으로 둘러쌓인 쾌적환경
설계 | 타워형 설계로 양면 채광 및 조망권 극대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2003년 11월 빠른 입주
(현재 골조공사 진행중)
고품격 마감재와 차별화된 인테리어



선착순 분양중!
분양문의: 02)736-9898

우정건설(주) 제일은행 성산토건(주)